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8호 2011년 8월 10일 수요일 (음력 7월 11일 · 불기 2555년 · 주간)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 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마세요.
- 성주 도솔암 주지 지해 스님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조계종 화쟁위 등, 노사 대화 재개·불자 관심 호소

"김진숙 씨 살리는데 우리 사회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

2년간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3000여 명 해고로 비롯된 한진중공업 사태의 문제 접근 및 해결 방법을 두고 노사, 여야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
정부가 중재자 돼야

화쟁위는 입장서에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 회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사태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 파국을 막고 극단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만은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35m 크레인 위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1월 6일부터 2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쟁위는 "지난 해 문수 스님을 떠나보냈던 불자들은 더욱 남다른 심정으로 김 씨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씨가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내려오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은 1989년 박창수 씨의 의문사, 2003년 김주익 씨 자살 등 잇따른 비극의 역사를 갖은 곳이다.

화쟁위는 "크레인 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불자들의 당연한 서원이며 민주시민의 책임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야 한국 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쟁위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 노사가 조건 없이 만나고 대화하도록 해 달라. 화쟁위는 앞으로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민주 · 한국노총 등을 찾아 호소문을 4일 전달했다. 또, 부산지역 불교계와 연대해 합동법회 봉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화쟁위 실무위원장 법안 스님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회적 약자 · 소수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종단은 헤어진 사람과 해후하는 칠석(7일), 자유와 해방을 배경으로 한 백중(15일) 법회 등을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실상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월 28일, 15개 불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웅기)도 성명서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사측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중재자로서 나설 것 ▷불교계는 한중 문제와 유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8월 3일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을 비롯한 53명의 스님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사태 등 시국 현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53인 승려들의 시국선언은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상징한다. 결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사태 등 국민들의 고통을 불교인으로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오늘 선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보리수 아래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떠나기 시작했다. 시원한 계곡의 그늘과 파도치는 바다도 좋지만 풍경소리 들려오는 사찰의 그늘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8월 1일 김제 금산사 마당의 보리수 그늘 아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앉았다. 먼 풍경소리가 시원한 바람을 실어오고, 산새 소리가 시름을 물어간다. 올 여름은 보리수 그늘에 부처님처럼 앉아 한 더위를 끊어내 보자. 박재완 기자

봉은사, 국회서 북한사찰 사진전

8월 10~11일, 北 전역
60여 곳 사찰 사진 전시

북녘의 우리 절과 절터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10~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분단 66년, 북녘의 불교문화 유산'을 주제로 북한 전통사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의 사진들은 북한 전역 60여 곳 사찰과 6곳 폐사지의 전각과 유물 사진 6500여 점 가운데 60여 점을 엄선한 것들이다. 봉은사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및 민족화해협력협의회와 2009~2010년 1년 여에 걸쳐 촬영한 이 사진들을 추려 지난 6월 〈북한의 전통사찰〉로 펴낸 바 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남 · 북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작은 가교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도적 사업과 함께 종단이 진행하는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0면

조동섭 기자

8월 11~14일 만해축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 · 자유 사상 선양을 위해 열려 온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제15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축전시인학교 등 5개 부문의 문예행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제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축전 전야제와 대동축구대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12일에는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군게이트볼대회, 7080가요제, 제13회 만해백일장 등이 열린다.

조동섭 기자

도법 스님, 김진숙 씨 위한 108배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8월 4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등을 방문해 한진중공업 사태 원만 해결을 촉구하는 108배를 올렸다.

도법 스님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스님의 면담을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계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님은 전경련, 민주 ·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108배 후 호소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스님의 호소문 전문이다.

김진숙 씨가 살아내려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주가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작품이 생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자존심, 명예, 돈, 권력, 재산, 진보 · 보수, 자본가 · 노동자의 입장 등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 겁 많음, 게으름, 나약함, 이해타산, 무력함 나아가 누군가가 나서서 잘 해결하겠지 하는 마음을 핑계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실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력한 좌절감에 시달리며 모색하고 모색한 끝에 엎드려 호소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섰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쪽저쪽의 그 분들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우리의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대로 그 무엇보다도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만고의 진리를 화두로 붙잡고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이든 해결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이웃으로 좋은 동반자로 머리를 맞대어 직면한 오늘의 문제를 수준 높게 풀어낼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도 한 단계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강조되는 선진사회로 성큼 나아가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주가 창조해낸 위대한 작품, 우주의 무게를 갖고 있는 김진숙 씨의 생명이 살아 내려오는 길이 있다면 지극정성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조계종단에 문제제기 하라면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면 절하겠습니다. 김진숙 씨와 노동자를 만나라면 만나겠습니다. 회사와 조남호 회장님께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읍소하라면 읍소하겠습니다.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이든 가겠습니다. 끝으로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모든 언론이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김진숙 씨로 하여금 살아 내려오도록 하는데 국민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보도해주십시오. 특히 영향력이 큰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하길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고 익힌 지식이 틀리지 않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책, 신문, 방송에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보고 듣고 알게 된 지식들이 참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청합니다. 부디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2011. 8. 2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848호 CONTENTS

백양사 야단법석 입재식 2
특별기고·불교 출판 대안 모색 3
가야산골프장 없던 일로
명진 스님 국정원·조선일보 비판
현장속으로
우면산 관문사 복구현장 5



상반기 결산·사찰④
해인사 8
여름특집·지리산 명상 12~13
여름특집·책세상 22~24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반성해야 불교산다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4~7일 야단법석 열려


8월 4일 백양사 야단법석 입재식 모습

선지식 초청 백양사 야단법석이 '수행결사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을 주제로 8월 4일 백양사 참사랑 수행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재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을 대신한 법어에서 "평상심인 도를 알고자 한다면 천진스럽게 자연에 맡겨야 한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한다. 모두가 인연 따라 얻어지는 것이나, 얻어지지 않는 것도 인연이다.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일이여! 본인은 자연인 줄 깨달으니 빗속에 밝은 달을 구경하고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 난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는 조선불교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1953년 조계종단 정화 60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권 안팎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건강한 한국불교 발전에는 수행 외에는 해답이 없어 수행결사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마련했다"며 "늘 반성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자세가 계속될 때 건강한 승단, 종단, 불교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입재식에 이어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주제로 한 강의로 법석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인 5일에는 양산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함양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법문했다. 6일에는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의 의미'를 강의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모색했다.

한편, 야단법석은 2009년 8월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과 11월 백양사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두 차례에 진행된 바 있다. (차주상보)

이상언 · 이은정 기자



자승 스님, 자재암 복구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4일 폭우로 인해 사찰 축대가 붕괴되고 건물 일부가 토사에 의해 매몰된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을 방문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이번 폭우로 함께 피해 입은 천년고찰의 전통문화가 소실되지 않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관계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경찰과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격려금을 전달했고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에게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BBS, 사장선출 논의
11일 이사회의에서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이사장 선임 ▷신임 사장 선출 ▷임원 및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장에는 이변이 없는 한 現 이사장 영담 스님의 재임이 확실시 된다.

문제는 공석 중인 사장 선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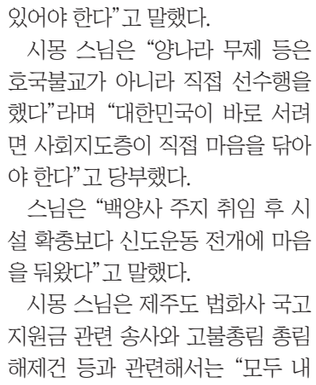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7월 6일 이사회에서 이채원 前 강릉문화방송 사장과 선상신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를 불교방송 차기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흥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修行이 최우선이다"

야단법석 두차례 연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2009년 가을, 지리산 자락에서 열렸던 첫 번째 야단법석에서는 "죽비로 길들여진 수행 풍토서는 선지식이 나오기 어렵다" "한국불교는 문중 파벌에 갇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등 조계종을 발칵 뒤집을 쓴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 번째 야단법석이 2009년 11월에 이어 2011년 8월 4~7일 백양사에서 열렸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3일 백양사 주지실에서 종단의 권력 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야단법석을 여는 이유를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원죄를 씻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원죄는 화합하지 못하고 싸운 죄로 특히 주지 · 소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온 것이라 설명했다.

시몽 스님은 "종교인으로서 참회하고 반성하고자 자성 · 자정의 자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성도 없으면 죽은 것 아니냐"고 반문도 했다. 스님은 야단법석을 시작한 향봉 스님과 각별하다. 하지만 "야단법석을 백양사에서 여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조계종은 최근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몽 스님은 "종단이 시의적절 하게 5대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스님은 "100명 안팎의 승려가 종권을 쥐고 종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존중받아야 할 포교승 등 힘없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밀려난 지 60여 년이 됐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조계종 창종 이후 현대 한국불교사를 일제 불교의 잔재로 인식했다. 일본 강점기 전 주지를 총무원이 임명하는 예가 없었고, 현행 교구본사제는 일본의 조선불교 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소임에 집착하는 것은 염불(수행)보다 잿밥(돈)에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시몽 스님은 "세상이 경제 · 경영 운운하는 것에 절집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출가자라면 수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지만, 스님은 "출가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양나라 무제 등은 호국불교가 아니라 직접 선수행을 했다"라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사회지도층이 직접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백양사 주지 취임 후 시설 확충보다 신도운동 전개에 마음을 둬왔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제주도 법화사 국고지원금 관련 송사와 고불총림 총림해제건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내 탓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백양사는 9월에는 쌍계루에서 60여 시인을 초청해 포은 정몽주(1337~1392)의 원운(原韻)에 시를 이어 읊는 시대회를 연다. 이어 10월에는 백양사에 주석했던 선지식 만암 스님(1875~1957)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봉선사, 26일 산중총회
차기 주지 선거는 삼파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8월 26일 열린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26일 오후 1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6~18일이다. 후보자 자격 확정과 산중총회 구성원명부 확정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23일 열린다.

봉선사 차기 주지로는 백화암 주지 정수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화범 스님, 현 주지 인묵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어야 하나"

불자들, 스님 모시옷 두고 토론 찬·반 갈려

절에 자주 다니는 불자라면 대형 사찰의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빳빳한 풀을 먹인 고급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과 고급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 누가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스님들의 여름 모시옷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제를 제기한 K씨는 "몇몇 스님들이 여름에 입고 다니는 모시옷. 마치 잠자리 날개 같은 고급 옷에 풀 잘 먹여서 입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라며 "그것도 소위 큰 스님이라 불리는 높은(?)스님들이 그런 짓을 더 잘 합니다. 스님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부처님은 고행할 때 무덤에서 나온 옷감을 누덕누덕 기워서 가사장삼을 만들어 입으셨다고 대중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 불자들은 아마도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연미복 같은 모시옷이 흔하질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속에 옷을 여러 벌 입어야 하는 스님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J스님은 "반팔, 반바지도 못 입고 게다가 속에 옷도 여러 벌 입어야 하는데 밖의 옷이라도 최대한 시원한 것을 입는 것도 안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풀 옷 들은 대체로 한번 마련하면 다들 몇 십년씩 입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부루나에서는 수행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시옷의 가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격 따지기 전에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재가자로서의 도리라는 여론이 대세였다.

K씨는 "재가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옷이라면 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D씨는 "나에게 다 그냥 스님이다.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께 먼저 모시옷도 보시하고, 멋진 모시옷을 입은 스님께도 먼저 합장 공양할 줄 아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나은 기자

박구원 만평



제2회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

공모사업내용 :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사례 및 사회복지 연구부문

목 적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창립자 이종대선생의 평소 신념인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연구를 장려하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임.

심사 부문 및 시상 내용

▶**심사 부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사례 및 연구업적 부문

▶**응모사업 대상 조건**

프로그램사례 부문 -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연구 부문 - 2010년 9월 1일~2011년 8월31일 출판 서적 또는 논문

▶**시상 내용**

프로그램 부문

- 대 상: 1,000만원(기관 7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300만원)
- 우수상: 500만원(기관 4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100만원)
- 장려상: 200만원(기관 15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50만원)

연구 부문 - 연구상: 300만원

- 불교 관련 사회복지프로그램실천사례와 연구의 경우 특별 가산점 부여.
- 대상의 경우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우수상 또는 장려상의 수상자로 복수 선정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의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신청 자격

1)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의 사회복지사업자
2)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사찰
3) 연구업적 부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의 연구자

응모방법 및 접수 마감

1) 응모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제출시 관련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저장)
홈페이지(www.chbuddha.com) 참조
이 메 일(kyt6060@hanmail.net)
2) 접수마감 :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구비 서류

▶**사회복지프로그램사례 부문**

1) 신청서(양식1) 1부
2) 사업계획형식(양식2) 1부
3) 단체일 경우 정관 및 회칙 사본 1부
4) 관련 증빙서류(사진, 스크랩, 평가서 등) 1부
5)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사회복지연구업적(서적 및 연구논문) 부문**

1) 신청서 1부
2) 서적 및 연구논문 1부
3)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수상자 발표

▶시상 시기: 2012년 2월 중순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기 타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2.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재단사무실: 02)517-3052, 연구소: 02)517-3045, Fax: 02)515-3021, 02)542-0519
신청 주소 : (우편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2, 청호불교문화원 內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주최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주관 |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

특별기고 불교계 출판계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한 문장과의 교감


불교 출판의 문제는 출판계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불교전문서점의 매장 모습. (현대불교 지료시진)

불교는 현대사회의 대안이다
불교 출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편집자가 먼저 책의 가치 높여야
독자에게 감동주는 문장 포착 중요

a. 마음을 바꿔라.

b.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한 때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 글쓰기 강좌에서 강사는 문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 a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다. 특히 불자라면 흘어진 휴지조각처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마음을 바꾸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네 마음을 보라. 곧 불교의 핵심인 일체유심조의 다른 버전들이다. 그런데, 곧이곧대로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실상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을 바꿔야 할 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b의 경우는, 문장이 무언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시 한번 눈을 부비고 생각을 가다듬게 만든다. 적어도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정신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는, '아하, 그래.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겠구나.' 곧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 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그 작동과정을 갈피갈피 헤쳐 보여주는 불교의 섬세한 가르침에 매료되어 불자들도 손대기 어려운 〈대승기신론〉을 읽고, 위빠사나 수행처의 마음수행 과정에 참여했으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30~40분간 명상을 한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의 간극이 사라져 가면서 우리는 지구촌의 소식들을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근 서구 사회에서의 불교적 욕구의 확산이나 불교와 과학계와의 깊이 있는 대화 등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포착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견지하는 불교는 지나친 물질 추구 속에서 토대를 잃고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인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쓰기 강사와 같은 층은 불교의 저변확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불교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층은 불교 출판의 차원에서 보면, 고급 독자이면서 곧 불교 출판의 층위를 높여줄 수 있는 고급 필자인 것이다.

출판현상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원고를 쓰는 저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야 하며, 출간된 책을 읽어줄 독자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하나에서 만약 불교출판계의 문제점을 든다면 저자 문제는 불교학계나 승가의 교육 과정 등에까지 확대되어 끝을 모르게 되고, 독자의 문제라면 불자들의 수준이나 불교신앙의 형태 문제까지 이르게 되어 역시 줄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불교계 출판계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일 것이다.

2008년 4월 1일 음식값 올리다 보니/냉면, 만둣국 한 그릇과/시집 한 권 값이 동일하게 되었다/한 끼의 배부름을 위한 것과/마음이 허전할 때 허기를 채우거나/싫증나도록 우려먹는/시집 값이 같다는 것은/참으로 모순이다.//나는 억울한 심정으로 독백을 쏟아낸다/시집 값 칠천 원/종이값이라고/나의 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유승배 시인의 '시의 값'이라는 시 전문이다. 요즘 웬만한 책값은 만 원을 상회한다. 심지어 사오만 원을 육박하기도 한다. 독자로 하여금 주머니에서 이삼만 원의 돈을 꺼내도록 한다는 것은, 이삼만 원이면 적어도 네댓 끼의 끼니, 또는 네댓 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인은 여기서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한 것과 싫증나도록 우려먹을 수 있는 시집 값이 같다는 것이 참으로 모순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저 종이값만 받는 것이고 나의 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시가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영혼의 갈증을 적셔주고 감성의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시를 읽는 독자가, 그 책으로 손을 뻗는 독자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책이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책을 다루는 편집자가 먼저, 먹고 입는 데 쓰는 돈 이삼십만 원은 아끼지 않으면서 책 사는 데 들이는 이삼만 원에 손이 주머니를 몇 번이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부박함을 탓하지 말고 독자로 하여금 이삼만 원으로 일이백만 원의 가치를 얻었다는 기꺼움을 느끼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책 한 권을 산다 해도 진정 거기서 마음을 울리는 내용은 단 한두 줄일 경우가 많다. 포인트는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한두 줄. 바로 그것이 저자가, 혹은 어느 깐깐한 편집자가 심혈을 기울여 다듬은 한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연을 따지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한 문장을 벼리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오세연 대표(도서출판 나라연)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강을 살린다

지율 스님·내셔널트러스트, 내성천 지키기 '시작'



내성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지율 스님.

지율 스님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8일 조계사 경내 전시실 '모래'에서 가졌다. 내성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이 모금과 기부를 통해 내성천 주변의 사유지를 확보해 생태적 공간으로 보존하는 활동이다. 지율 스님은 최근 주민 50여명과 함께 내성천 답사를 통해 트러스트 운동의 필요성과 내성천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내성천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모래톱이 발달해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댐 건설로 상류로부터 모래 공급이 차단돼 생태계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내성천 트러스트는 올해 안으로 1만 여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사유지 1만 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까지 10만 명이 참여해 10만 평의 사유지 확보가 목표다. 내성천 트러스트측은 사유지가 확보되면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생태습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내성천은 낙동강의 원형이다. 강의 땅을 강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가야산골프장 21년 만에 없던 일로

환경부, 골프장 폐지 결정 고시

해인사 수행환경 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이 21년 만에 폐지 · 고시됐다.

환경부는 7월 21일자 관보를 통해 골프장 신설 계획을 삭제한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추진하려던 골프장 건설계획도 폐기했다.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1990년 건설부(現 국토해양부)가 수립했다.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골프장은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공원계획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21년 동안 건설 여부에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밝고 향기롭게, 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종교 · 환경단체들은 29일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논평에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주의 행정심판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환경부의 소신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논란은 1991년 골프장 사업 시행이 허가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경 · 사회단체들은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였고, 1995년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가야개발 측이 소송을 통해 사업을 강행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추진이 백지화되는 듯했다.

2009년 경북 성주군이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백운과 사업시행을 재추진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자 주식회사 백운은 2011년 1월 골프장 사업을 취하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국가정보원 국가망신원으로 개명해라"

명진 스님 '민족21' 수사 비판

국가정보원이 〈민족21〉(발행인 명진)을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가 8월 3일자에서 〈민족21〉 관계자들이 북한 정찰총국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명진 스님이 강하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사진)은 4일 만해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언론탄압과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민족21〉은 합법적 틀 안에서 활동 · 운영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21〉에 지령을 내린 주체가 225국에서 정찰총국으로 바뀌어 보도된데 대해서도 스님은 "국가정보원은 국가망신원으로 개명하는게 낫겠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북의 지령을 받았다면 즉각 폐간하고 발행인인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정을 비판해 온 본인에 대한 보복적 수사거나 공안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정원은 즉각 폐원하고 원세훈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스님은 "사실 확인도 않은 조선일보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넋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회만 있으면 눈이 벌게 유치하느라고 장 세월에 국력을 쏟아 부어 왔던 합리화된 모리정치놀이에 국민의 넋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이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공교육)실천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화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서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 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 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락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료 = 택배비 포함) **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合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 × 19㎝, 총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 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教育志士(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 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활은 설립이후 〈3년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

일 주 문



천태종, 하안거 한달수행 프로그램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신묘년 하안거 한달수도'를 진행한다.



조계사 노후설계 아카데미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11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마음다스리기'를 주제로 국민연금 배민정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연다.



은해사 조사전 상량식 봉행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8월 2일 경내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목련싣달 청소년 여름캠프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4~7일까지 고성 건봉사에서 목력싣달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동화사 팔공산 승시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9월 1~5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에서 제2회 팔공산 승시를 개최한다.



사회복지 사진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실버갤러리 고운님에서 7월 27일~8월 16일 '사회복지자원봉사 아름다운 사진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입학사정관제 전공 바로알기 캠프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8월 18일까지 고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전공 바로알기 캠프'를 연다.



반갑다연우야 봉사자 모집

반갑다연우야 황채운 봉사단장은 10월 29일~11월 3일 라오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2-7272



불자마라톤동호회 참선수행

정해선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회장은 불자마라톤회 1080배 절 수행 및 참선수행을 9월 3~4일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 개최한다. (051)253-8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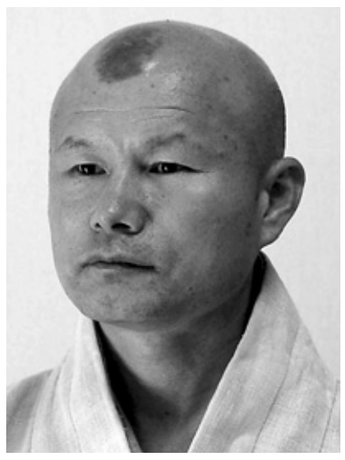


2011 Young Buddhist Camp.

이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11~14일 고창 선운사에서 2011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수행환경 수호 기도 입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진화 스님(사진)이 말 많고 탈 많던 봉은사 주지 자리에 임명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스님은 그동안 매일 종무원들과 108배를 하고, 사시예불 등에 동참하는 등 사중 안정에 전념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봉은사는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의 규제로 정체되는 한편, 도량 앞 코엑스 컨벤션센터의 증축계획(4층→39층)으로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에 처해 있다.

진화 스님은 8월 1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중도 안정되고 신도들의 신행활동도 정상화돼 특별한 기획을 시작해도 될 시기가 됐다"며 입을 열었다.

스님은 첫 번째 대외행사로 8월 10~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전통사찰 사진전'을 연다 진화 스님은 "현재 봉은사 시설은 포화상태이다. 2000여 명을 동시수용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법회를 주관해보니 마당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법문만 시작하면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천막 등을 모두 동원해 신도들의 신행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봉은사에는 매주 일요법회에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많은 인원이 매주 봉은사를 찾는데는 진화 스님이 큰스님 등을 초청해 유익한 법문을 제공하는 것도 주효했다.

진화 스님은 "봉은사에 대형의 수행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내부역량의 결집과 직결된다"면서도 "외부환경 변화로 수행환경이 침해받는 것을 막는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수행환경을 지키고, 7만 여 신도의 신행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님은 참선, 참회기도 등 여러방법을 고민했다.

진화 스님은 "많은 인원이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은 다라니 독경이었다"며 "9월 21일 입재를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 3년 6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천수경 108독 기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천수경 기도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산문을 걸어 잠글 것이다. 이를 통해 천년고찰 봉은사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공간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화 스님은 "기도가 진행되는 42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불자라면 누구나 봉은사를 한번 이상은 찾도록 하겠다. 강남 포교거점사찰로서 도량을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화 스님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과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광주 증심사 주지,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송광사 기획국장, 봉은사 부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2012년까지 전국에 9개소 설치 · 운영

구자선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장 1년 연임 포부 밝혀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단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처럼 아름다운 회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이하 경불련)는 8월 2일 서울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선 회장(76 · 사진)의 회장 1년 연임을 밝혔다.

구 회장은 "6개월 회장 소임을 맡을 계획이었으나 1년 연임하게 됐다.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뜻있는 불자 경제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싶다"며 경영인다운 포부를 내비쳤다.

최근 경불련은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조계사 총신도회장)을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차기 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받았다.

현재 구자선 회장은 (주)자연과 사람 회장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로 "현직 CEO들의 모임 회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왔다.

1년 간 경불련은 전국 조직 활성화 및 지역회 창립에 힘써왔다. 이에 올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주지역회를 비롯해 대구 · 경북, 서울, 부산, 경남, 대전 · 충청, 전북, 강원, 광주 · 전남 등 전국 지역회 9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경불련은 5월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정식 신도단체로 인가 받아 창립 목적 사업을 통해 불교계 신행단체의 중추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 사업으로는 ▷자비나눔 봉사단 발족을 통해 자비정신 구현 ▷경제인 불자 양성 및 불교경제 원리의 연구 보급 사업 ▷템플스테이를 통한 회원간 친목 도모 ▷회원사 지원 및 생활 공동체를 위한 사업 추진 ▷신도목적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활동 등을 목표하고 있다.



구자선 회장은 "300여 경제인이 모여 시작해서 점차 지금은 500여 회원이 모였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모임은 어떤 종교인들의 모임보다 활성활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회 창립을 통해 튼튼한 조직을 이끌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언 기자

"사찰음식 육성, 달성이 나섭니다"

대구시 달성군청 김문오 군수



"달성에는 여러 고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사찰 음식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청(군수 김문오 · 사진)이 전국 최초로 사찰음식 전문점 육성 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지역 특색과 사찰음식을 접목시키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찰음식 강좌가 마련됐지만 영업주 대상의 전문점 육성 강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성군에는 남지장사, 유가사, 운흥사 등 천년 고찰이 자리해 있다. 가창면에 위치한 남지장사는 한 때 8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3000명의 승려가 수행할 정도로 사세가 컸다. 가창면에는 또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된 운흥사가 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지휘해 왜적을 격퇴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유가면에도 천년고찰 유가사가 자리하고 있다. 유가사는 한 때 3000명의 승려가 거주하고 1000 마지기의 전답을 보유할 정도로 큰 사찰이었다.

이런 지역 특색과 더불어 사찰음식 교육도 지역 내 사찰인 수도암 주지 승원 스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다. 연밥으로 유명한 승원 스님은 올해 4월 경내에 무료 찻집 '녹지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번 강좌는 7월 12일~9월 27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사찰음식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직 달성군에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없으나 달성군청은 이번 강좌를 통해 영업주들이 업종변경이나 메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달성군만의 특화된 사찰음식 전문식당 육성과 사찰음식 메뉴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행원문화상 권오민 교수 · 서수일 단장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서수일 아비라테 앙상블 단장이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8일 역경상에 권오민 교수를, 특별상에 서수일 단장을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원문화재단은 권오민 교수가 〈아미달마순정리론〉을 완역하는 등 초기 경전 연구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으며 서수일 단장의 경우 불자합창단 아비라테 앙상블을 창단하는 등 포교활동과 불교음악 발전에 힘쓴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9월 22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리며 역경상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졸업생 노지은씨 중국 정부 장학생 선발

금강대 졸업생 노지은(중국 푸단대 박사과정)씨는 중국 정부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8월2일 금강대는 밝혔다. 올해 푸단(復旦)대 박사과정 입학생 34명 중 중국 정부 우수 장학금 수혜자는 노지은 졸업생을 포함 총 2명이다.

노지은씨는 2010년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이번 박사과정에서도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에 노지은씨는 푸단대학교 박사과정 3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 매월 연구비 및 생활비, 생활 정착금 및 교재 구입비 등으로 연간 7만 5000위안(한화 약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천진영 기자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현대불교 2011년 7월 27일자 제846호 19면과 2011년 8월 3일자 제847호 32면에 게재한 (사)일붕법왕문도회 정식 사단법인설립 허가완료 광고란에
"재단법인 일붕선교종과 함께 호국불교효예종,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일류평화불교연맹등 기타종단과 함께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는 광고 문안이 있는데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에서는 (사)일붕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명칭을 사전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며 민 •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사)일붕법왕문도회 이사장 이담화을 비롯하여 이사진들은 정식으로 사과문을
현대불교 및 불교신문에 공고할 것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은 강력히 촉구 합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4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전 종도 일동

우면산 물폭탄, 관문사의 희생이 사하촌 지켜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토사 뒤덮어
스님과 신도, 복구에 구슬땀… 불자 동참 절실

우면산 산사태를 온 몸으로 막아낸 천태종 관문사를 복구하는 일은 하나된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진흙 속에 불상과 법구를 닦아내고, 수행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불자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3시간여 동안 내린 기습폭우, 400mm가 넘게 내린 비로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천태종 관문사(주지 영제)는 산사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관문사는 오전 8시 경 지하 4층 주차장부터 침수가 시작돼 1층 종무소까지 물이 차오르고, 토사가 허리 높이까지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정전과 단전 사태가 벌어졌고, 통신망도 불통됐다. 관문사의 버스도 50여 미터나 쓸려 내려가며 크게 파손됐다.

이날 현장을 목도한 김희숙 보살은 "27

> 지하 주차장, 공양간 잠긴 데 이어
> 1층 종무실은 허리까지 토사가
> 정전·단수… 버스도 크게 파손돼
> 총무원장 스님도 직접 복구 참여

일 오전부터 갑자기 내린 비로 4층 옥상에서 계단을 따라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졌다. 상주하는 보살들과 법당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퍼내고 공양을 하고 올라가려는데 산에서 큰 소리와 함께 나무와 흙이 검게 뭉쳐져 마구 쏟아져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숙 보살은 "토사물이 지하 1층 강철문을 부수고 몰려드는데 그 순간 '부처님 살려주세요. 우리 관문사 떠내려가나요'란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김보살은 수일이 지난 날에도 그 당시의 충격이 컸던지 계속 울먹였다.

부처님의 가피일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아침공양 시간으로 지하1층에 위치한 공양간에 토사물이 밀려든다면 큰 피해가 예상됐다. 하지만 오전부터 물을 퍼내느라 지친 보살들을 위해 공양시간이 앞당겨졌고 당시 공양간에는 공양을 막 끝낸 공양주보살들과 일부 부전 스님들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한 보살은 "공양을 하지 채 하지 못한 스님들과 함께 손으로 흙을 마구 퍼냈다. 당일 하주종일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27일 오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드러난 관문사의 상황은 처참했다. 지하4층에서 1층은 물론이고 1층 전체에 무릎까지 오는 토사가 뒤덮였다. 지하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보일러 시설, 전기 시설은 모두 침수됐다.

하지만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 200여 명은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저녁이 되자 직장에 나갔던 청년회 회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호상 관문사 청년회장은 "당시 100만 관음기도 정진 기간 중이라 퇴근 후 저녁에 관음정진을 하던 청년회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복구에 바로 참여했다. 일부 간부들은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조퇴 후 수해복구를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날이 밝자 부산 등 전국에서 청년회원 50여 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했으며 삼룡사, 용광사, 화성사, 황덕사 등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도 생수, 작업용 장갑, 라면, 가스버너, 삽 등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특히 BTN방송 출연 차 인근에 와있었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주지 영재 스님도 28일부터 팔을 걷고 일손을 거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관문사에 투입된 송파경찰서 전의경들과 수방사령부 소속 육군57사단 장병들은 100여 명은 지하 2층에서 가득찬 토사를 직접 퍼올리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관문사 재무 성해 스님은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나무 등으로 관문사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관문사의 희생으로 아래 마을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며 "현재 지하에는 가스가 차 수작업으로도 애로점이 많다. 하지만 스님과 신도는 물론 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만큼 복구되리라 본다"며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우면산 인근 마을에서는 토사 매몰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또 2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주택 20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불교계에서는 우면산 인근 대성사와 BTN 본사 사옥이 침수 피해 등을 입었다.

노덕현 기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불자들 팔걷고 나서

서초동 우면산 일대를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28일 조계종 긴급재난 봉사대 선발대를 파견한데 이어 29일 오전 피해지역으로 100여 명의 본진을 파견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 가운데 40여 명은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요산 자재암으로, 조계종 봉사자 60여명은 서초동 우면산 일대와 침수 인근 침수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자재암은 축대가 무너지며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끊겨 고립돼 중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추가적인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구호봉사대는 수작업으로 복구에 적극 나섰다. 특히 봉사단 가운데에는 휴가중 봉사단의 파견 소식을 전달받고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봉사단에 합류한 이도 다수였다.

또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를 비롯한 서울 지역 사찰에서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긴급 생활용품 지원에 나섰다. 7월 29일 봉은사는 강남구



자재암 복구 모습

청에 생수 1만병과 쌀, 라면 등 생활구호품을 지원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조속한 복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아픔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주민은 "흙더미와 나무 등 처참한 환경으로 복구작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암담하고, 또 온갖것들이 뒤섞여 밀려들어온 토사에서 악취까지 나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달려와 도와주신 덕에 벌써 동네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또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8월 2일 우면산 일대 산사태 복구에 나선 수방사령부 소속 장병을 찾아 위문하고 300명 분의 음료수와 빵을 전달했다.



27일 밀려온 토사로 관문사는 집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천태종 신도들이 지하에서 손으로 토사를 퍼 올리고 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의궤반환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문화재찾기 혜문 스님,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 출판

문화재 환수 운동을 펼쳐 온 혜문 스님이 〈조선왕실의궤〉의 반환결정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스님과 문화재 제자리찾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의 출판기념 및 문화재 환수 관련 기자 간담회를 8월 4일 중앙신도회 교육관에서 열었다.

이번에 출판된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은 의궤 환수 운동에 대한 대국민 최종보고서다. 한일협정 체결 후 양국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혜문 스님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이런 장벽을 깨고 의궤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에서 혜문 스님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장감 넘치는 문체는 독자들에게 딱딱한 보고서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전한다.

이 책은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를 찾기 위한 만행의 길’이라는 프롤로그로 시작된다. 그만큼 혜문 스님은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상 가장 슬픈 장례식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는 1898년 명성황후의 장례식 과정을 담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 후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치를 겨를이 없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시한 뒤 국장 절차에 착수하나 2년 동안 장례는 치러지지 못 했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조선왕조 500년의 마지막 왕비의 국장이며 대한제국 선포 후 최초의 국장이었다.

혜문 스님은 저서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 장례식 기록마저 약탈해 간 일본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우리는 왜 명실상부하게 우리 것이 확실한 유물마저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했던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 책은 또 ‘조선왕실의궤환수위의 탄생’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환수와 환수운동의 준비과정, 환수를 둘러싼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위는 1년 여의 걸친 자료조사를 토대로 구성됐다. 스님은 당시 조직위의 구성을 봉선사의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국회 통과 운동’에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사건이 종결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했고, 이런 의지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2006년 7월 도쿄대학이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본을 돌려주면서 마무리 됐다.

‘조선왕실 의궤환수운동’은 1막과 2막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제1막은 조선왕실의궤의 일본 궁내청 소장 사실이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고 혜문 스님이 궁내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스님은 이후 유네스코 본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일본 외무성 등을 방문하며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반환 과정 현장감 있게 서술
고려 석탑의 반환 위해 방일

제2막에서는 일본 총리에게 남북공동요청서를 제출하고 제2차 평양방문, 18대 국회 처리안 등의 과정이 담겨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결국 지난 해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식민지배 사과와 의궤 등 도서 반환’ 담화를 발표하고 올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 반환을 앞두고 있다.

혜문 스님은 “이 책에는 의궤 환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 날 간담회에서 일본 오쿠라 호텔에 보관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과 이천 5층 석탑의 반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선왕실의궤 환국을 기념하는 ‘일파만파 포토존’ 행사가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8월 3일 마련됐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천연 염색, 연꽃차 시음, 부채 만들기 등 각 종 행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8월 10일 일본 오쿠라 호텔을 방문해 호텔 박물관이 소장 중인 평양 석탑과 이천 석탑의 반환 요청서를 전달한다.

이들 단체는 올해 3월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일본 오쿠라 호텔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운동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오쿠라 호텔측에 2기의 석탑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도쿄 지방 재판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던 오쿠라 호텔측이 최근 만남을 요청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혜문 스님은 이 날 만남에서 조선 불교도연맹의 위임에 의해 평양 율리사지 석탑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과 이천 석탑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해결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님은 “남북 불교계의 공동요청은 이 문제가 단순히 문화재 반환문제를 넘어 남북문제와 조일수교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오쿠라 호텔측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비의 전화 20년 봉사자 이석진씨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마음을 닫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보살(49 · 사진)은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전화’에서 전화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보살은 20년 전과 비교해 삶이 윤택하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 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석진 보살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살 스스로도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20년동안 9천 시간 활동
주말이마다 복지시설 봉사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

이석진 보살은 자비의 전화 3기 상담원으로 20여 년간 꾸준히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다.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3기로 출발했으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7명 정도. 남은 3기 중 이석진 보살의 활동시간은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하다. 이 보살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2369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9000시간이 넘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제18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했다.

“전화하자마자 우는 사람도 많고,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대화상대가 되어주고, 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원활한 전화 상담을 위해 한 사람과 긴 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석진 보살은 한 사람의 상처라도 제대로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장시간 통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다.

이석진 보살은 주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 시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애쓴다. 애써 참은 눈물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린다.

항상 내담자와 우리 이웃들의 상처를 걱정하는 이석진 보살은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만이라도 상대방이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내 마음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보살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타인과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밝게 보인다는 것이 이석진 보살의 생각이다.

이석진 보살은 내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을 세우라고 말한다. 조금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평온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기범 기자

온 가족이 병마에 시달리는 슬기네

부녀(父女)는 입원 치료 중


입원 치료중인 첫째 딸 윤슬기 양.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환우로 윤영수(남 · 56세), 윤슬기(여 · 26세) 부녀를 선정했다. 10년 전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아버지, 선천적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큰딸, 지적 장애를 가진 둘째딸, 우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막내아들, 혼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월 30여만 원을 벌고 있는 어머니.

다섯 식구에게 불행은 멈추지 않았다. 6월 아버지 윤영수 씨가 척추 농양으로 수술하고 입원 중이며 큰딸도 같은 병원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한사람의 치료비도 감당하지 못할 형편에 부녀가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감당하기 버거운 이 가정에 불자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천진영 기자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사경불사 추진

군종교구가 20%의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는 호국연무사의 원만 불사를 위해 사경불사를 추진한다.

군종교구는 현재 총 불사비 120억 원 중 약 70억 원(약정금 포함)을 모연했다. 하지만 2012년 부처님오신날 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연무사 불사에는 6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종교구는 연무사 법당 내 부처님에게 사경집을 봉안, 동참 대중의 공덕을 영구히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법당 안에는 삼존불과 원불 1560기를 봉안할 계획이다.

교구장 자광 스님은 8월 3일 “한국불교의 미래인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경 사경수행으로 공덕을 쌓고, 국군장병의 안녕을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조국연무사 신축불사현장.

한편, 2010년 11월 착공한 호국연무사는 4만6000m²의 대지에 연면적 4680m²(1415평) 규모로 최대 5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02)797-7266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앉아 화두 든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간화선 국제세미나

8월 15~23일 제2회 간화선 국제세미나
간화선 원리·구조 15개 주제 논문 발표
국내외 석학 비롯 500여 명 참석해
본 대회 앞두고 백담사서 간화선 실참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한국에 모여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8월 15~23일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본 대회에 앞서 참여하는 해외석학들이 간화선을 실참하며 대회 이후 사찰순례 및 선지식과의 대담 등을 통해 간화선 문답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15~19일 인제 백담사에서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을 지도법사로 간화선 실참이 진행된다.

간화선 실참에서 참가자들은 조사어록에 설해진 방법대로 화두 참구를 진행한다. 특히 중간의 방선과 행선 시간없이 진행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그 자리에서 선지식을 통해 직접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일에는 동국대 중강당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는 '간화선의 실체와 세계화'를 주제로 한 수불 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된다. 이어 로버트버스웰 UCLA 불교학 센터장, 피터 그레고리 미국 스미스대학 교수, 마천상 중국 무한대학 교수, 나까지마 시로 일본 하나조노 대학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을 비롯해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 등 간화선 관련 국내외 석학 29 명이 15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의 수행 원리와 구조에 대해 조명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22일과 23일에는 석학들이 석종사와 봉암사, 동화사, 직지사에서 선찰답사를 진행하며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봉암사 주지 적명 스님과 간화선에 대한 대담을 벌인다.

종학연구소는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올 12월 경 간화선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한 한글연구서를 발간하고 내년 12월 경에는 영문연구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에 모여 직접 간화선을 실참하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토론하게 된다"며 "간화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강 연	발표자	이 력
기조강연 : 간화선의 실체와 세계화	수불 스님	안국선원장 및 이사장, 불교신문사 사장,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1978년 범어사 승가대(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에서 1989년까지 전국 제방 선원에서 참선 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해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제1주제 : 당대선에서 송대선으로의 유동적 연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선사상 – 대혜종고 이전을 중심으로	혜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다. 조계종 11, 12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2주제 : 둘 또는 하나의 구원론 – 간화선과 종밀의 돈점 수행체계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 대 교수로 하버드 대에서 동아시아어 문명학 박사를 취득했다. 구로다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 불교학〉과 〈동아시아 불교고전〉 시리즈를 주도해 출판했다. 연구 주제는 중세중국불교며 특히 당송시대 선과 남종이다.
제3주제 : 대혜종고와 죽음의 화두 : 그의 진설과 서를 중심으로	미리암 레버링	테네시 대 종교학, 아시아학과 명예교수로 하버드 대에서 동아시아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관심분야는 선불교, 중국불교, 일본종콜 여성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선: 이미지, 텍스트, 가르침〉 외 다수가 있다.
제4주제 : 간화선에 있어서 疑情의 전환: 高峰原妙의 증언	로버트 버스웰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불교학 특훈교수로 UCLA불교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종교를 폭넓게 접근해 한국불교와 중국불교, 인도불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15권의 책과 4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제5주제 : 중국 간화선에서의 염불 모티프의 사용	모턴 슐터	아이오와대 종교학과 부교수로 아이오와대 자유예술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예일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전공분야는 중국불교다.
제6주제 : 청나라 초기의 선승 옥림통수와 위림도패	마천상	무한대 종교철학과 교수로 노스웨스턴대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중국종교사학회장, 허난성종교문화협회장이다.
제7주제 : 허운선사의 간화선 사상	황하년	중국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교수로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세계종교문화〉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교매거진 책임자다.
제8주제 : 道元이 사용한 如淨의 "지관타좌"와 다른 공안들	그리피스 포크	사라 로랜스대 종교학 교수로 미시간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인문학부장을 역임했으며 젊은 시절 수년간 일본 선원에서 수행했다. 중국선과 일본선불교의 역사에 대해 원전, 의식,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논문들을 저술했다.
제9주제 : 백은의 공안선의 수행체계	나까지마 시로	하나조노대 국제선학과 교수로 중국선사상, 선종사, 조선불교 분야의 전문가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당대 선종사, 선종사상, 일본근대종교사상이다. 저술로는 〈육조단경〉 외 다수가 있다.
제10주제 : 목우자 지눌의 간화선 수용과 태도	최성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로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간화심종선병(看話十種禪病)의 체계분석〉,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의 십신(十信)에 대하여〉 등 다수가 있다.
제11주제 :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최연식	목포대 사학과 교수로 한국사연구회 이사, 한국사상사학회 이사, 한국중세사연구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술 및 역서로는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선의 역사〉가 있다.
제12주제 : 서산휴정과 그 스승들의 저술에서 간화선의 이론적 기반	존 조르겐슨	전 그리피스대 한국학 교수로 한국불교, 한국신종교운동, 동아시아불교와 사상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논저로는 〈중국 불교 재건을 위한 근거로서의 한국: 중국선과 한국선 문헌의 증거〉, 〈한국불교의 사회적 분석과 전망〉 외 다수가 있다.
제13주제 : 조선후기불교의 선 논쟁	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을 역임했다.
제14주제 : 수행과 깨달음의 개별성과 보편성: 한국 근대 불교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저술로는 〈깨달음의 신화〉,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이 있다.
제15주제 : 현대 한국 간화선에서의 원류와 구조에 대하여– 경봉선사를 중심으로	유진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선학전공 교수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돈황본 육조단경 연구〉, 〈돈오입도요문론 연구〉, 〈선학개론〉 등이 있다.

불교사회硏, 9일 '호국불교' 학술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8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사에서 호국불교(護國佛教) 전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교수의 '경전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검토'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전개: 시대별 호국불교 이념과 사례 검토'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국불교의 재검토: 역사적 사례와 이론' 등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는 박희승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호국불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의 사실로부터 현재의 교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6일 '한국불교사상의승군의 역할과 의의'라는 주제로 2차 공개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운암 김성숙 선생 재조명 항일 학술세미나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항일운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운암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이동언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의 '해방 이전 운암의 독립운동',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해방 이후 운암의 활동과 정치관',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운암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 등이 발제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 박승춘 보훈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함세웅 항일운동단체연합회장 등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태허 스님은 일제시대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며 항일운동을 벌였다.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1969년 별세했다.

노덕현 기자

선리硏, 월례발표회 신청

박사과정 이상 A4 7~8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9월 23일까지 불교학을 비롯해 불교사학, 불교음악, 불교미술 등 응용불교학, 기타 불교와 관련된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제15차 월례발표회 발표작을 공모한다. 발표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자로 발표분량은 A4 용지 7~8매다. 선정된 발표작은 소정의 발표비가 지급되며 선리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 가능하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종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옇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젼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주민에게 회향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흔들림없는 전통의 수행도량
다양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 추진
인재불사 위한 '해인사 조주원' 설립
수행 복지관 '해인사 소리원' 개관


법보종찰 해인사는 가풍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함께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이다. 더구나 올해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인사는 화엄종찰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선종의 수행가풍을 대표하며 계승하고 있고, 경허 스님이 해방 이후 최초로 선원을 개원한 곳이다. 해인사는 그동안 성철, 혜암 스님을 비롯해 법전 스님 등 조계종 종정 스님들이 주석하면서 선을 널리 알려왔다.

해인사는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에서 8대 실천강령을 선포하는 등 수행과 실천행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6월 14일 해인사에서 열린 대회에는 스님들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해인사 교구는 결사정신이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며 매년 10월 해인사에서만 수계하는 무생계의 6대 서원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해인사는 해인사교구 8대 강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해인사는 8대 강령 선포를 위해 결의대회를 앞두고 '5대 결사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해인사에서 선포한 8대강령은 ▷수행자로서 정체성과 수행여건을 마련하여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용맹정진하겠다 ▷자비심과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대중 공동의 행복을 찾아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 ▷낙태와 사형, 자살 등 모든 인위적 살생을 반대하고, 종교차별 적극 감시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겠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생명사상 현대화하겠다 ▷복지와 봉사의 삶을 적극 실천하겠다 ▷다양한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조화롭게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인아트프로젝트의 회향이다.

또한 해인사는 인재 육성과 편안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초에는 고시텔을 매입해 '해인사 조주원'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76명이 입주해 있으며 수익금은 조주원에서 공부하는 입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인사는 인재 불사가 한국 불교의 미래는 물론, 미래까지 기약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생각으로 '해인사 조주원'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해인사는 또 가야산 정기를 머금은 고품격 콘도미니엄식 복지시설 '해인사 소리원'을 개관했다. 해인사 소리원 내부에는 스님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개인 독립주거 공간, 의료시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가야산 인근 해발 860m의 고지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해인사는 지역 주민에게 회향하는 사찰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해인사는 2003년 12월 종무원과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희망' 봉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합천, 거창 지역의 복지관 및 경로당, 한센병 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봉사를 통한 부처님 뜻을 전하고 있다.

해인사 단오행사는 고려시대 희랑 조사 때부터 전해져오는 행사로 예전에는 단오날 산중 스님들이 그네를 뛰기도 했다. 이때 그네를 뛰는 것은 매화산(現 남산 제일봉)의 화기를 밀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네를 뛴 뒤에는 매화산에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해인사는 이런 단오 행사의 전통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육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사찰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험학교에서는 주민들에게 인경 체험과 퀼트, 한글 및 한국화 등을 가르친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은 해인만다라 축제는 5월 28일 해인사 경내에서 전국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축제는 전국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글과 그림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글짓기 부분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5대 결사가 시제로 제시됐다.

주지 선각 스님은 "5대 결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해인만다라 축제를 통해 자연과 생명, 소중한 이웃을 자비로 살필 수 있는 어린이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대장경의 가치 세계와 함께 나눈다


천년축전 대국민 결의대회.

7개 전시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운행렬 재현 행사 관심 집중

해인사를 이야기하면서 대장경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초조대장경조성 천년을 맞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된다.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해인사와 합천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장경 천년관 지식문명관 정신문화관 세계교류관 등 총 7개의 전시관을 중심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9월 23일에는 '살아있는 지혜의 숲이 열린다'를 테마로 길놀이 타악공연,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개막식 세레모니 등이 주행사장에서 펼쳐진다. 축전 기간 중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화엄경〉 속 선재동자의 구도 과정을 그린 뮤지컬도 펼쳐진다.

보리수 공연장에서 펼쳐질 문화행사에서는 전 세계 지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해외 문화공연 '대장경 문화 실크로드' 가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질 체험마당에서는 대장경 문구와 문양들의 목판 서각 및 인경을 체험하는 '마음의 행간을 새기다' 가 예정돼 있다. 장경판전 모형 조립 및 체험이 가능한 '천년의 누각을 세우다', 전통 등 전시 및 연등 만들기 체험 '마음의 등불을 켜다', 바람과 기원의 연 날리기 체험 '기원의 연을 날리다' 등도 천년의 마당에서 계속된다. 이 밖에도 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할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해인아트 프로젝트 등 대장경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여줄 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단풍 절경을 자랑하는 가야산 홍류동 계곡의 '해인사 소리길'은 계곡의 정취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홍류동 계곡길은 옛 선조들이 걸었던 길로 지금은 없어지고 표식만 남은 무릉교를 지나 해인사까지 이어지는 6㎞의 구간이다. 해인사는 총림대중들에게 계곡길 이름을 공모, 백여 개의 이름 중 '해인사 소리길'을 최종 선정했다.

대장경 천년문화축전 조직위는 대장경의 가치와 이번 축전을 알리기 위해 이운행사를 6월 18~20일 서울 일대에서 재현했다. 이운 행렬에 참가한 1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은 모조 대장경판을 머리, 등, 지게 등에 지고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 청계2가를 지나 청계천로, 광통교까지 1.5㎞를 행진했다. 웅장한 모습으로 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의 모습은 참가자들은 물론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대장경 조성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게 했다.

박기범 기자

국제선문화센터로 수행가풍 강화할 터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단박에 깨달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능히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돈오돈수입니다. 해인사의 가풍은 오랫동안 돈오돈수를 지키고 실천해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과 원칙을 살리고 바로세우며 실천해 가는 곳이 해인총림입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해인사가 앞으로도 가풍을 지키며 간화선 수행과 승가교육 중심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각 스님은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매월 둘째주 토·일요일이면 열중스님의 지도하에 주말참선과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해인사는 앞으로 화장원 건물에 일반 불자와 외국인들이 한국 간화선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선문화센터는 상설 시민선원으로 운영돼 승가와 재가가 함께 정진하는 수행가풍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해인아트프로젝트에도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해인사의 세계화를 위한 구상이 반영돼 있다. 이 행사는 세계 최초로 한국의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예술 프로그램이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해인아트프로젝트는 회화 조각 건축 행위예술 등 특정 종교 및 예술 장르를 뛰어넘는 종합축제를 지향한다. 해인사는 이 행사가 21세기 문화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그 어떤 교구보다 바쁠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는 항상 불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인사는 총림의 규모나 살림살이가 방대하고 여러 문중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선각 스님은 이런 해인사의 특성상 대중 모두가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중을 위한 총림이지 소수를 위한 총림은 아닙니다. 승가의 대중 살이는 화합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총림을 아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인사는 크게 변창할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해인사는…

화엄십찰의 하나로 한국 최초의 총림

해인사는 신라시대 화엄종의 정신적 기반 확충을 위해 건립된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선원, 강원, 율원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이다

해인사의 이름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 속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비롯됐다. 해인사는 해동 화엄종의 초조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의 법손인 순응 화상과 그 제자인 이정 화상이 신라 애장왕 3년(802년 10월 16일)에 지금의 대적광전 자리에 창건했다. 이후 화엄종인 신라시대를 거쳐, 해인사를 중심으로 희랑 대사를 위시해 균여, 의천과 같은 빼어난 학승들을 배출해왔다.

창건 이후 해인사 중창에 관한 기록은 최치원의 〈신라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結界場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해인사는 창건 당시 터가 험하고 규모가 작았는데 100여년 후 효공왕 1년(897년) 가을 다시 중창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고려 초기 〈균여전〉에 따르면 해인사의 희랑 대사가 신라말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대가로 전지(田地) 500결을 시사하고 옛 사우(寺宇)를 중신(重新)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고려 태조 때 해인사는 창건 이후 희랑대사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해인사는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태조 때 고려대장경판이 해인사에 봉안 됐고, 장경판이 해인사로 이운(移運)되면서 법보종찰로 유명해진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 국제 제52호 장경판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9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대덕스님들과 석학들께서 펼치는 불자 지성인들의 수행과 진리탐구의 요람인 동산불교대학에서 끝없는 신심과 열정으로 크나큰 감동과 환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대승불교,화엄사상,정토사상,밀교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불교미술,선학의이해,포교방법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엄스님(승가대), 김형준교수(동산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동산대)
2년차 교과목	비교종교론,근본불교,반야사상,유식사상,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법화사상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정병조교수(금강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불교학과 180명 : 목요반(오후 2시), 토요반(오후 6시), 통신반 : 8월 접수중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차의 미학 , 제다실習, 육대행다다류, 티테이블세팅,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홍차, 차명상	박희준교수	9월 6일(매주-화)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가을, 겨울, 봄, 여름)	정산스님	9월 7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8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20명)	천자문역해(2), 한문해석 금강경(1),(2), 한문천수경, 한문반야심경, 천자문역해(1)	이윤숙교수	9월 8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30명)	불교와 세계종교	주명철교수	9월 5일(매주-월) 오후 7시
	팔천송반야경(2)	김형준교수	9월 6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 수증론(4)	최봉수교수	9월 8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부, 대관다론, 다신전, 동다송, 다경	김진숙교수	9월 20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공(이론,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3일(매주-토) 오후 2시
범패의식반(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9월 7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복천사 산사태, 제2의 우면산 될까 두려워

통행로 유실, 명부전 등 파손
관계당국 복구 지원 시급

부산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영도구 봉래산 복천사(주지 혜문)가 7월 27일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부산시청과 영도구청 등 관계당국은 영도구 해안도로 유실을 이유로 사고 6일 만인 8월 2일 오전에서야 복구 작업을 지원해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점은 봉래산 조봉(395m) 정상에서 10m가량 떨어진 등산로 부근이다. 이곳에 쌓여있던 토사는 산중턱 백련사와 목장원 어귀에서 큰 바위와 조봉에서 30m 거리의 복천사 산신각을 덮쳤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산사태에 놀란 주지 혜문 스님과 신도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현재 경내 마당에서 산신각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가 유실됐다. 그리고 명부전은 뒷벽이 바위에 무너지고 마루와 탁자, 영단, 십대왕상은 영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칠성각은 옆면과 뒷벽이 파손됐고, 바위와 토사로 뒤덮여 있다.

산사태로 복천사 경내에 쌓인 바위와 토사는 20톤 트럭 20여대 분량으로, 피해액은 2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 사찰측은 완전 복구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0년 넘게 복천사 산신각에서 매일 기도를 해온 지순자(75 · 영도구) 씨는 산사태로 끊어진 길 아래에 서서 합장 반배로 빠른 복구를 기도했다. 지 씨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우리 집이 무너진 것보다 더 비통하고, 부처님의 집을 잘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복천사 주지 혜문 스님은 사고 발생 6일이 되어서야 관계부처가 복구 인력을 지원한 원인을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찾았다.

스님은 "먼저 영도구를 발 빠르게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면 영도 해안도로 복구 후 빠르게 지원 인력이 복천사에 투입됐을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 등에 군경찰 병력이 운용돼 복구가 그만큼 늦어졌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7월 27일 부산 영도구 봉래산 산사태로 바위와 토사로 뒤덮인 복천사

영도구청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해보니 영도 해안도로 못지않게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게 복구해 영도구민들이 이전처럼 편안하게 찾아오는 기도도량으로 지역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기상청은 7월 28일 미국 괌 서쪽 10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7~8일 양일간 부산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제2의 우면산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관계당국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기자

영선사 등용청소년 공부방 '인기'


등용 청소년 무료 공부방 참가자.

외지인 참가 신청 줄이어
성적 향상으로 호응 높아

전북 남원시 인월면 영선사(주지 월공)가 운영하고 있는 '등용(登龍) 여름방학 학업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에 전국에서 모여든 30여명의 중·고·대학생들이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삼매경에 빠져 있다.

과거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모습에서 착안해 마련한 '등용청소년 무료 공부방'은 월공 스님이 2009년부터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 자녀들 위주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용맹정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등용청소년 공부방'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외지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자 학생들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방사가 부족해 인원을 제한해야 할 지경이다.

월공 스님은 "당초 약 한 달 정도의 사찰 생활을 통해 불교계 인재나 불교에 호감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다" 며 "수련대회 성격을 가미한 퓨전형 신행방법으로 운영했으나 취지에 공감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외지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선사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은 아침 6시면 기상해 세면과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삼귀의, 반야심경과 간단한 법문을 들은 후 밤 10시 30분까지 공부를 한다. 무료공부방은 영선사에서 10분 거리인 인월면에 있어 식사와 잠자리는 모두 영선사에서 해결하고 있다.

월공 스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모이기 힘든데 공부라는 매개체로 모인 후 한 달간 절에서 생활하면서 스님의 생활 지도로 자연스럽게 불교적 정서에 녹아들고 있다" 며 "공부방을 거쳐간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절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님과 학생들의 소통도 원활해져 서로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매우 예민하고, 핵가족 제도에서 성장해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과 지역 학생들과 외지 학생들간의 다소의 갈등은 차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공부방 프로그램에 세 번째 참여한다는 신윤수(남원중 3)군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형 누나들과 함께 공부하는 단체생활과 많은 책이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말 제대로 쉬어보자"… 금산사서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 '나를 내비둬 콘서트'

'나는 쉬고 싶다'를 주제로 열리는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의 여름템플스테이 '나를 내비둬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 8월21일 총 4회에 걸쳐 각 회당 100명씩을 초청해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ESC 숲길 포행 참선명상 선호하는 책 그늘서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를 내비둬 콘서트 中 섬진강 시인 김용택과 일감 스님의 토크쇼 장면

금산사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는 섬마을 여행가 강제윤씨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진행됐으며 8월 1~3일까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게스트로 초대돼 일감 스님과 토크쇼를 가졌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방하착, 입차문래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오늘의 콘서트 주제인 내비둬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잘 쉬는 사람만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를 계기로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데 충전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냥 두자는 뜻이다. 육체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쉬고 싶어한다. 절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내비둬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두 번째 게스트로 초대된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은 교육자 출신답게 "경제가치가 삶의 가치를 먹어치우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가정, 학교, 사회가 행복의 맛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비둬 콘서트에는 이창선 퓨전국악밴드, 인디밴드 유&김, 아쟁 김영길, 이태연씨 등 지역에 활동하는 음악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앞으로 선재 스님, 달팽이 사진골방 임종진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체조 향한 어르신들의 일편단심

고창군노인복지회관 생활체조동아리 수상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가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7회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8월 3일 수상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21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역동적인 공연으로 관객 및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복지회관측 관계자는 "노인들의 역할과 정체성이 작아지는 요즘,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가 지역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노인의 상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전문 공연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0년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 24명이 모여 2010년 결성된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는 강미숙 강사(고창군통합체육회 생활체육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각종 대회 및 공연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9988생활체조동아리 회원들이 장려상을 수상해 기뻐하고 있다.

석정사 교도소서 영산재 봉행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봉행된 영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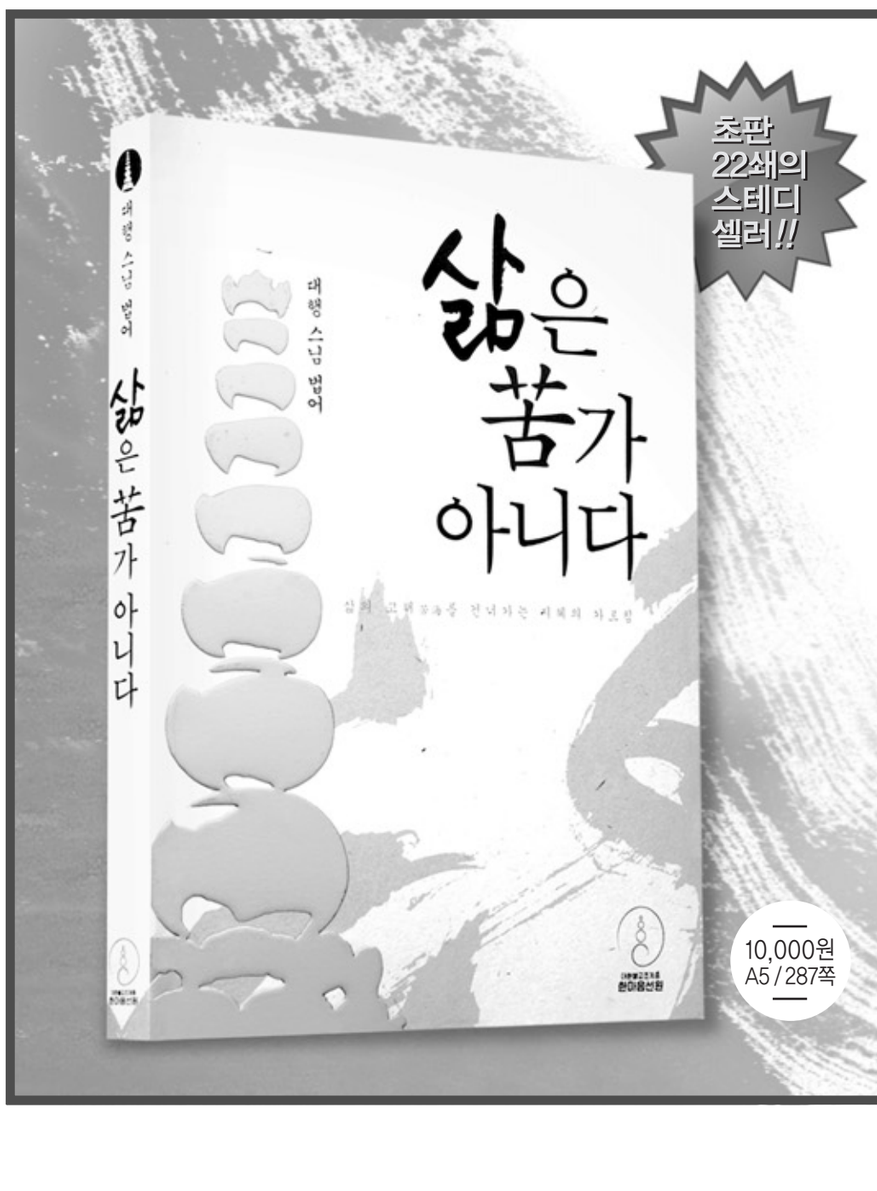
칠곡 석정사(감주 노사나)는 7월 27일 경북북부 제3교도소(소장 배종섭) 강당에서 영산재를 봉행했다.

이날 영산재는 부산 태고종 서부종무원 원장 지만 스님, 범음범패 강주 지효 스님과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교육원장 지안 스님 등 스님 16명을 비롯해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태고종 범음범패단의 의식과 함께 한국고전무용 살풀이춤, 지천춤, 창작무 '아유타의 슬픔' 등이 이어졌다.

석정사 노사나 감주는 경북북부 교도소 불교교육 분과 교정위원으로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위문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수행경험 나누며 근본불교 열매 맺는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 호두마을에서 열린 '수행자 담마토크'

우리나라에는 남방불교를 지도해줄 지도자의 부족으로 재가자들이 수행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위빠사나 명상센터인 천안 호두마을에서는 7월 29~31일 '수행자 담마토크(Dhamma Talk) 이벤트'가 진행됐다. 수행의 경험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여러 수행자들이 의문과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담마토크를 통해 수행자들이 느끼는 수행 전통간의 혼란을 바로 잡고 수행의 시행착오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담마(Dhamma)는 불법(佛法), 즉 진리를 뜻한다. 남방 불교에서는 수행의 정도를 스승과 대화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을 담마토크라고 한다. 이번 담마토크에는 27명의 위빠사나 수행자들이 참여해 수행 경험을 나눴다. 진행은 호두마을에서 수행중인 우보 거사가 맡았다. 정리=천진영 기자


참가자들이 담마토크 후 직접 맨발로 땅을 느끼며 행선 수행을 체험하고 있다.


담마토크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행담을 경청하고 있다.


천안 광덕산 자락에 위치한 호두마을

1. 바른 견해

초보자와 경험자가 어우러져 스스로 던진 의문을 다른 사람의 답변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구도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진행자: 첫 번째 주제는 '바른 견해(正見)' 입니다. 위빠사나 명상에 있어 첫 번째 단계가 바른 견해입니다.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제대로 정립 되지 않으면 목표를 모르는 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른 견해는 지혜의 도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 주위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자신이 존경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여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태도의 가운데 지점이 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b: 내 마음이 슬프면 꽃이 가련해 보이고, 내 마음이 기쁘면 꽃이 활짝 피어 예뻐 보입니다. 또, 물은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잡아 두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c: 수행자들은 바른 견해가 첫 시작이기도 하고 이해를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점이자 종결점이기도 합니다. 바른 견해란, 무상과 무아를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오늘 토론에 정답은 없지만 다들 '바른 견해'에 대한 견해는 바로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자면 바른 견해는 수행을 시작하는 첫 마음가짐이자 수행을 통해 얻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입문하신 분들은 바른 견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수행을 통해 바른 견해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진행자: 다음 주제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 사물 사건을 보면 자신의 생각 안에 잠겨서 실체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b: 저는 오늘 일 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마음 챙김이 제법 잘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화가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계속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화가 화를 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화를 증폭 시키는 생각이 잦아들었습니다.

진행자: 내가 아닌 화가 화를 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b: 화가 계속 증폭되는 것이 괴로워서 일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멈추었고 화도 가라앉아 마음이 평안해 졌습니다.

진행자: 종합해 말하면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간·편견·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3. 내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뿐

진행자: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서 온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화가 나는 대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어떤 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반면 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대상이 궁극적인 화의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명상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행 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외부요인들이 나를 날카로운 사람들로 만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b: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부요인이 화가 나게 하는 원인은 제공 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화를 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챙김을 멈추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럼 마음 챙김(正念)은 무엇입니까?

c: 지금 여기에 현재의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은 미래로 과거로 서울로 부산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챙겨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모든 인연이 소중한 이유

진행자: 개인들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이게 웬 악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연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a: 인연을 통해 괴로움을 얻으면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때 괴로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연으로 인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게 되니 이것이 나쁜 인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b: 장사를 하다보면 손님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고 싶은 심정일 때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저는 또 '부처님 감사합니다'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제가 수행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하고 되뇝니다. 나쁜 인연도 나를 수행 할 수 있게 하니 악연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모든 인연이 왜 소중한가'에 대한 토론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업에 의한 인과적 작용입니다. 쌓인 업이 모두 풀어져야만 괴로움이 끝나게 됩니다. 내가 쌓인 업을 해소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모든 인연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인연이기에 모든 만남이,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5. 위빠사나 수행법

진행자: 위빠사나는 빨리어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빠사나 수행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몸·느낌·마음·법 4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사념처(四念處)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a: 오늘은 몸의 느낌, 몸 전체의 느낌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들숨은 느껴지는데 날숨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행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집중은 원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긴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집중입니까?

b: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사냥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하나요? 사슴! 사슴! 사슴! 이렇게 소리 내면서 요란하게 숲속을 헤집고 다니나요? 아닙니다. 사슴이 잘 나타나는 길목에 숨죽이고 잘 관찰해야 합니다.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은 누워서, 앉아서, 서서, 걸으면서, 일하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수행은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장 빨리 얻고 또, 쉽게 얻는 반면 가장 빨리 깨달음을 잃어버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번 얻어진 깨달음은 잊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권할 만한 수행법은 걸으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행선 수행을 할 때, 맨발로 걸어보고 발바닥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몸 전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좋다·싫다가 아닌 알아차림에 집중하면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저자 성범 스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신장의 아득한 시선 끝에는 미륵불이 있을까



⓭ 김제 금산사(金山寺)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3층 목조건물인 금산사 미륵전

숨이 끊어질듯 매미들이 운다. 어디서 왔는지 그 빽빽한 울음소리는 저마다 갈 곳이 있었다. 미륵전 지붕 위, 사리탑, 계단(戒壇), 마당의 보리수…. 매미소리 가득한 모악산 기슭. 천년을 넘긴 미래가 한 순간처럼 서있다. 금산사다.

금산사는 599년(백제 법왕 1)에 세워졌다고 전해오지만 확실하진 않다. 후에 진표 스님(眞表 ; 생몰 미상)이 중건을 했다. 금산사에 계시던 스님은 절벽에 세운 변산의 부사의암(不思議庵)에서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정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스님이 절벽에서 몸을 던지니 2명의 청의동자가 손으로 받들어 다시 절벽 위로 모시며 "아직 법력이 모자랍니다"고 하자 스님은 다시 정진하여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본다. 그리고 금산사로 돌아온 스님이 6년에 걸쳐 중창한 가람이 오늘에 이른다. 이때부터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성지가 된다.

진표 스님의 원력이 세운 미륵도량 금산사. 그곳으로 간절한 '내일'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엔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甄萱 ; 867~936)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삼국통일을 꿈꿨지만 맏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는 수모를 겪는다.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고려 왕건에 투항하여 신검의 토벌을 요청하게 되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쓰러뜨린다. 저 마다 자신의 '미륵'을 품고 미륵의 땅에 모여든 사람들. 하지만 모두 미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가 내린다. 빗소리에 매미소리가 수그러들고 수많은 매미가 울어도 채워지지 않던 저녁 하늘을 먼 풍경(風磬)소리 하나가 가득 채운다. 사리탑을 지키는 신장의 눈썹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저 아득한 시선의 신장은 어디서부터 보았을까. 빗물에 젖은 신장의 시선 끝에는 미륵이 있을까. 비가 내린다. 어디서 왔는지 빗방울들도 저마다 갈 곳이 있었다. 신장의 아득한 시선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진표 스님의 환희의 눈물처럼. 견훤의 안타까운 눈물처럼. 비에 젖은 모악산 기슭에서 매미들이 뜨겁게 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주)에스코
마하-연투어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 지 순 례

* 출 발 확 정
■ 8월 30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9월 16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 가이드. 기사 팁 $50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불교성지 단체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가능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 1,590,000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공동경비 $50



8월, 9월 출발 가능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4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59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코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 ~ 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 ~ 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지리산 품에 안겨 '참 나'를 만나다

부산의 청년불자, '방하착' 화두로 '2030 지리산명상기행' 성료

7월 30일 오전 7시 부산시청 앞. 관광버스 안은 이른 아침부터 만원이다. 비좁은 틈을 다니며 삶은 계란과 갓 지은 떡, 바나나가 담긴 새참봉지를 하재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이 수줍은 듯 건넸다. 그에게 6월 전국불교청년대회장에서 200만 부산 재가불자를 대표해 힘차게 대회기를 흔들던 카리스마는 온대간대 없었다. 대신 구법여행을 함께하는 이들 모두를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로 대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도반의 수행을 격려하기 위한 마음만 전해졌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훈)는 7월 30~31일 지리산 칠성봉 금봉사(주지 단제) 일대에서 '2030 지리산 명상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명상기행의 주제는 방하착(放下着) · '방(放)'은 놓는다. '하(下)'는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자 아래에 있는 뿌리와도 같은 본래 면목, 즉 '참 나'를 말한다. '착(着)'은 집착(執着)이나 걸림을 뜻한다. 방하착이란 본래의 공(空)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집착(執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번뇌와 갈등, 집착과 원망, 스트레스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버리라는 말이다.

산란했던 마음 속 번뇌와 망상도 함께 내려놓아야만, 밝고 맑게 열린 육감육식으로 지리산이 들려주는 감로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 회장은 물론 한 기업의 사장, 정신과 전문의, 유치원 교사, 취업준비생 등 세속의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지리산에 도착했다.

오전 11시 1박 2일간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해줄 도량은 바로 지리산 칠송봉 아래 악양골에 자리한 금봉사에 도착했다. 악양골은 왼쪽으로 형제봉과 신선봉을 잇는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이 자리하고, 오른쪽으로는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비옥한 분지에 형성된 마을이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도보로 30분 여 산길을 올라 도착한 곳 산사 금봉사는 고즈넉했다. 금봉사에 도착한 청년 선객들은 단출한 여장을 풀고, 땀이 채 식기도 전 대웅전에서 입재식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단제 스님은 "빽빽한 산행 일정보다는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내 안의 고민과 갈등을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먼저 산행을 마치고 난 뒤 몸과 마음 속 쌓인 속세의 때를 시원한 계곡물에 씻어버리고, 청정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템플스테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도(佛都) 부산의 청년불자들이 진정한 '방하착'을 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떠난 구법여행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됐다. 사찰에서 마련한 점심공양을 먹은 후 구재봉 등반이 바로 이어졌다.

첫 프로그램인 산행 코스는 금봉사를 출발해 지리산 구재봉 정상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지낸 뒤 돌아오는 것으로 자그마치 6시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물론 40여 청년 불자에게도 구재봉을 향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속세의 현대 물질문명에 익숙해 걷기에 소홀하거나 산행의 경험이 적은 우바이들에게는 해병대 체험 이상의 고행이었다. 하지만 산행은 대자연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했다. 숲길을 걸으며 피부에 스치는 바람과 햇살 한줌,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 등 지리산이 들려주는 법음에 집중해 걷기 명상에 임했다.

이 코스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6 · 25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격전지로 수많은 남과 북의 청년들이 희생된 민족상잔의 비극이 서린 곳이 바로 구재봉을 향하는 산길이기 때문이다. 격렬한 전투를 피해 산골로 숨어든 빨치산의 주요 통행로였던 만큼 산길은 험준하고 가팔랐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는 범부들에게 지리산은 구재봉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봉사를 떠나온지 6시간 만에 구재봉에 이르렀다. 미리 준비한 과일과 떡 등 공양물을 차려, 반야심경을 외우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제를 올렸다.

매년 명상기행의 집행부로 참여해온 양혜련 대불청 부산지구 인재개발팀장은 "산행이 힘들어 인위적이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묵언수행을 함께 겸하게 되었다"며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내 안의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처럼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시간처럼 나를 조절하고, 다독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것이 바로 참사람 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봉사를 더난지 6시간만에 구재봉 정상에 오른 명상 기행단이 환하게 웃고 있다.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팽혜영 씨는 "산에 오르기 전에는 무언가를 얻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산을 내려온 후 나를 괴롭히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마음자리에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산행을 마친 후 밤 10시 무렵 경내 대중전 앞마당에서 '별빛명상'이 열렸다. 큰 원을 그리고 둘러앉아 지리산 400m고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 명상'에 잠겼다. 그 후에도 청년 선객들은 별이 쏟아지는 지리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앉아 밤이 깊도록 법담을 나눴다.

31일 새벽 3시 금봉사 도량과 지리산을 깨우는 도량석과 함께 명상기행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전날 구재봉 산행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새벽예불 후 관세음보살정근 및 108배, 행선과 참선 수행 등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들어갔다.

청년 선객들은 50분 좌선 후 10분의 행선을 원칙으로 하되, 때때로 좌선을 하다 졸음이 오면 일어나 자연스럽게 걷거나 움직이며 진지하게 행선에 임했다. 이들은 도량을 천천히 걸으면서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었다. 이때에도 참선의 근본과제인 방하착이라는 화두를 들고 철저히 점검했다.

단제 스님은 "좌선은 정(靜)의 상태에서 행하는 공부인데 대하여, 경행은 동(動)의 상태에서 행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행선(行禪)이라고도 한다"며 "경행의 방법은 두 손을 모아 쥐고 복부에 두며,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화두를 한 번씩 염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50분 동안 좌선한 뒤에도 잡념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좌선으로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수행자에게 발우공양 역시 치열한 수행의 연장선상이다.

아침공양에 앞서 〈소심경〉을 배웠다. 발우를 내리는 '하발게(下鉢偈)' 부터 발우를 펼치는 '전발게(展鉢偈)', 천수물과 밥, 국, 반찬을 돌리는 '십념(十念)', 음식을 받들면서 게송하는 '봉반게(奉飯偈)와 오관게(五觀偈)', 천수물통을 돌리고 발우를 발우보로 싸 정돈하는 '절수게(節水偈)', 발우공양을 마무리하는 '해탈주(解脫呪)' 등 한끼의 공양을 받기 까지 외워야 할 게송은 많았다. 참가자 중 대다수는 발우공양을 처음 해봤다. 안민환 연수국장(대불청 부산지구)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 음식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해 깨달음을 얻어 이웃을 위해 회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심경〉의 핵심인 '오관게'에서 말하듯 한 톨의 밥알 속에 우주 만류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양혜련 대불청 부산지구 인재개발팀장의 진행으로 '자기장점 발견하기' 수업이 마련됐다. 스스로 자신의 장점 64가지를 찾고 다른 이들의 장점을 함께 찾아주는 자기개발 심리프로그램으로 10명씩 총 4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하얀 종이 위에 9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 9개를 그린 후 가운데 사각형에 외모와 성격, 언행과 좋은 습관 등 주제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장점을 주변 칸에 적어나갔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과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렀다.

이틀간 이어진 '2030 지리산 명상기행'은 지리산 구재봉 걷기명상을 시작으로 별빛 명상, 108배와 행선, 새벽 명상, 발우공양에 이어 자기장점 발견하기를 끝으로 금봉사 템플스테이의 일정을 마쳤다.

명상기행에 참가한 이성근 씨는 현직 정신과 전문의로 환자들에게 불교식 명상수행을 치료에 접목 중이다. 이 씨는 "불교식 명상은 우울증이나 중독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훌륭한 치료법이 되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외국 의학계에서 뚜렷하게 과학적 증명법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명상기행을 통해 배운 명상법들을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향법회에서 청년 선객들은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끓던 욕망을 잠재우며 연꽃처럼 지혜를 활짝 피워 참다운 불자의 삶을 살 것"을 발원했다.

1~6회까지 매회 명상기행을 기획하고 이끌며 총 7회 모두 참가한 류상영 前 회장(대불청 부산지구)은 "매일 몸을 닦으면서 마음은 돌아볼 겨를 없이 살고 있어, 때때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을 수밖에 없다"며 "지리산의 품에 안겨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방하착의 뜻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마지막 주말, 금쪽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방하착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구법여행을 떠난 청년 선객들을 싣고 부산을 향하는 길. 동시간대 같은 길을 달리는 다른 버스들과의 분위기는 대조적이었다.

지리산에서 부산에 이르는 동안 차창에 비친 이들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만이 있을 뿐 묵언수행은 금봉사를 떠나올 때부터 계속 이어졌다. 과연 이들은 떠나올 때 품었던 방하착의 화두를 깨달았을까. 누군가 흥얼거리는 노래에 청년 선객의 눈빛이 일제히 지리산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지원 기자





참가자들이 명상수행을 하고 있다.



안민환 국장이 발우공양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금봉사 템플스테이

얼렸다 녹였다 반복한 '금봉차' 한잔의 여유

경상남도 하동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금봉사(주지 단제)는 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금봉차 도량이다. 주지 단제 스님은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 중에서도 1박 2일 단기간 휴식형템플스테이를 권한다. 불자라면 템플스테이 중 묵언수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통 사찰예절만 지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금봉사에서 금봉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다도템플스테이는 세속의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마련한 차 명상 치유프로그램이다.

주지 단제 스님이 직접 개발한 금봉차는 청정 지리산의 자연에서 발생한 거름과 톱밥 속에서 유기물질이 생성돼, 인공적인 비료나 농약 없이 자란 유기농 야생 녹차이다. 입하를 전후로 하여 일 년에 단 한 번 수확을 한 후, 첫눈이 올 때까지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깊은 숙성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한국의 명차, 금봉차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5월 27일 제조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마치고, 환경부장관 대상, 식약청장상을 수상하면서 지리산 야생 녹차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한국 명차로서의 발판을 만들었다.

단제 스님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인 요즘 세상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풀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다. '커피 한 잔 하자'는 말보다, '차 한 잔 하자'는 말에서 한 층 더 고요하고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라며 "홀로 마시는 차 한 잔은 스스로 마음 속 상처를 지우는 명상의 시간이며, 타인과 함께 기울이는 찻잔은 서로의 갈등을 내려놓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 882-2373 박지원 기자

인터뷰 | 하재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청년 · 이웃종교인 · 비종교인 포교에 '명상' 으뜸



"평소 스스로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평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란 말처럼 쉽지만, 지리산명상기행의 다양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30 지리산명상기행'은 도심 속 일상을 벗어나 산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숲길 명상도보 등을 통해 심신의 수양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7년 전 처음 시작됐다. 이후 해를 거듭해 갈수록 기도와 참선, 명상 등 다양한 수행법을 개발해 출가수행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수행형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명상기행의 화두는 '지리산, 그 품에 안겨 방하착 해보세'로, 지리산에 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말이 정복과 개발의 의미라면 산에 든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은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숲 속에서의 명상을 통해 마음 바깥으로 표출해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명상기행이 청년불교의 포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참가자 대부분은 재적사찰이나 불교청년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성 여행사의 지리산여행상품에 비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저렴한 참가비 덕분이다. 현재까지 연평균 100여명 이상이 동참해 현재까지 1000여 청년불자가 명상기행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의 지역별 지회에 자연스럽게 가입해 지금까지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일반 청년들의 동참을 유도해 산행 및 사찰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이번 기행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웃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 혹은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공부하려고 마음먹지 못하는 분들이 여행을 통해 불교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여름 '2030지리산명상기행'은 지리산과 맞닿은 섬진강 강변걷기, 인성개발프로그램을 접목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

"앞으로 1년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상 수행과 결합해 대불청 부산지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박지원 기자

용 왕 사

초개와 같은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아니면
나의사전엔 결코
굴하여 무릎 을 끓는 일은 없을 것 이다

6.29 민주화의 실천을 추구하는
하늘에 천명(天命)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 3일전
정식공문으로 전달한 동양제일의 심령학자
나라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금룡 김진걸 시집 피와 영혼의 소리 서시 중에서)



금룡 김진걸

- 초 대 월남참전 전우회
부산경남 상임부위원장

정신병 신병 무속생활 하기 싫은 분 무당 신 책임지고 떼어 드립니다.
철학 심령학 사업 송사 학업고시 등과 병원 등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고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처방 있습니다.

문의 : 051)852-5879 / 011-599- 5875 (사전예약) 부산 시청 뒤 양정쪽 100m

국가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불교의 꽃, 큰스승 용왕사 金龍大師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 · 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1〉

숲을 보는 이, 나무를 보는 이

이 프로그램을 따라해 보면

① 자녀와 소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② 자녀와 부모가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속에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는 마음공부

방학은 부모와 자녀들이 무언가를 함께 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때로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부모와의 시간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런 기회가 실제 서로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의 결과로 아이가 변화해야 한다는 부모의 욕심이 과하게 생길 때에는 오히려 자녀와의 틈이 더 벌어지는 악재가 되기도 한다.

변화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좋은 변화는 대부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기 마련이다.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만조에 이르는 것처럼,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지형에 따라, 날짜에 따라 만조에 이르는 시간이 다르듯이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에 이르는 과정과 속도, 형태는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저 이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공부해가면서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같은 것을 고민해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자녀와 함께 한 이 시간에 대한 추억이 내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오늘의 마음공부 : 이게 뭐지? – 부모 지도용

교사용 지도서 38P. 이야기 자료 참조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현재 내 그릇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활동은 자신이 가진 관점, 내 그릇에 담긴 것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이번 제1회차에서는 아이가 가진 자신의 관점에 의문을 스스로 가져보게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① 자가 설문지를 사용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진단표는 아이 상태나 생각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대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부모가 느끼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용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료: 자가 설문지)

② 그림 1-1에 대해 스무고개로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해 본다.

- 칠성무당벌레의 촉각을 전자현미경으로 2000배 확대해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서 '전자현미경으로 2000배 확대하여 확대 촬영한 사진자료' 라는 힌트만 주고 아이와 스무고개를 통해 무엇인지 맞춰보는 놀이를 해본다.

- 보여 준 그림과 정답이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③ 그림 1-2를 이용해 우리생활에서 경험하는 착시현상을 떠올려 보면서 대상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어릴 적 밤에 흰 비닐봉지를 귀신으로 착각하여 화장실을 못 갔던 부모의 경험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다.

④ '거지와 황금' 이야기를 들려준 뒤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현재 자신의 그릇에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거지와 행인의 생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두 사람은 똑 같은 상자에 대해 왜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까?
- 자신의 어떤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거지가 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거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 고정 관념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은 무엇일까?

거지와 황금

30년 동안이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 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민 낡은 야구 모자 속으로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으니 적선도 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앉은 건 뭐요?"

"그냥 낡은 상자요, 옛날부터 이 상자에 쭉 앉아 있었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만이라도 그 상자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뭘 해요?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안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행인이 다그치자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中

다음 주까지 같이 해봐요

한 주 동안 생활 속에서 틈틈이 다음 내용으로 자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세요.

-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3개씩 찾아보기
- 그 고정관념을 버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체험수기를 보내주세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 또는 기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내용이나 소감 등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독자분들께는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초 · 중등용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bohyung@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오늘의 마음공부 : 이게 뭐지? – 자녀 활동용

1) 자가 설문지

■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 O 보통이다 △ 아니다 X)

1.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 )
2. 화를 잘 내지 않는다. ( )
3.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한다.( )
4.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편이다.( )
5. 날마다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진다.( )
6. 가족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
7. 학교생활은 어렵기도 하지만 배우는 것이 많아 좋다.( )
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좋다.( )
9.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이다.( )
10. 내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 배우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
11.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
12.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을 잘 하는 편이다.( )
13. 어른들에게 예절바르게 행동한다.( )
14. 거짓말을 안 하는 편이다.( )
15.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다. (게임하는 것은 제외) ( )
16.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
17. 후회하는 일이 적은 편이다.( )
18. 음식을 적당히 먹는 편이다.( )
19.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
20. '멋있다' , '야호' , '아하!' 등의 감탄사를 잘 쓴다. ( )
21. 봉사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 )
22.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
23. 내 자신을 믿는다.( )
24. 자신을 멋지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
25. 친구들과 다투고 나면 먼저 사과한다.( )

합계 : 그렇다 O ( )개, 아니다 X ( )개, 보통이다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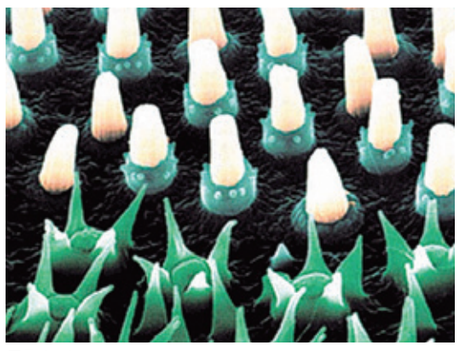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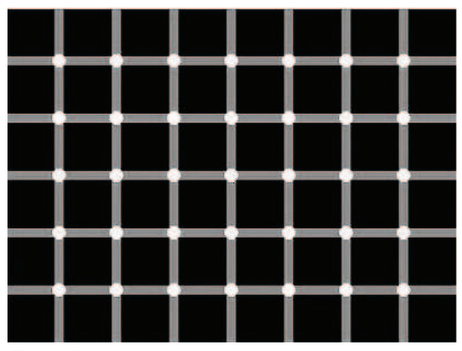


그림1-2

본지와 한마음과학원 공동기획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annam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3〉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인의 상[大人相]입니까?"
조주 스님은 옆 눈으로 째려보았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두 단계를 뛰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에게, 초월 경계를 얻은 한가한 사내가 되는 공부(工夫)는 없어."

問 如何是大人相 師側目視之
云 猶是隔階趨附在
師云 老僧無工夫趨得者閑漢

두 단계를 밟은 것은 한 단계를 생략했다는 말이다. 선(禪)은 원래 자질구레한 설명은 생략하고 두 세 단계 넘은 뜻을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단계가 높은 것을 보인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은 그저 평범한 것을 보인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해서 이 말이 두 세 단계 높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대인(大人)은 부처님이나 성인과 같은 훌륭한 인격자이다. 학인은 진정한 대인의 상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장난치듯 옆 눈으로 사물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대인이다. 자, 나를 보아라. 나야말로 대인이지 않는가. 대인은 옆 눈으로 사물을 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약간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곧 인간계나 천상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념무심인데도 천상계나 인간계의 권속에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뿐만 아니라, 본분 작가에게서도 역시 너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問纔有心念 落在人天 直無心念 落在眷屬時如何
師云 非但老僧 作家亦答你不得

여기서 작가(作家)는 본분 작가를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무(無)라했는가?'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대고 했던 '말후구는 무엇인가?' '전삼삼 후삼삼은 무슨 뜻인가?' 이들 화두들은 모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해답을 얻는 것들이다. 이곳에서 해답을 얻으면 그는 일체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다. 이러한 선사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데 각종 방편과 기연을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본분 작가라 한다.
만일 약간이라도 마음이 일단 일어난다면 그는 중생이다. 그 망념 때문에 윤회를 중지하지 못하고 삼계를 윤회하게 된다. 유심(有心)이 곧 중생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깨달으면 부처이다. 깨닫는 순간 망념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미묘함이다. 다만 미미한 습관은 남아있다. 이것마저 없애기 위하여 깨달은 자도 수행한다. 이것을 보림(保臨)이라고 한다. 이때에 닦는 수행은 '부처의 행[佛行]'을 닦는 것이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이 절대 아니다.
깨달으면 본래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가 다시 윤회할 일은 없다. 깨달은 자가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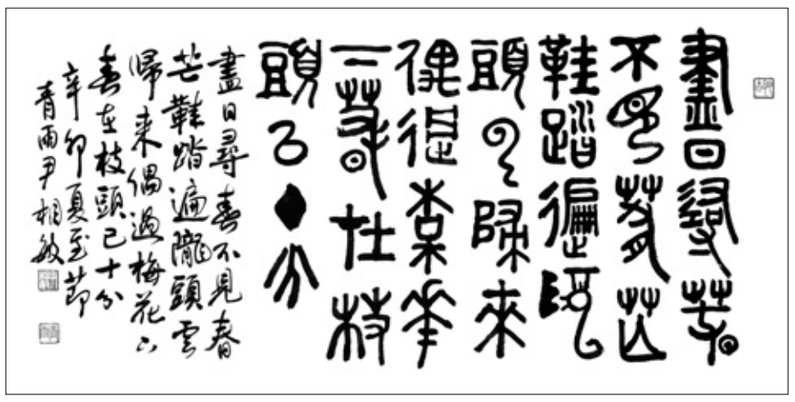
비구니가 물었다.
"대저 시위(施爲:행위)가 있으면 모두 조박(糟粕:찌꺼기)이 되어버립니다. 청컨대 스님께서 시위에 떨어지지 않고 대답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은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했다.
"물을 가지고 와서 솥에 붓고 푹 끓여요."

問 凡有施爲 盡落糟粕 請師不施爲答
師叱尼云 將水來添鼎子沸

도는 말할 수 없다. 뭐라고 말로서 설명하려 하거나 행동으로 보이려 하면 벌써 쓸데없는 찌꺼기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 이것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거나 말했다 하면 벌써 찌꺼기가 된다면서 너는 날보고 찌꺼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냐?" 하고 야단을 치면서, "그런 찌꺼기가 있으면 너나 물을 넣고 푹 고아 먹어라" 하고 핀잔을 준 것이다.
다만 일어나는 마음만 쉬어라. 시위, 찌꺼기, 어긋남 등의 생각도 쉬어라. 깨닫고 보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로지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㉑ 선시

봄을 찾다



※ 이 서체는 고대 한자 서체인 전서(篆書)체 중에 은시대의 금문(金文), 이른바 종정문(鐘鼎文)이다. 제기(祭器)·무기(武器)·악기(樂器) 기타에 새긴 명문(銘文)이 종정문에 속한다.

盡日尋春不見春 芒鞋遍踏隴頭雲 歸來偶過梅花下 春在枝頭已十分
(진일심춘불견춘 망혜편답롱두운 귀래우과매화하 춘재지두이십분)
-송(宋) 니승(尼僧)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짚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의 구름 따라다녔네.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청신두하우두혜불진
우묘이춘과운답견일
윤하십재매귀편춘심
상지분지화래롱망춘
민절

尋: 찾을 심
鞋: 신 혜
遍: 두루
踏: 밟을 답
隴: 고개 이름 롱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53
한국선과 선어록 23

선문촬요

선문에서 많이 읽혀온 책

조선시대 후기 경허성우(1849~1912)에 의해 범어사에서 1908년에 편찬된 〈선문촬요〉는 상 · 하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소실육문집〉에 수록돼 달마의 어록으로 간주되어 오던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 〈반야심경〉 〈오성론〉을 비롯해 홍인의 〈최상승론〉, 황벽희운의 〈완릉록〉 〈전심법요〉 몽산덕이의 〈법어〉, 박산무이의 〈참선경어〉, 보조지눌의 〈수심결〉 〈진심직설〉 〈정혜결사문〉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진정천책의 〈선문보장록〉, 저자 불명의 〈선문강요집〉, 청허휴정의 〈선교석〉 〈선가귀감〉 속에 수록돼 있는 [오가종풍], 기타 부록으로 감지승찬의 〈신심명〉과 영가현각의 〈증도가〉 등이다. 이후에 출간된 판본에는 〈좌선의〉 및 〈십우도〉 등이 부록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혈맥론〉은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반드시 선지식을 참문해 심법은 중생이나 부처에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달마의 정법안장이 견성성불에 들어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관심론〉은 북종의 대통신수의 저술로 간주되는 〈관심론〉 혹은 〈파상론〉으로서 참회와 예배 및 삼보에 대한 예경 등 하심을 위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 〈사행론〉은

선전 가운데 한국 · 중국 무관하게
선방에서 손 닿는대로 끌어 모은 자료
선문서 중시한 전등사서도 하나없이
남악-마조 법맥의 임제종 저술 중심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라는 깨침의 두 가지 양상을 비롯해 논주의락차별문, 일상평등무별문, 기타 수심제법유무문 등 44가지 주제를 설정해 설명한다.
〈반야심경〉은 게송의 형식으로 현장 번역본 〈반야심경〉 주석을 붙인 것이다. 〈오성론〉은 성품을 깨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 곧 본래의 성품이란 분별망상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14회에 걸쳐 경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상승론〉은 모두 14단락의 주제로 나뉘어 수심(修心)의 도리에 대한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릉록〉과 〈전심법요〉는 모두 황벽의 어록으로서 〈완릉록〉은 〈황벽단제선사완릉록〉으로 완릉지방에서 행한 법어이고, 〈전심법요〉는 〈황벽산단제선사전심법요〉로서 심법의 요체에 대해 무심과 심즉불(心卽佛)의 사상에 기초한 법어이다. 몽산의 〈법어〉는 제자들에게 들려준 납자들이 준거해야 할 법어로서, '무자십절목'과 '휴휴암좌선문'도 포함되어 있다. 박산무이의 〈참선경어〉는 특히 화두를 통해 참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책의 성격이 강하다. 보조지눌의 〈수심결〉 〈진심직설〉 〈정혜결사문〉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은 모두 순수어록보다는 저술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수심결〉과 〈진심직설〉은 본래의 마음을 파악하고 수행납자가 부처를 추구하는데 있어 자신의 본래심에 근거해야 할 점에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내용이다. 〈정혜결사문〉은 최초로 수선을 위한 결사문으로서 당시에 피폐해가던 고려불교의 정화운동의 이념을 잘 구현해주고 있는 글이다. 〈원돈성불론〉은 원돈의 교리에 의거한 성불론인데 선과 화엄의 갈등관계를 회통하는 방식으로 드러낸 글이다.
〈간화결의론〉은 한국 최초의 간화선에 관한 논서로서 '간화(看話)와 결의(決疑)에 관한 논의', 혹은 '간화에 의한 의심의 결단에 관한 논의'란 의미를 가진다. 간화는 화두의 참구이고, 결의는 화두를 참구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의심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선문보장록〉은 선과 교학의 차별의 입장에서 선의 우월성을 강조한 글이다. 〈선문강요집〉은 임제종의 종지 가운데 특히 임제삼구에 대한 논의를 삼성장 · 이현화 · 일우설 · 산운편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운문종의 종지에 대해 운문의 법어 및 기타 몇 가지 운문종 관련 법어를 설명한 것이다. 청허휴정의 〈선교석〉은 청허휴정의 다른 저술인 〈선교결〉과 더불어 선과 교학의 대별을 주제로 선교차별에 대한 논의이다.
'오가종풍'은 〈선가귀감〉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임제종 · 위앙종 · 조동종 · 운문종 · 법안종의 선종오가의 대의와 그 법맥 및 간략한 교의의 대강을 들어서 언급해두고 있다. 특히 임제종만이 정통이고 기타 네 종파는 모두 방계에 속하며, 또한 조동종을 제외한 네 종파가 모두 마조도일의 법계에 속한다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선문촬요〉에 수록된 이들 내용은 예로부터 선문에서 많이 읽혀온 것들로서 선별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여기에 수록된 선전(禪典) 가운데 특히 달마의 어록은 서지학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선종의 초조로 간주되고 있는 보리달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만들어낸 전설적인 내용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임제종지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었던 황벽희운의 어록과, 해동선법의 근간으로 간주되고 있는 보조지눌의 저술 등 개인적인 선전에 속하는 것들과, 기타 선리(禪理)에 대한 집대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저술들과 선교차별의 입장에서 저술되었던 내용 등으로 일관돼 있다.
〈선문촬요〉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기존의 선전 가운데 몇몇을 선별한 것으로, 중국찬술과 한국찬술에 상관없이 불특정의 선방에서 손이 닿는대로 끌어다 모은 것이다. 때문에 선문에서 중요시되어 온 문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전등사서에 해당하는 문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선경어〉와 〈선문보장록〉을 제외하면 선종오가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는 주로 남악과 마조의 법맥으로 계승된 임제종 계통과 관련이 깊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인천 유일의 불교복지 재가기관 안내

사회단체 지장연꽃마을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노인복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및 무의탁 노인후원, 복지용구지원, 환경개선지원 등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분들을 수발해 드립니다. 기타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방문상담합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자원봉사자 모집**
☏ 070)8248-0108, 032)548-0108, 010-4317-0108

태초의 신비,만트라(기도,명상용CD출시

* 번뇌,갈등,병고 등, 심신이 힘들고 불안할 때 일이 꼬이고 집안이 탁할 때, 이제 고요 편안한 자세로
① 만트라〈옴〉CD를 그저 듣기만 하여도
② 만트라〈옴〉을 들으며 명상을 하여도
③ 만트라〈옴〉을 따라서 음송하여도, 모두 놀라운 가피와 경이로운 심신의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만트라〈옴〉은 번뇌, 망상을 차단하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고요하게 하며 선신이 옹호하고 소원하는 바가 자연히 성취되는 놀라운 원력과 가피가 있읍니다.
이 '옴' 만트라는 모든 만트라(다라니,明呪)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신성하다. *성월(手印)
* CD주문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문받습니다.
stmn@naver.com / 010-4317-0108
* CD보시금은 만원이며, 판매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소림선원 기공명상센터 관장 성월 스님 합장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스님, 불자 변액연금 목돈, VUL, 의료 보험

❶ 은퇴후 120세까지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❷ 건강이상시(비상시) 보상받고 무상완치 된다면!
❸ 여유자금 0억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인플레이 헷지
❹ 비과세 초스피드 0억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부동산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 노후 Risk Management 강의 요청시
(5인이상. 1시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 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 목 :
1. **범음범패학과** (교수 :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 법 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 태 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 이현주 님)

범음범패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게,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언사구성, 짓소리.
■ **스 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석,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게, 다게)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6재의식, 방생의식, 상용영반, 종사영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범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

복력 까먹지 않으려면 말한마디 한마디 신경써야

한산사 주지 **석천 스님**



석천 스님은 …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나 동화사에서 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화사에서 9하안거를 성만하고 김룡사에서 서암스님을 모시고 정진하는 등, 전국의 선원에 방부를 들여 정진하다가 제주도에서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한산도를 찾아가 한산사를 세우고 기도정진하다가 해상법당을 건조해 기도와 전법도량으로 삼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간 한산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을 꼽자면, 한산도까지 가는 길이다. 10년 전에는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개통되지 않았었다. 지금은 파주에서 출발하여 통영까지 4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국토의 북쪽 끝 도시에서 남쪽 끝 도시까지 4시간 반이라니. 좋아진 길에 감탄하면서도 좁은 국토가 애처롭다. 거제에서 혹은 통영에서 한산도까지 가는 배가 한 시간 마다 있고 차도 싣고 간다.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은 뭔가? 통영 앞바다, 한려수도 국립공원의 경치는 변함이 없다. 도시와 마을들이 변하긴 했어도 푸른 바다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산사에 도착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정하고 부지런한 석천(石泉, 84) 스님은 팔순의 고령에도 바다처럼 그대로라는 사실이 기뻤다.

"다 늙은 사람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정정하신데요."

"그렇게 보여요? 고맙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한산사는 한산도와 연결된 추봉도 산허리에 위치해 사시사철 눈 시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석천 스님의 손은 늘 거칠다. 22년 전 바랑하나 메고 찾아 온 한산사에서 하루도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겠다는 원력으로 기도하며 빈터에 도량을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육지에는 한산사, 바다에는 해상법당을 띄웠다. 배 안에 관세음보살님, 용왕님, 남순동자님을 모시고 방생법회나 용왕재 수륙재 등, 기도를 하는 해상법당 보광호와 보현호등. 산에도 절이 있고 물위에도 법당이 있으니 그야말로 전천후 법당에서 정진하는 석천스님은 늘 바쁘다. 특별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그저 혼자 조용히 참선하면서 지내려고 했었어요. 혼자 기도를 하다가 포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해상법당을 고안해 냈습니다. 종교에서 기도가 없을 수 없고, 이왕 기도를 하려면 좋은 여건 속에 진심으로 기도 정진을 결심했습니다. 바다와 관련한 기도나 법회 의식을 바다 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해상법당이 불자님들께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셈이죠."

직접 배를 운전하며 법회를 주관 하는 석천 스님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불자들을 만난다. 한 때 1년에 5만 명 이상 찾아 온 해상법당이니, 그간 스님이 만난 불자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간다. 자연스럽게 많은 불자들과 대화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스님은 오늘날 불자들의 의식 수준과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며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요즘 불자님들은 훌륭한 불자님도 많지만 불교를 잘못 인식하는 불자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찻상에 내려놓은 석천 스님은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쉽게 예시해가면서 말씀하신다. 요약하면 이렇다.

여기 찾아 온 불자님들은 다 바램과 목적을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용왕, 방생기도 하러 오신 불자님들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얼른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지극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반복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정말 기도의 영험과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감하게 되고 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대개 업장소멸 하려고 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업장이란 일상생활의 버릇(습관)이며 현재 살아가면서 습관과 과거의 살던 버릇이 포함됩니다. 그 버릇이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업이란 버릇이고, 장이란 쌓이는 창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업장은 버릇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다 같이 공감이 되는 것처럼 업장도 버릇의 쌓임입니다.

방생이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며 자신의 생명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목숨처럼 다른 목숨도 귀한 것, 그러나 실천의 문제에서 불교는 매우 지극한 깨우침을 줍니다. 남의 생명을 한 번 살려주는 그 순간의 자비정신이 그 순간의 공덕이 함께 쌓여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생은 나와 남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정각으로 살고 있나 착각으로 살고 있나?
자신 먼저 방생하는 지혜부터 갖춰야해

정리하자면 업장소멸이란 나쁜 버릇을 선한 습관, 좋은 버릇으로 고치려는 서원의 실천을 다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로 돌아갑니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한산도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방생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면 5대양의 모든 물고기를 다 살려내는 서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를 살리는 그 순간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재수, 명, 등등을 어디에 쌓아두었다가 중생들이 원할 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불자님들의 잘 못된 모습과 버릇, 욕심이 지나친 것을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큰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춘 절대적인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자비하신 스승이십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주신 부처님이십니다. 해상법당에서 하는 기도도 본래 깨끗한 본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참다운 자기방생은 스스로 불성을 밝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과 모든 이의 생일에는 부모님께 방생하세요! 어머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난 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옳을까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생일 하루만이라도 고기를 안 먹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태어 난 날, 부모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해 주신 날 하루라도 진정으로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큰 절 한번 하며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어머님께 하는 모습을 본 내 자녀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대를 이어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생일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출생되는 과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일날 절에 가서 "부처님 우리 부모님 극락세계로 인도해주시고 저희들도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올 바른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발원하고 잠시 생각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아주 아름답고, 평소에 스스로 보지 못한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유익한 만큼 해로운 면도 있으니,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크게 나누면 좋은 말, 예쁜 말, 덜 좋은 말, 덜 예쁜 말(나쁜 말들)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는 해서는 안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는 언뜻 아무 뜻 없이 내 뱉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란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애곡(哀哭)을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잘 안될 때 '아이고' 하면 그만큼 슬프다는 뜻이지요. 그런 말을 일상에서 자꾸 쓰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말의 기운이 몸에 스며들고 마음에 젖어들어 자꾸만 아이고 소리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살면 정말 슬프고 비통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팔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팔자타령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팔자타령만 안 해도 그 팔자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팔자라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말로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매 순간의 행동이 업장으로 쌓여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말 한마디에 지옥·극락 오가는
차이가 있는 줄 알아야 참불자

자작자수의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고난 팔자를 망가뜨리지만 않아도 불행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팔자타령을 하고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꽈배기처럼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살고 업력으로 살고 덕력으로 살고 복력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은 현생에서 배운 기술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업력은 전생부터 지어온 업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덕력은 인품을 닦아 형성된 덕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복력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공덕의 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력입니다. 예부터 '능력 있는 장수는 덕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고, 덕 있는 장수라도 복 있는 장수를 감당할 수 없다' 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복을 다 쓰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행위를 자꾸 해야 합니다. 복은 지으면서 쓰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을 까먹고 팔자를 망가뜨리는 말이 입에서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겠다' 는 말도 그 섬뜩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걸핏하면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등등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으면, 왜 살고 있습니까?

'미치겠다' 는 말도 습관처럼 쓰고 '환장한다' 는 말도 습관처럼 씁니다. 미치는 것은 정신줄을 놓치는 것이고 환장하는 것은 창자가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자꾸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하면서 살면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여 입원하고 수술할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주문을 거는 것이니까요.

부정적인 말, 비관하는 말, 남을 낮추고 멸시하는 말, 나를 타락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만 조심해도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가는 말 오는 말이 고와야 사람 사이도 좋은 것입니다. 결국, 말 한 마디에도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구경〉의 맨 처음이 '정구업진언' 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바로 믿고 바르게 살기위해서는 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 했듯이 업은 버릇을 말합니다. 버릇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치만이라도 부디 명심하여 좋은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하는 버릇, 말하는 버릇, 생각하는 버릇 등등 모든 것이 버릇들이기 나름입니다.

석천 스님은 "모두 정각(正覺)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착각(錯覺)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일상은 거의가 착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단순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부처를 구하고 보살을 들먹이며 잘난 체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며 아름다운 한 려수도의 섬들을 에돌아 뭍으로 돌아왔다.



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자기성찰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제주도를 섬의 특성상 삼다도(三多島)라고도 한다. 돌과 바람 그리고 해녀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서(島嶼)란 크고 작은 섬을 이르는 말이다. 도는 큰 섬 도이고, 서는 작은 섬 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많은 제주 사람들은 바람의 재해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 하나가 강담을 쌓는 일이었다. 흙을 쓰지 않고 돌로만 담을 쌓는 것이었다. 그렇게 담을 쌓는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강담은 견고성에서 부실하기 그지없다고도 생각했다.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으로 큼지막한 구멍이 난 담을 쌓기 때문이다. 누대의 선조들은 견고하게 쌓겠다고 흙을 넣어 다지며 구멍이 나지 않게 쌓았겠으나 생각과는 달리 정성이 빗나가기 마련이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거듭한 나머지 터득한 지혜가 바람이 지나 갈 통로를 마련해 두는 작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담장이 무너지는 애석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수행자의 경우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반복 또 반복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한 나머지 저 위 없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부단한 성찰의 결과이다. 성찰(省察)은 범어로 nirīkshaṅa 라고 한다. 동사는 nirīksh 이다. '보다', '응시하다', '지각하다' 는 말이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자신을 반조해 보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놀아나는 사람이 허다하다.

월(越)나라의 미녀 서시(西施)가 음식을 잘못 먹어 위경련이 일어났다. 그 통증이란 가히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서시는 참다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그때 어떤 추녀가 미인은 찌푸리는 것이라고 여겨 자기도 찌푸리기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이를 때 쓰는 말이 효빈(效顰)이란 고사가 나왔다.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의 삶의 단면을 지적하고 있다.

〈회남자〉 인간훈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 장공(壯公)이 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벌레 한 마리가 장공이 타고 가는 수레바퀴를 들이치려고 하였다. 공은 수레를 모는 마부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벌레인가'

'저 놈이 이른바 사마귀란 놈입니다. 저 놈은 원래 앞으로 나아 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 날 줄은 모르며, 제 힘도 헤아리지 않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놈입니다.'

'그래, 그 놈이 만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하의 용사가 될 것이다.' 하며 공은 수레를 돌려 사마귀를 피해 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사를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고 알고 있다. 사마귀에서 배울 점이 있다. 아무튼 타고난 성질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빤히 안 될 줄 알면서 인간의 의기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하는 점이다.

사향(麝香)노루는 몸길이가 1m이고 어께 높이는 50cm 가량이 된다. 뿔이 없는 동물로 서식지는 숲속이다.

궁노루라고도 하고 사록(麝鹿)이라고도 한다. 이 짐승의 수컷의 배꼽 근처에는 향낭이 있다. 향낭에서 매혹적인 향이 나는 데, 정작 노루는 냄새의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 온 산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

인간도 사향노루와 유사한 일면을 볼 수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쉬고 조용히 자기성찰을 하게 되면 그 만족의 근원은 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도심 속에 잘 가꾸어진 저택의 정원을 보게 된다. 몇 평 남짓한 잔디 밭,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심어 놓은 정성이 묻어나는 소나무 몇 그루로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이 정형화된 도심의 정원이다.

반면에 저택은 아니지만 아니 궁색해 보이는 주거 공간에 살면서도 광대무변한 숲과 계곡을 정원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된다. 여기서 분명한 두 모습을 보게 된다.

행복이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온은 장마 끝에 나들이 나온 달팽이의 촉수마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여백이나 공간이란 얼핏 생각하면 손실 부분이라고 간주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여백이 없는 동양화란 상상하기 어렵다. 동양화의 매력은 여백처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 세상에 공간 없이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설치물들은 조금도 지탱하지 못하고 이내 소멸이나 파멸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제주의 강담을 보고 있노라면 여백의 활용과 공간의 묘미가 절묘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 마음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흡사하다. 마음을 비울 때 공간 활용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 구석구석에 뭔가 가득 채우려하면 할수록 자신을 감당할 길이 막연해진다.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살펴보자. 비우는 연습을 했는가 아니면 채우는 연습을 했는가. 정작 인간이 낭비해야 할 것은 소유욕이다. 소유욕은 다른 재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순창 왕실 고추장



안녕하십니까?
4대 전통의 손맛을 이어받은
제조기능인 김경순입니다.

저희 왕실고추장은 순창의
자연과 4대 전통의 손맛,그리고
재래식 전통방식이 어우러져
장인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왕실고추장은 여러분의 식탁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대째 내려오는 장인의
명예와 왕실고추장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입맛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전통왕실고추장
제조기능인 김 경 순 올림

김경순 명인의 모듬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오이 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명인의 매실 장아찌 1kg 44,000원
김경순 명인의 굴비 장아찌 1kg 140,000원
김경순 명인의 마늘쫑 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명인의 도라지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감 짱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참외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마늘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고들빼기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무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깻잎 장아찌 1kg 27,500원

구입문의 : 왕실고추장 02)879-2007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균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8

먹을 것 주고 사진 찍는 일은 그만해야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중에는 탈북민도 포함된다. 어찌 보면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이질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들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나원을 두고 있고, 이들에게는 집도 제공하고 지원금도 주면서 살아가기 위한 밑받침을 만들어주고 있다.

탈북민들은 너무나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란 지극히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 삶의 토대만큼은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을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지원봇물이 쏟아지면서 이들은 거꾸로 자생력을 잃어갔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자본주의로 잘못 오인하게 되면서, 탈북민들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함께, 나중에는 왜 더 풍족하게 안주나 하는 원망으로까지 변질돼 나타나게 됐다.

지금의 다문화에 대한 지원모습이 대개 이런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는 다문화어린이합창단(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씁쓸한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합창연습을 하러 오는 것에 대한 차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기업체 후원을 받으면서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차비를 비롯해, 간식과 공연 시 간식 혹은 식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뒷받침을 하면서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자존감과 당당함.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배포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은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보람을 서로 받곤 한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기업체 후원이 절반으로 줄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기존의 받았던 것과 비교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거센 항의가 시작됐다. 왜 반으로 줄었냐는 항의였다. 하다못해, 공연 나갈 때는 공연 주최 측에서 밥으로 된 도시락을 줄 때도 있고, 샌드위치나 햄버거로 식사를 줄 때도 있는데, 밥을 굶기고 빵만 줬다고 항의하는 이주민 엄마도 있다.

또 한 번은, 이중언어경진대회 등 이들에게 이중언어의 자극제가 되기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여를 권하자, "가면 뭐 줄 건데요?" 라고 대뜸 물어댄다.



이주민 노동자와 탈북민들을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지원봇물이 쏟아지면서 이들은 거꾸로 자생력을 잃어갔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물론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삶은 형편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생활고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가적으로 '다문화' 붐이 일자, 다문화특수를 누리고 모든 혜택이란 혜택을 싹쓸이하는 이주민도 있다. 정부부처마다 보여주기식 행사, 돈으로 치장한 사업, 사진 한방 찍고 언론에 나가면 끝인 그런 행사들이 남발하면서 이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들을 교육시키고 한국사회에서 별 다른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금방 결과물이 보여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저변을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발판이다.

이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야 내국인과의 갈등과 충돌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내국인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를 대하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정지천 건강칼럼⑬

무더위엔 배 속을 보호해야

삼계탕, 보신탕, 매운탕 같은 따뜻한 음식들로 여름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갑고 한기를 느끼는 한성병(寒性病)에 뜨거운 성질의 약을 쓰고, 열이 원인이 돼 화끈거리고 땀이 나며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가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열성병(熱性病)에 찬 성질의 약을 쓰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을 '정치법(正治法)' 이라고 한다. 치료의 근본은 '중화(中和)' 로서 위로 치솟는 것은 아래로 내려주고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올려주며,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넘치는 것은 깎아주는 것이다.

여름의 열탕 먹기 전통은 이열치열이 아니라 뱃속의 냉기를 제거하기 위한 '이열치한(以熱治寒)' 이 옳은 표현이다. 인체는 소우주(小宇宙)이므로 한여름의 우물물이 오히려 차디차듯 인체의 지하에 해당되는 내장도 밖이 더울수록 오히려 차가워진다. 여름은 심장의 기가 왕성하고 신장의 기가 쇠약한 시기여서 인체의 양기(陽氣 : 火)는 피부 표면으로 발산하고 음기(陰氣 : 水)는 뱃속에 잠복해 있다. 때문에 피부와 입에는 열이 나지만 뱃속은 차가우므로 배탈이 생기기 쉽다. '이열치열' 이란 열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상(假像)' 일 뿐이고 실제로는 몸속에 찬 기운이 많은 것이 근본인 병증에 열성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다.

여름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몸이 냉한 체질이라면 마땅히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냉하지도 열하지도 않은 중간 체질도 되도록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반면 열성 체질인 사람이 열탕을 자주 먹었다가는 오히려 열이 더욱 쌓여 탈이 나게 된다. 열성 체질은 여름에 차가운 성질을 가진 메밀, 참외, 돼지고기, 팥빙수 등을 먹고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배를 드러내 놓고 잠을 자야 한다.

만약 냉한 체질이나 중간 체질인 사람들이 여름에 찬 음식을 먹고 찬바람을 즐기면 '냉방병(冷房病)' 혹은 '냉증(冷症)' 으로 고생하기 쉽다. 그러니 햇볕을 싫어하지 말고 적당한 야외 활동으로 적절하게 땀을 흘려야 한다. 아울러 배를 따뜻하게 하고, 냉방에서는 얇더라도 긴소매를 입는 것이 좋다.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마늘, 복숭아, 닭고기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한편, 열성병에 열성의 약을 쓰고 한성병에 찬 성질의 약을 쓰는 '반치법(反治法)' 도 드물게 활용된다. 피부 발진이나 열병이 매우 심한 경우에 땀을 내게 하는 치료법을 쓰기도 한다.

반대로 '이한치한(以寒治寒)' 도 있다. 바로 겨울철에 '냉면(冷麵)' 을 먹는 것이다. 평안도, 함경도 지방의 겨울에는 쌓인 눈 때문에 밖을 다닐 수 없어 집안에 작업방을 꾸며 놓고 새끼 꼬기와 가마니 짜기 등을 했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므로 몸속에 열기와 노폐물이 쌓이고 대변도 원활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달아오르게 된다. 이 때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찬 성질의 메밀 사리를 말아 먹으면 열기가 내리고 대변이 잘 나오게 된다. 그러니 겉은 차가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 찬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한치열(以寒治熱)' 이다.

겨울에도 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찬 성질의 음식과 약을 먹어서 열을 없애주어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쌓인 열 때문에 두통, 변비는 물론이고 고혈압, 중풍,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유발되기 쉽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7 - 붓다의 호흡법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1

경전에는 삼매를 계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제시돼 있다. 이중에 들숨날숨에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삼매를 계발하는 방법을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ānāpānāsati)이라고 한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성불하실 때 수행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붓다의 호흡명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먼저 좌선을 할 때는 등을 바로 세우고 눈은 감은 채 앉는다. 눈을 뜨고 있으면 형상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중력이 향상돼 들숨날숨의 표상이 빛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졸음이 온다면 잠시 눈을 떠서 밝은 빛을 보거나 몸을 약간 움직여 졸음을 깬 다음 다시 눈을 감고 수행을 하면 된다.

좌선 자세는 자신이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반)가부좌 자세가 힘들다면 굳이 이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쪽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근심
내려놓고 오직 숨만 알아차려야

다리를 가지런히 바닥에 놓는 평좌자세를 취해도 좋다. 이 자세는 다리를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앉는 경우에 좋은 자세이다. 만약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면 적당한 두께의 방석을 이용하여 엉덩이 쪽을 받치면 상체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손은 자신이 가장 편한 상태로 양 무릎에 올려놓거나 두 다리가 포개어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면 된다. 좌선을 시작하는 매 시간마다 온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매번 앉을 때마다 양 다리를 바꾸어 앉아주는 것이 좋다.

좌선자세가 집중하기 가장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 좌선자세에서만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좌선자세가 힘든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수행해도 무방하다. 단지 등을 바로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걸어 다니거나 누어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몸의 자세를 바로 갖추고 수행에 임할 때 과거나 미래를 돌아다니지 말고 현재의 숨에만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들숨과 날숨외의 다른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난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거나 화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숨만 고요히 알아차리면 된다. 특히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 등과 미래의 근심, 걱정, 계획,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반응하고 동요하는 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

숨은 윗입술과 콧구멍 주변 사이의 영역을 통해 콧속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그래서 인중(人中)에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인중은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문과 같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수행을 시작할 때 인중에서 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평소에 호흡하는 자연스러운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숨에 개입을 하면 마음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치 집안에서 창밖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듯이 숨에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처음 숨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긴지 짧은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들이쉬는 숨이 길다고 느끼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다고 느끼면 짧다고 알아차린다. 내쉬는 숨이 길다고 느끼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다고 느끼면 짧다고 알아차린다. 이 방법은 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초보자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방법으로 수행을 할 때 만약 망상이 자주 일어난다면 숨을 셀 수도 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후에 '하나' 하고 수를 센다. '들숨-날숨, 하나', '들숨-날숨, 둘' 이런 식으로 여덟까지 센다. 그런 후에 다시 하나부터 여덟까지 세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면 된다. 숨을 셀 때에도 호흡에 집중해야지 숫자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숨을 세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는 세는 것을 멈추고 단지 들숨과 날숨이 긴지 짧은지 만을 알아차리면 된다. 나중에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길고 짧음에 개의치 말고 단지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굳이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고 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닫는 문을 삼아라. - 보왕삼매론-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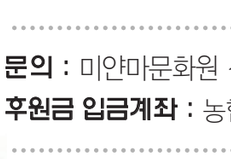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사찰이미지 200% UP!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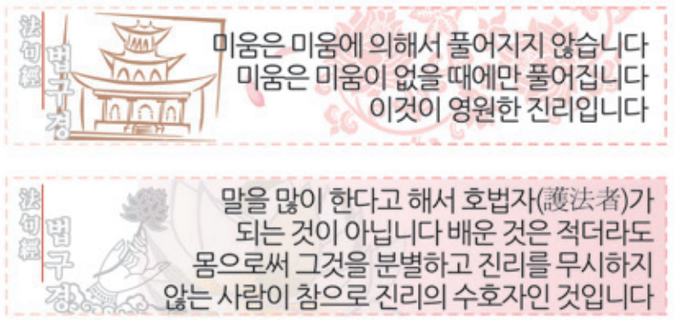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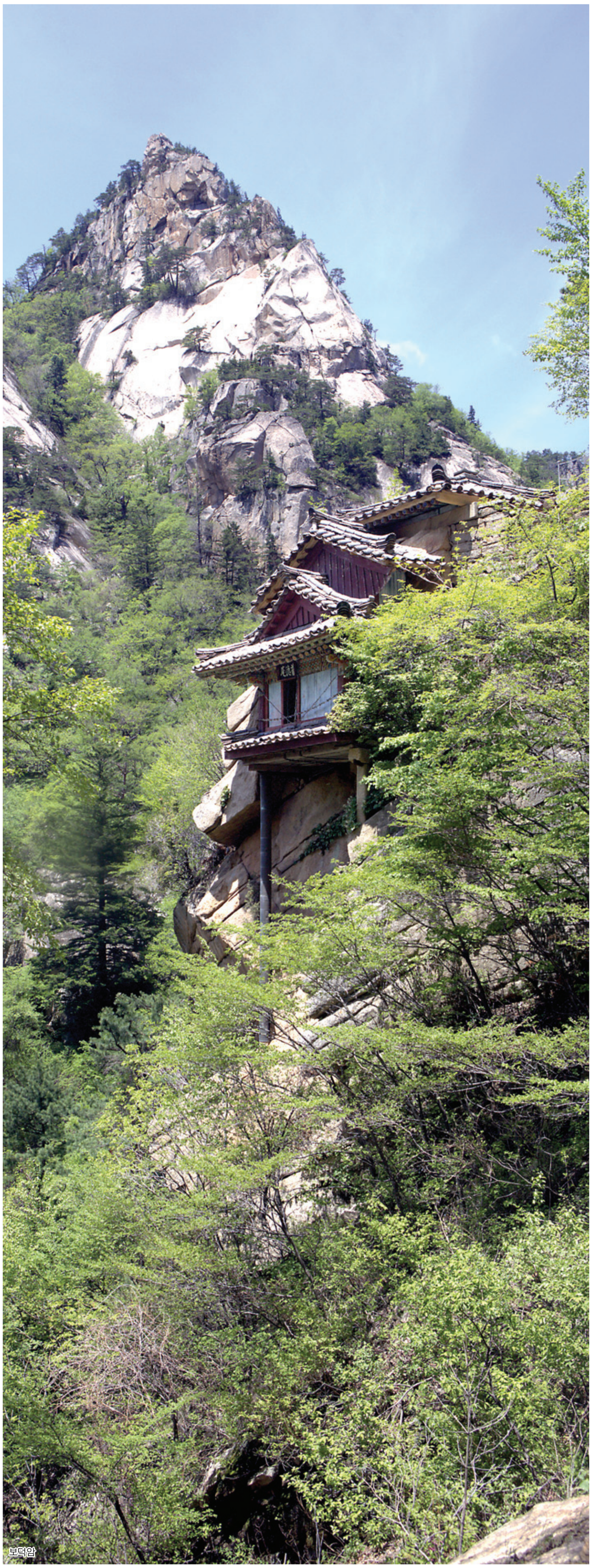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보덕암

'분단 66주년 북녘의 불교문화 유산' 사진전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8월 10~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분단 66주년 북녘의 불교문화 유산'을 주제로 북한사찰 사진전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60여 점의 엄선한 북한사찰 사진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금은 폐사된 장안사 · 화장사 · 학림사 · 현화사 · 신광사 · 마하연사 · 패엽사 등 역사 속의 고찰 명찰들 모습도 포함돼 있다.

아~ 보아도 갈 수 없는 곳이여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측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불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신앙 활동은 물론이고 분단 직전 전통사찰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유지돼 왔을지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많았다. 전쟁 직후 북한에서는 한동안 종교 활동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남북 불교가 교류의 양상을 띠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사찰이 운영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은 더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남한 지역도 수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헤아려 질 뿐,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북한 지역에도 남한 지역만큼의 사찰이 있어 왔겠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역시 파악되지 않았다. 1530년 간행된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불우조(佛宇條)'에 북한 지방의 사찰은 경기도 33개, 강원도 52개, 황해도 210개, 평안도 201개, 함경도 71개 등 571개의 사찰이 등재돼 있다.

193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0개, 강원도 56개, 황해도 124개, 평안도 87개, 함경도 106개 등 403개로 집계돼 조선시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있었다. 8개의 대본산은 패엽사(貝葉寺, 황해남도), 성불사(成佛寺, 황해북도), 영명사(永明寺, 평양시), 법흥사(法興寺, 평안남도), 보현사(普賢寺, 평안북도), 유점사(楡岾寺, 강원도), 귀주사(歸州寺, 함경남도), 석왕사(釋王寺, 강원도) 등이다. 이 중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사찰들은 성불사 · 법흥사 · 보현사 · 귀주사 등이며, 패엽사 · 영명사 · 유점사 · 석왕사 등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사되거나 사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알려졌다.

봉은사는 2009~2010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함께 북한 전역에 있는 사찰과 암자, 폐사지 등을 북측의 조선문화보존사를 통해 조사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2011년 〈북한의 전통사찰〉(양사재刊)로 출판됐다. 이로써 북한의 현존 사찰 및 암자 수가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59개 전통사찰이 남아있었다.

북한의 전통 사찰은 상당수 국보유적 · 보존유적 등으로 지정 · 보호되고 있다. 우리의 사적(史蹟)과 기념물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상 · 탱화 · 탑파 · 공예 등 각종 사찰문화재의 분류 역시 대체로 남한 측의 그것과 비슷하다.

북한의 지정 불교문화재는 2009년 현재 국보급 문화재 19점, 보물급 문화재 35점, 사적 문화재 4점 등을 포함해서 60점 정도다.

불교건축은 상당수 전통사찰에서 여러 건물들이 옛 모습대로 복원돼 있다. 북한에서는 지정 불교문화재 상당수가 '국보급 문화재 제31호 성불사'처럼, 특정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포함해 해당 사찰 전체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보급으로는 박천 심원사 보광전(21호), 보현사 관음전(22호), 연탄 심원사 보광전(23호), 성불사 응진전(31호), 석왕사 응진당(43호) 등, 보물급으로는 천주사 보광전(17호), 월정사 극락보전(28호), 관음사 대웅전(33호) 등이 조선시대 초중기의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불상으로는 묘길상암 마애불(국보급 문화재 제46호)과 삼불암 아미타 삼존불(보물급 문화재 제41호) 등 단 2점만 지정돼 있다. 특히, 평남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에서 발견된 다수의 소조불상(여래좌상 204편, 보살입상 108편)들은 고구려 작품으로 불교미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불탑은 현재 북한에 53기의 석탑이 원형을 지니고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성불사 오층석탑이 국보급 문화재 제32호로 지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약 20점이 국보급 · 보물급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정양사


용흥사


석왕사


표훈사

■보덕암

보덕암은 금강군 내금강리 내금강산에 자리한 표훈사의 암자로, 국보 문화유물 제98호다. 고구려 안원왕 때 보덕화상이 창건했으며, 지금의 건물은 1675년에 다시 짓고, 1808년에 중수한 것이다.

법당 건물은 자연 동굴을 이용한 전실(前室) 시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지붕으로 층층이 올렸다. 여기에 암자 뒤로 내금강의 오현봉 · 청학봉 · 향로봉 등의 봉우리가 병풍마냥 두르고 있어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정양사 전경

정양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방광대(放光臺) 중턱에 자리한다.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놓였다고 하여 정양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660년에 창건됐고 고려 태조 왕건이 중창했다. 금강산을 주처로 하는 법기보살이 나타나자 이를 본 태조가 엎드려 절을 했고, 후에 이 자리에 절을 세우고 정양사라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99호다.

■용흥사 대웅전 내부

용흥사는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 백운산성 안에 자리한다. 일명 성불사라고도 하는데, 고구려 동명왕이 쌓은 백운산성의 동문에서 약 600미터 더 올라가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 1048년 창건됐으며, 1794년 현재의 대웅전과 운하루, 1814년 향로전이 지어졌다. 현재 국보 문화유물 제115호로 지정됐다.

대웅전은 내부의 조각 장식이 화려하다. 불단에는 석가삼존불좌상과 영산회상도가 모셔져 있고, 그 위에 격조가 있으면서도 단정한 닫집이 설치돼 있다. 2층으로 된 닫집의 위층에는 '寂滅宮(적멸궁)', 아래층에는 '普光殿(보광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닫집 밑에는 세 마리의 용 조각상이 달려 있는데 화려한 닫집과는 대조적으로 위엄 있는 모습이다.

■석왕사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설봉산 기슭에 자리한다.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 중 하나였고, 현재 국보급 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됐다.

일주문인 조계문은 1783년에 중건한 것이다. 조계문은 좌우에 하나씩 세운 2개의 기둥만으로 커다란 팔작지붕을 받들었지만 매우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높이 1.2m의 4각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다. 기둥 위 지붕에는 화려한 포작과 공포가 베풀어져 있고, 여기에 봉황과 용, 선녀 등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한 단청을 그려 아주 아름답다.

■표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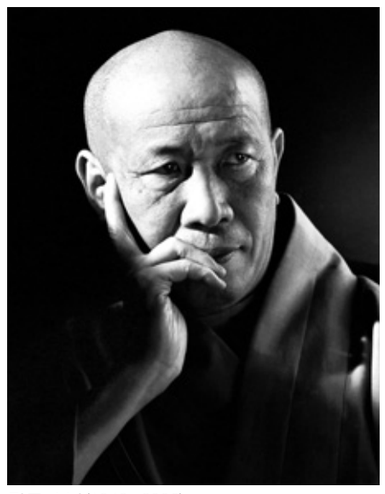
표훈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금리 금강산 만폭동 입구에 자리하며, 국보 문화유물 제97호로 지정됐다. 금강산 4대사찰인 유점사 · 장안사 · 신계사 · 표훈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다. 670년에 신라의 능인 · 신림 · 표훈이 창건했다. 한때 극락전을 비롯해 20여 동의 전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반야보전 · 영산전 · 명부전 · 어실각 · 칠성각 · 능파루(일명 산영루) · 판도방 등과 칠층석탑이 남아 있다.

■금광사 대웅보전 빗반자 별화

대웅보전 천장은 중도리 바깥쪽은 빗천장으로, 안쪽은 평천장으로 조성됐다. 천장의 장식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황룡을 중심으로 연꽃과 연잎이 화면 가득 장식됐다. 또 연꽃 사이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장면을 그려 넣어 연지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표현했고, 그 밖에 구름과 학 같은 동물도 그려 천상의 세계를 상징했다. 대웅보전 내부 불단 위에는 닫집 대신 대들보 아래에 연꽃 조각을 달아 보개처럼 처리한 것도 특색이다.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본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통일신라|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4


관조 스님(1943~2006)

국립춘천博, 9월 13일까지 관조 스님 사진전 '부처님의 손' 개최

불상조각은 불교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관점에서 조각은 언어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오로지 손[手印]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 한 손으로 땅을,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탄생불의 수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고, 결가부좌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은 깨달음 직전 악마들의 강한 유혹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내옥)은 8월 9일~9월 13일 기획특별전 '부처님의 손'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특별전은 사진작가인 관조 스님(1943~2006)의 유작 중 엄선된 20점을 통해 우리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부처님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지관 스님의 법어와 시인들의 글을 통해 재해석하여 불교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느껴 볼 수 있는 전시이다.

관조 스님은 사진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스님이자 사진작가로 〈승가(1980)〉 〈한줄기 빛〉 〈사찰 꽃살문〉 〈님의 풍경〉 〈사천왕〉등 20여권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이 중 〈사찰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보살의 수인을 촬영한 작품 20점이다.

전시된 사진작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 스님의 법어와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우리나라 대표 시인 19명의 시도 함께 전시된다. 이들을 모아 관조 스님 행장, 불상수인 해설원고 등을 덧붙여 50페이지 분량의 도록을 발간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번 관조 스님 사진전시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우리나라 불교 수인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했다"며 "관조 스님이 추구했던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보고자 한 화엄세계[一微塵中含十方]'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과거 유물의 정신을 현대 시인들의 화두와 같은 시를 붙임으로써 관람객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이색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꽃처럼 살다 바람처럼 사라져

광주시립미술관, 8월 21일까지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전


1942년의 작품. 보살춤은 최승희의 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


1936년 최승희의 발랄한 단발머리. 이 단발머리는 남편 안막의 권유에 의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래서 최승희 하면 단발머리가 연상됐다고 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

최승희는 '동양의 이사도라 던컨'에 비유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다. 최승희는 1930~1940년대 한·일·중국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활동무대로 활약하며 '전설의 무희'라는 찬사를 받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최승희(1911~1969) 탄생 100주년 기념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 전을 8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최승희는 일제시대 민족의 꽃으로 세계적 무용가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치며 친일예술가, 월북무용가라는 이념적 굴레를 쓰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예술가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는 드라마틱한 최승희의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최승희는 불교에서 힌트를 얻은 '보살춤'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세

> 해외공연서는 언제나
> '코리안 댄서'라고 밝힌
> '동양의 이사도라 던컨'

계에 널리 알렸다. 그는 외국서 공연을 할 때면 스스로 '코리안 댄서'라고 밝히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곳이 우리 땅이다. 코리아는 지금 식민지 상태이다. 조선민족의 예술성은 우수하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1937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시작으로 1938년 유럽순회공연을 마친 최승희에 대해 프랑스 '르 피가로'지는 "선이 아주 환상적인 동양 최고의 무희"라고 극찬했다. 이때 당시 파리공연에서 주목받은 춤이 최승희를 대표하는 춤으로 평가받는 보살춤이다.

최승희는 독실한 불교신자였기에 보살춤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불국사를 여러번 참배했으며, 북에서 숙청당한 후에도 북한지역의 여러 사찰을 돌아보기도 했다.

유럽 공연의 성공으로 다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최승희는 1930년대 후반 유럽, 미국, 중남미 등에서 150여 회의 공연을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승희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만주와 중국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 위문공연에 투입돼야 했다.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을 정도로 그는 관동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끌려가 공연을 해야 했다.

이때 최승희는 불교를 무용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몽고를 돌아 다른 전쟁터로 이동할 때 운강석굴을 방문했다. 운강석굴은 1500여 년전에 만들어진 중국최대의 석굴사원으로 동굴에는 5만 1000개 정도의 불상이 조각돼 있다. 최승희는 이 거대한 불교예술에 큰 감명을 받아 불상의 다양한 자세를 무용으로 승화시켰다. '석굴암의 벽조'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 최승희가 생전에 춘 춤은 300여 가지나 된다. 이들 춤의 대부분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동이춤과 화랑춤, 천하대장군춤, 고구려춤 등이 그것이다.

170㎝의 훤칠한 키와 갸름한 얼굴의 미인이었던 최승희가 춤사위를 하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정도로 황홀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승희 사진 150여 점과 최승희를 그린 회화작품, 공연 리플렛, 서적, 언론보도 기사 등 희귀자료를 통해 최승희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또한 TV에 방영됐던 최승희 다큐멘터리와 최승희가 월북 후 안무해 북한 최초의 천연색 영화로도 제작된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등 영상물을 상영,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해 최승희의 드라마틱한 삶과 예술세계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최승희는 1940년대 일본군 위문공연을 하고 공연 수익금을 일제 군부에 기부한 행적들로 인해 2009년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엇갈린 평가와 여론이 불거졌다.

광주시립미술관 김희랑 학예연구사는 "전시타이틀은 조국을 잃은 암흑과도 같았던 시대에 불꽃같은 예술혼을 발휘한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격동의 근현대사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저리 바람처럼 떠돈 삶, 그리고 죽어서까지 정치적 이념적 줄다리기 사이에 서있는 비운의 예술가에 대한 연민의 뜻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일제시대 민족의 꽃으로 세계적 무용가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치며 친일예술가, 월북무용가라는 이념적 굴레를 쓰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최승희 연구와 조명사업에 다시 한번 도화선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62)613-7134 이나은 기자

제26회 불교미술대전 요강 발표

작품만으로 심사진행
10월 20일까지 접수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제26회 불교미술대전 요강을 공개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별도의 작품설명서 심사과정 없이 작품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등 세 부문으로 실시된다. 작품규격은 회화의 경우 세로 227㎝×가로 181㎝ 이내, 조각은 높이 180㎝×폭 180㎝×두께 120㎝ 이내, 공예 높이 180㎝×폭 120㎝×두께 120㎝이내다. 규격을 초과하거나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가 불가하다.

주최측은 9월 19일~10월 20일 응모원서를 배부하고 10월 17~20일 4일간 작품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작품접수자는 작품과 작품설명서, 참가신청서를 가지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원서 등 제반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10월 25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품은 11월 29일 시상식에 이어 12월 15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대상에는 1500만원, 총무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상인 최우수상 두 명에는 각 5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02)201-1772

이나은 기자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시 음악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8월 6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탤런트 이동건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국방부 전통군악대의 퍼포먼스와 팝페라 가수 박완의 무대가 꾸며졌다. 이어 2부는 영화배우 이준기의 사회로, 가수 박효신 앤디 이완 에픽하이 양세찬 걸스데이 등의 무대가 마련됐다.

한편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조선왕실의궤' 환국기념 '일파만파(一波萬波)' 포토존을 8월 3~7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 열었다. 행사에서는 사진전 '조선왕실의궤가 들어오기까지의 경과' '약탈문화재 현황'을 열었으며 '조선왕실의궤그림' 등을 전시했다.

노덕현 기자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향·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체력증진·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特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地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參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 세 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걸상



8각좌대 칠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100불·1000불·10000불·칠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 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법음입니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1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월) 오후 2시
회 비 :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준 비 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3880-8980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Book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이다. 빡빡한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휴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준다.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휴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된다. 아직도 휴가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거나, 쌓인 업무로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들을 추천한다. 잠시나마 조용한 산사로 이끌어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책들이다. 고민할 것 없이 책 몇 장만 넘기면 휴식이 찾아온다.

가람의 美 알려면 스님의 생각을 가져라

여름철을 맞아 템플스테이로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기 좋고, 조용한 산사에서 지내는 하룻밤은 나를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템플스테이가 대중화 되면서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현대인들에게 절이란 자연 속에 묻혀 있는 휴식처요, 명승 속에 자리 잡은 관광지에 불과하다.

저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는 사찰 건축의 역사와 아름다움, 그 속에 배어 있는 정신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오래된 옛 절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느낌의 정체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범어사의 일주문을 드나들고,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보면서 한 없이 신비롭고 좋다는 느낌은 받지만 왜 그런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런 느낌이 우연이 아닌 건축적 장치에 의해 디자인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범어사의 진입로는 뛰어난 구성을 하고 있다. 수십 동의 건물들로 가득한 대가람이지만, 건축적 핵심은 바로 그 진입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3칸의 돌기둥의 일주문부터가 범상치 않다. 보통 사찰의 일주문은 단칸이지만, 이곳은 3칸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단 위로 천왕문이 나오며, 천왕문에 올라서면 멀리 불이문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진입부의 클라이맥스이며, 한국 불교 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본문 19쪽)

저자는 전국의 29곳 가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혁이나 전체 건축에 대해 말하진 않는다. 또한 가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지도 않으며, 불교건축 역사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적 장면들에 숨어 잇는 지형적, 교리적, 일상적 의미를 되돌아보며 가람의 참다운 가치를 조명할 뿐이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람의 주역들은 관광객도, 재가불가도 아닌 그곳에 주석하는 수행하는 스님들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찰들의 자리를 잡고 건축을 설계한 이들은 다름 아닌 스님들이었고, 긴 세월 가람을 지키고 가꿔온 이들 역시 스님들이었다. 따라서 가람의 진정한 건축적 의미를 찾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

백 개의 사찰이 있다면 백 개의 형식이 있을 정도로, 사찰은 저마다 지형과 교리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대웅전은 어디에 둘지, 산문은 어디에 둘지, 건물들의 배열을 어디에 할지 등은 앞산과 뒷산, 계곡과 물줄기에 따라 달라진다. 화려한 단청이나 거대한 불상과 법당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 강산의 지형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 된 가람들의 모습은 하나의 종교적 표상이자, 건축적 경전이며, 신앙의 거대한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책은 2002년에 첫 출간됐었다. 책이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 사진의 대가인 관조 스님(1943~2006)의 사진들이 동반된 덕분이기도 했다. 스님은 본래 수행자로 마음공부에 매달리고자 아끼던 사진장비를 모두 처분했었지만, 김봉렬 교수의 글을 읽고 카메라를 다시 장만해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천왕문을 지나 불이문으로 이르는 길은 짧지만 길고, 굽었으되 곧아 보이는 끝도 모를 계단이 계속된다. 이 장면은 한국 불교 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한국적 미학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2010년 12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한 범어사 천왕문은 전소했다.)

김 교수와 관조 스님이 만들어낸 책은 사람들에게 '우리 땅에 이런 건축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사찰 건축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는 책이다.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김봉렬 지음 | 관조 사진|컬처그라퍼 펴냄 | 2만원

이은정 기자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



절집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절집에서 만나는 무수한 유형들은 교리적으로나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저자는 지혜장과 나팔수라는 가상 부부를 만들어 절집을 두루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조금씩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유형과 무형의 가르침이 융해돼 있는 절집을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충분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 말한다.

임연태 지음 | 이승현 사진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800원

인연 언젠가 만날



자신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저자는 그 길로 히말라야로 떠난다. 히말라야 첩첩산중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마을에 위치한 누부라 밸리에는 사진 속 주인공인 스칼장 아몽이 살고 있다.

저자는 인도 라다크에서 만나게 된 풍광,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담 등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 보릿가루 식사, 10루피가 가져다 주는 작은 행복들에서 저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현재 자신의 고통스럽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히말라야에서 깨닫게 되며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삶을 찾는다.

이해선 지음 | 꿈의지도 펴냄 | 1만4000원

스님이 풀어낸 근원적 고통과 깨달음의 갈무리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승한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5000원

고통의 시대다. 고도산업사회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으로 상처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명상, 운동, 글쓰기, 여행 등이 급부상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는 승한 스님은 이 시대의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일종의 감성치유 에세이를 펴냈다. 기존 여행서들과 달리 책은 산사기행에서 얻은 수많은 감성 치유법을 두루 아우른 책이다. 길을 떠난 스님은 산사의 풍광과, 그 절에 깃든 옛 스님들의 발자취, 절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낸다. 스님은 절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예불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산사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수행이며 내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상처를 드러내는 치유 방법임을 깨닫는다.

승한 스님은 수행자 이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에 등단할 정도로 유망한 시인이었다. 한 때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던 스님은 스님이기 전에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이었다. 서울 도봉산 석굴암을 시작으로 순천 조계산 송광사까지 전국 24개의 산사를 순례를 책은 산사기행을 통해 근원적 고통과 깨달음의 갈무리를 풀어 놓았다. 시인의 감수성과 수행자의 통찰력이 만나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져 있다.

이은정 기자

즐거움과 활력소를 절집 숲에서 찾아보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지음 | 운주사 펴냄
2만3000원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만을 쫓아온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산림학자인 전영우 교수는 그 대안을 바로 '절집 숲' 에서 찾고 있다. 숲은 이제 문명병으로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음의 평화와 풍요를 제공하는 절집 숲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태소비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저자는 3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사찰의 숲과 나무가 간직하고 지켜온 역사와 선조들의 삶, 그것들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말하고 있다. 왜 절집에서는 소나무 숲을 쉽게 볼 수 있을까, 가장 넓은 사찰림을 가진 절집은 어디일까, 봄의 파릇파릇한 생동감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절집 숲은 어디일까, 걷기 좋고 한적한 숲길은 어디일까 등등 무심코 지나치는 절집의 나무와 숲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며, 인문학적 시각과 생태학적 상상력을 일깨워준다.

각기 다른 풍취와 생태와 역사를 지닌 절집 숲은 현대인의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참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느림과 비움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 ·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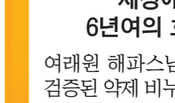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4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5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6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7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8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9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진현종	토파즈
10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쉽고 빠르게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름철 읽으면 속 편해지는 책들

마음을 다스리지 말라니? 응?



'잘 사는'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한다. '잘 사는' 문제에 관한 답은 서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출판 시장에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널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지식들을 통해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책의 내용은 다 남 얘기일 뿐이다. 머리와 마음으로는 분명히 알고, 간절히 실천하고 싶어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저자인 지장 스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략적 사고를 제안했다. 스님은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몸을 다루듯 훈련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만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마음을 훈련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바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 마음의 상태는 조건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기분이 좋으며,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그 상황을 즐기지만 누구는 괴로워한다. 결국 대상이나 현재 상태에 어떤 가치를 부여 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면 마음의 상태는 분명 변한다. 또 아는 게 달라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삶도 달라진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시 보고 아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보고 아는 것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고 아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스님이 제안하는 클리어 마인드&클리어 라이프 전략의 원리는 간단하다. 우선 보고 아는 방식을 바꿔 우리가 알아야 할 당연한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한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과정과 원리를 살핀다.

생각은 순식간에 바뀐다. 우린 화가 났다가도 친구의 진한 장난에 갑자기 웃기도 한다. 스님은 이제까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는 요령을 가르쳐 준다. 스님은 우선 일어나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 짓는 법을 설명한다. 다 내 마음이고 내가 일으킨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그것은 일어나는 마음 상태일 때가 대부분이다. 일어나는 마음의 7할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다.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일어나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을 구별하면 부정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자신과 분리시킬 수 있다. 책에는 바로 이런 비결이 담겨있다.



삽화 · 오영식

마음 바꾸기 전 마음 상태를 만드는 조건 바꾸고

일어나는 마음과 일으키는 마음부터 구분해야

스님이 제안하는 클리어 마인드 전략을 따라하다 보면 현실에서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온다. 첫째는 마음을 다치지 않게 되며, 둘째는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을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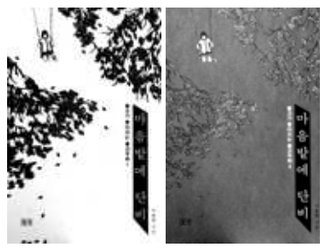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때문에 일상에서 항상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변화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 보고 아는가이다. 보기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실재하는 것들을 보다 더 사실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찰이다.

이제까지 행복과 성공을 꿈꿨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면 지장 스님이 제안하는 클리어 마인드&클리어 라이프 전략으로 변화를 체험해 봐도 좋을 듯 하다.

클리어 마인드&클리어 라이프 전략 | 지장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때 묻은 어른들이 읽어야 할 불교우화



"타인의 처지를 부러워하고, 타인의 지위를 선망하며, 타인의 재산을 갖고 싶은 사람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다."

행복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재력일까, 아니면 명예일까, 갖고만 있어도 든든하다는 땅일까. 지금의 어른들은 너무 빨리 살아왔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전쟁 이후 밥이라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야만 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빨리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했고, 뒤쳐지면 안됐다. 충분히 살지 않았지만, 너무 빨리 살아온 탓에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됐다. 이제는 제자리에 서서 자신을 한 번 뒤돌아봐야 할 때이다.

책은 이런 어른들이 읽어야 할 불교우화이다. 저자는 우화를 어린아이들이나 읽을 법한 동화쯤이라 생각하겠지만, 우화를 정작 읽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어른들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수행 중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은 새를 위해 재채기도 참고 앉아 있었던 수행자의 이야기, 도적에게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고 손을 묶어놓은 풀을 끊지 못해 도망치지 못한 스님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우화는 대게 동물을 통해 삶의 교훈을 가르치며, 어리석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현명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우화를 읽는 즐거움은 그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우화들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성서〉 혹은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 특히 불교 우화가 번성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많은 설화와 우언소설(寓言小說)들이 불교우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저자는 우화만큼 간결하게 삶의 지혜를 제시해주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수백 권의 책보다 짧은 우화 한편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화를 읽게 되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하는 얄미운 아저씨, 코 주변을 날아다니는 성가신 파리도 용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불교우화라고 해서 불자들만 읽을 필요가 없다. 책에는 솔로몬의 지혜, 집나갔다가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 등 성경에서 자주 봤던 내용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260여 편의 이야기들은 불경, 성경, 신화, 심지어 어느 나라의 민요에서 들었을 법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 우화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꼭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번쯤은 읽어야 할 스토리다. 특히 때 묻은 어른들은 이런 저런 고민하지 말고 한번 쯤 읽어야 할 이야기들이다.

마음밭에 단비 | 이용범 지음 | 들녘 펴냄 | 각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지금 이 글 보는 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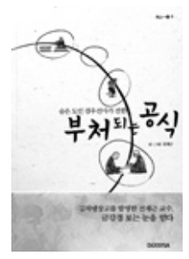
"화두 들고 헛일하지 말라. 부처를 보려면 보는 놈을 보라!"

저자인 서울대 전재근 교수가 한 선사와의 특별한 인연담을 필두로 한, 〈금강경〉의 핵심과 배경을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전재근 교수는 겸우 선사라는 숨은 도인을 만나면서 그의 설법과 가르침을 받은 과정들을 솔직하게 엮어냈다.

서울대 교수불자회인 불이회의 총무를 맡고 있었던 전 교수는 당시 지도법사였던 정무 스님과의 인연으로 우연히 겸우 선사를 만나게 된다. 사찰수련회를 통해 겸우 선사를 친견하고 선사의 설법을 듣게 된 전 교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겸우 선사는 기존에 알고 익혀왔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몽땅 허물어 버렸다. 존경해 오던 한국 고승들을 형편없다 비판하고, 중국의 유명한 조사들을 가리켜 부처님의 참뜻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했다. 심지어 〈금강경〉의 사구게에도 틀린 것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많은 스님들이 화두 들고 수행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선사의 법문에 충격을 받았으나 선사가 토해내는 설법의 발상의 전환이 돋보였고, 그가 휘두르는 비판의 칼날이 너무 예리하다 생각해, 이후에도 선사를 계속 찾아뵙는다.



겸우 선사는 29세 출가해, 88세에 입적할 때까지 한명의 상좌도 두지 않고 줄곧 홀로 토굴생활을 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생활했다. 전 교수는 그런 선사와의 만남을 어렵게 유지하면서, 선사가 입적할 때 까지 그 생활을 지속했다. 스님은 항상 "부처는 멀리 밖에 있지 않고 각자의 자심 속에 있다. 각자 보는 놈이 부처이니, 부처가 되려면 화두를 들지 말고 보는 놈을 봐라. 보는 놈은 어디 있느냐. 한 생각도 없는 일념불기처에 있다. 일념불기처에 이르려면 가지에서 닦지 말고 근본 뿌리에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은 저자와 선사와의 만남이 이뤄진 사찰 수련회 이야기, 겸우 선사가 설하는 〈금강경〉의 핵심과 배경, 선사가 설한 금강경 산림법회, 전교수가 던진 질문에 대한 선사의 장문의 답글, 선사의 토굴에서 벌어진 선사와 나눈 법담, 화두를 둘러싼 토론, 끝까지 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하신 청정한 선승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부처되는 공식 | 전재근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답답한 고민은 즉문즉설로 해결을

스트레스는 왜 생겨날까. 우리가 원하는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고민거리 투성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부부, 자녀, 직장, 건강 등에 얽힌 개인적 고통으로 늘 괴롭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찾고 도를 얻는 것이 가능할까.

"며느리가 아들을 의심하고 못살게 굽니다" "직장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취직 안 하는 외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들한테 말 못할 개인적 고민, 사소할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들에 대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서 명쾌한 설법을 내린다.



이 책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의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기 행복전하기〉를 묶은 것이다. 즉문즉설 법회란 저자가 문답 형식으로 불자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법회로, 우리 삶을 둘러싼 의문을 해결해준다.

아울러 법륜 스님의 쉬우면서도 명쾌한 답변은 우리 일상의 괴로움과 마음의 불편함을 달래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길을 지혜롭게 선택해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 법륜 지음 | 정토출판 | 3만원

이나은 기자

만남의 칠석에서 보냄의 백중까지!

생사참구 生死參究 정진

8월 6일 토요일 – 8월 14일 일요일 (9일간)

잘 살아 왔는가? 지금까지 –
잘 살아 가는가? 지금여기 –
잘 살아 가야지! 지금부터 –

우리 열린선원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칠석과, 선친의 보은과 천도를 기원하는 백중 사이 9일간을 생과 사의 한가운데서 생과 사의 의미를 참구하는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해서 뜻 깊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칠석날은 칠성기도와 함께 동국대 명예교수인 목정배 박사님께 견우직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와 칠석기도의 인연에 대해 듣고 나머지 8일간은 8정도의 가르침에 생사참구 정진하는 날로 삼으며, 백중날에는 무상 법현스님의 생사참구 회향법문과 추선공양을 통해 조상님의 보은과 추선공양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현실생활 속에서,
태어남과 늙어감과 괴로움에 대하여, 죽음이란 필연적인 일대사에 대하여,
참구하고 명상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생사인연 생사의미 생사가치 찾으소.

◆ 8월 6일 오후 4시 : 칠석법회 - 목정배 교수님 초청강연 (만남의 오만가지 인연)
◆ 8월 14일 오후 4시 : 백중법회 - 법현스님 특별주제 법문 (팔정도로 본 생사참구)
◆ 8월 7일 ~ 13일(7일간) 매일 오전 11시 - 법현스님 지도 (팔정도로 본 생사참구)
◆ 문의 및 접수 : ☎ 02)386-4755

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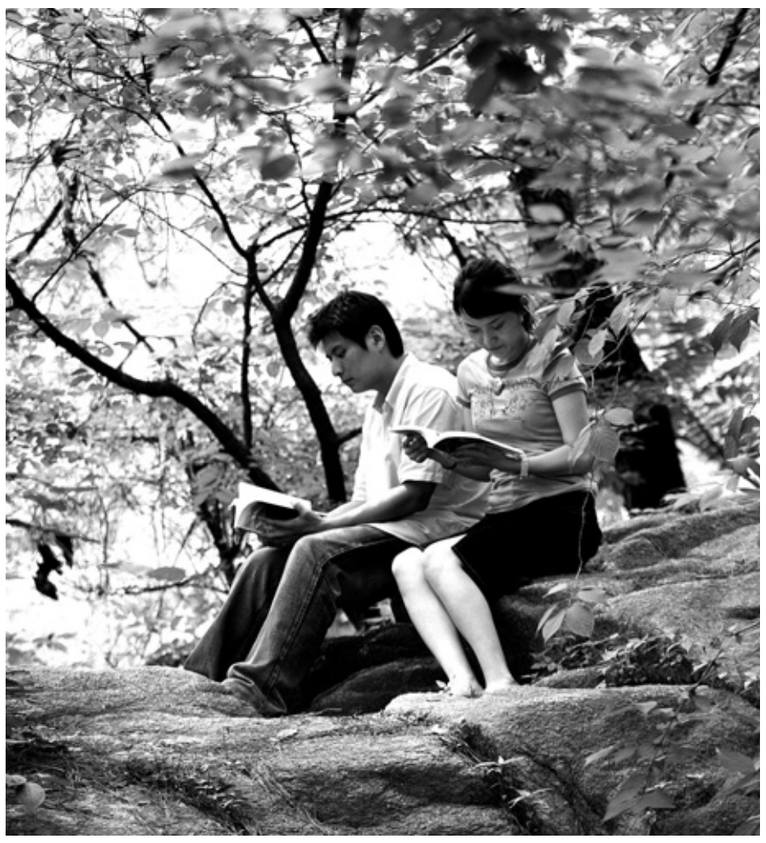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교출판인이 추천한 '올여름 휴가지에서는 이 책을…'



조선시대 정조는 여름철 피서법으로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독서가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불교계 출판인 5인이 여름철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을 선정했다.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지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책, 불자라면 불교의 식견을 넓혀주는 인문학 서적까지 다양하다. 일상에서 탈출해서도 뭔가 허전함을 느낄때, 휴가가 보람차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독서로 허전함을 달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책들은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30쪽 만 읽어도 삶의 지혜를 더 하나 얻게 해준다. **정리=이나은 · 이은정 기자**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 스님

선방일기 | 지허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9800원

법정 스님의 수필과 더불어 30년 넘게 불교계 최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지허 스님의 책이다. 모두 2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전개되며 철저히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선승(禪僧)의 존재감과 눈물나게 인간적인 수행자의 두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종교나 연령을 초월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스님은 사춘기 | 명진 지음 | 이솔 펴냄 | 1만3000원

책은 명진 스님이 봉은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일요 법회 때마다 신도들에게 법문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40년 동안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어온 명진 스님. 스님은 '마음에서 힘을 빼라!'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오랫동안 익혀온 지식과 정보, 길들여져 있던 습관,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 말한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참선은 신비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요, 깊은 산중의 선방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수행이라고 말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사기순 불광출판사 편집부장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 법상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800원

그동안 수행과 명상, 자연과 여행을 주제로 쓴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법상 스님의 히말라야 쿰부 트레킹의 내용을 담았다.

법상 스님의 여행기인 이 책은 편의시설도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의 산속을, 그것도 해발 3000~5500m의 높은 설산의 기슭이나 봉우리까지 직접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걸어 올라가며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삶에 대한 지혜로운 사유와 사색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섬세하게 담아냈다.

여행서이자 삶의 지혜를 열어주는 최고의 인생가이드북이란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가듯,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트레킹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 '홀로 걷는 트레킹을 통해 명상하는 법' '히말라야에서 만난 대자연의 장관' '트레킹 기간 중 만났던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과 바람, 꽃, 강' 등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이 간결하고 빛나는 필치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읽어 가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스님을 발자취를 따라만 가도 마치 히말라야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이 든다. 스님이 직접 담아 온 히말라야의 자연, 사람, 꽃, 동물 등 150여 컷의 사진도 생생한 감동을 더해준다. 또한 부록에 '법상 스님께 묻는 트레킹Q&A'는 트레킹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히말라야를 꿈꾸는 이들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통해 히말라야의 행복한 일상을 전해주고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인도미술사 | 미야지 아키라 지음 | 김향숙 · 고정은 옮김 | 다할미디어 펴냄 | 1만8000원







통사적인 입장에서 인도미술사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인도미술이 어떻게 형성, 변화, 발전했는가를 탐구했다.

부록에 사진과 도면 목록을 수록해 인도미술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윤창화 대표는 "물론 인도미술이라고 한다면 불교 · 힌두교 · 이슬람 미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미술이 50%를 차지한다. 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이 읽기에 좋다"고 말했다.

불교미술의 해학 | 권중서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8000원

불교미술품 속에 들어 있는 해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종교미술, 불교미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엄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찰의 구석구석을 눈여겨보면 조형물에는 해학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천왕 발밑에 깔려서 곧 죽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악귀이다. 이 조각은 사천왕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폭소가 나오기도 한다. 불교미술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붓다와 명상 | 임승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2000원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 서술된 책이다. 근래 위빠사나 수행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각 지도자마다 조금씩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유는 경전에 바탕하기보다 주관적인 체험 위주로 지도하기 때문이다. 책은 붓다로부터 기원하고 있는 유래와 갈래, 명상의 교리적 철학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불전에 바탕해 서술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시열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운주사 대표

선의 황금시대 | 오경웅 지음 | 김연수 옮김 | 한문화 펴냄 | 1만5000원

인간 정신의 위대한 경지를 보여준 선의 역사와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다. 달마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선의 황금기 선문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이란 깨달음에 대한 중국식 해석이다. 그리고 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 존재의 중심에 깊이 닿을 수 있는 내적인 지각 능력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시열 불출협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선의 황금시대를 연 당송대 선사들의 삶과, 선에 내재돼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선의 근본정신을 보여주는 책이다. 선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해주며, 특히 이런 선에 대한 설명이 재밌게 설명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강조했다.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500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은 그 해답을 부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2010년 지금,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해답이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에 담겨있다.





책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불교에 문외한인 초보자들에게도 유익하다.

김시열 사무국장은 "법륜 스님은 청년들이 가장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스님이다. 수행과 신행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법륜 스님이 지은 이 책은 자기 삶의 모태고 되고 있는 붓다의 모습,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삶과 고민, 사상 등이 누구나 읽기 쉽게 엮어져 있다"며 추천이유를 밝혔다.

최승천 한국불교언론인 후원위원회 위원장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저자 목경찬 선생이 초보불자 신행입문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대중 불교서적이다. '불교문화 에피소드'라는 부제와 같이 사찰 관련 이야기들을 풍자와 비유를 곁들어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또한 남다른 신심으로 사찰을 재해석해 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머리가 아닌, 발로 쓴 글이라 책을 읽다 보면 이야기 현장에 마치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내 인생의 절밥 한 그릇 | 성석제 외 49인 지음|뜨란 펴냄 | 1만2800원

소설가 성석제, 구효서 등과 시인 이해인 수녀, 신달자 등 모두 49인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다채로운 감동을 전해준다. 종교를 떠나 밥 한 그릇의 소중함, 소박한 마음이 주는 평온함 등 절밥을 마주하며 느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최승천 위원장은 "정갈하고 따뜻한 절밥을 앞에 두고 소유와 존재, 자비와 생명, 비움과 충만함에 대해 성찰한 글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며 "종교를 떠나 절밥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감동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사찰 사진 전문가 하지권의 아름다운 절집 풍경도 압권"이라고 말했다.

출가 10년 나를 낮추다 | 마르틴 배철러 지음 | 뜰 펴냄 | 1만2000원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10년간 출가생활을 한 프랑스 여성의 수행기다. 서양 여성이 한국의 비구니가 돼 남긴 글은 흔하지 않다. 한국 비구니들의 은둔성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치열한 비구니 수행 전통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게도 했다. 역자에 따르면 미국의 불교학도들이 "도대체 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라고 감탄하면서 읽을 만큼 독보적인 책으로 기록된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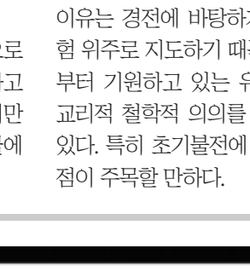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의식 무료 학인모집

기초과정 속성 3개월 완성
바라 작법무 3개월 수료
이론 및 실기, 사물 직강, 회심곡, 화청, 천도재, 49재, 점안식, 산신재.
승려분은 무료, 일반인 10만원
010-3193-3689
부산 금정산 해인사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삼성(三聖)기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불여 주세요.
부모의 아름다운 삶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칠성기도 : 자식의 총명한 지혜를 위해 (화요 불공).
독성기도 : 자식의 반듯한 인격을 위해 (수요 불공).
산신기도 : 자식의 환경에 적응을 위해 (목요 불공).
한국 유일의 삼성기도 전문가 스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시며, 천룡, 인통, 지통 등 공부에 두루 통탑 하신 화엄벽력스님께서 정성을 다해 기도 하여 드립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6 용화사
문의전화: 02-957-9882, 휴대폰: 010-7387-2833

〈법문. 축사. 연설문. 법문집〉

중견작가가 직접 쓰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형식의 법문.
※ 장애스님 – 지체 전액 무료 30년째
※ 활인공덕은인 – 1억에 월200만 보장 담보가능
전화: 010-9773-4909
http://cafe.naver.com/jobcoachings



전국서점에서 구입(주문)해 주세요!!
大山도인스님 010-5105-5000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신병치유 및 대화
031)666-7732
010-5472-5928
청운사 경담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공 동 체 구 성

불교가 변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
누구나 동참
연락 바랍니다.
010-6243-3527
세상에 힘없는 사람에 꿈을!

양 도 공 고

법원등기된
전국불교승가종연합회
불교법인단체종연합회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011-412-8040
법 광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부산 일광, 55세 이하
010-3553-0993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가족같이 마음을 함께 하실분
▷부산 연산동
019-526-77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가평
031-585-4626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야한다.
– 법구경 –
영가천도도량 약천사 협찬 02)3391-85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아주 특수한 기도법

☎ 032)664-0048 / 011-741-0867

노스님 공양주 하실 분

특히 전라도 음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은 더욱 좋겠습니다.
02)353-49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주
010-3691-5865

절에서 스님과 평생 같이 기도하며 여생을 보낼 분
(처사님이나 보살님, 부부환영)
공양주와 사무보살 구함
▷서울 중랑구
010-4664-2313

불자님으로서 본인 또는 자녀 및 친척중, 신병으로 고행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무보시로서 치료함.
(신병, 우울증, 정신병 전문)
054)338-5353. 336-2828
011-814-6677 법륜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하실 분.
02)3391-8523 / 011-9002-8523

큰 법 당 건 립 불 사

"절을 짓고 탑을 쌓고 부처님을 공양한 사람은 인간이나 천상에서 큰 복을 받으리라"
◆ 평생 절에서 보내실 분 (큰법당 시주) ◆ 스님 되실 분 (남,여 나이불문)
◆ 종단 등록하실 분 (포교당, 토굴)
세계불교 지장선종 총본찰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
054)383-8553 /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www.jijangsw.com cafe.daum.net/jijangsw

빙의,불치병(청소년빙의100%완치)

영적장애, 신병, 무병, 우울, 불감증, 중풍, 업병으로 인한 각종 암(유방암,자궁암), 불면증, 이명, 귀접, 불임, 원인모를 질병, 악몽, 가위눌림, 팔 · 다리마비, 신병으로 고통받는 분, 알콜중독(바람, 도벽), 구병시식, 영가천도 낙태영천도 업병 100% 벗어날 수 있음.
(영가천도,구병시식) 「퇴마비법천수」(신기있는 보살,법사 대상)
약사영험가피내린 금산스님 김해 약천사
010-4590-4809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佛敎儀式 (범음, 범패) 學人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www.kyksb.co.kr
승복 · 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100m 즉시법회가능함

- 위치 : 경남 김해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28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부지 : 300평 (종교용지)
- 법당 : 30평 (목조, 단청)
- 요사 : 40평(현대식)
- 기타 : 산신각, 마애석불등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가능)
- 특징 : 도심인근의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아주 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80평
- 산신각: 15평(목조, 닷집)
- 기타 : 석불(24자) 연못, 석등
- 가액: 5억 2천만원
- 특징 : 기암괴석과 산세가 어우러진 대가람임(20억 불사)

좋은인연 됩시다 소장하고 계신 그림 도자기 등 귀중한 물품을 무료감정해드립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 서울 010-5828-0455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절충가능)

010-2034-7799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절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법당(조립식)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 세면장,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범일동
- 보림극장 뒷산북도로
- 대지 : 98평
- 건물 100평
- 법당, 요사채, 텃밭(도심속 산사)
- 가액: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5000만원)

010-2563-55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버스종점앞 큰길
- 평수 4층 건물의 3층 20평 법당
- 4층 15평 요사채(옥상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모든시설완벽

051)638-11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 구봉산 등산로, 전망좋음
- 대지 60평, 건평 90평
- 2층법당,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대출 9천만원)

010-6668-2249
042)584-2249

포교원(법) 안내

- 위치 : 창원시 봉곡동 2층 30평가량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55)277-0146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주방,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월1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최고위치, 시설 신설포교원안내

- 부산 해운대 신도시 인구 밀집지역
- 7층 건물에 6층 60평, 전철역세권, 특급시설
- 법당 3자반 개금 삼존불, 원목 수미단, 최고급음향시설
- 신중단, 영단, 호신불 250불, 공양실, 방사3개
- 모든 것이 장엄하게 완벽히 구비되어 있는 포교원
- 인연있고 능력 있는 스님은 대성할 수 있는곳
- 전세 2000만원, 월세 1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4079-799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 대지 464평
- 콘테이너 건물 2동
- 인법당 삼존불
- 청정하고 조용한 생기복덕 명당
- 유실수, 가시오가피, 두릅도 있음
- 가액은 융자 7천5백만원포함 하여 1억 5백만원(절충안됨)

053)617-0666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 건물 두채, 임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시설비포함 4년, 8백만원

011-9393-4965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40평, 건평 30평
- 삼존불, 후불, 산신,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도시가스
- 양도가 : 1억 6천 5백만원 (6천 5백 융자)

010-4925-3779
010-2202-22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2억 7천

011-9901-35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교원 안 내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이룩하여,스님이나보살님께양도

010-8667-1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즉시 입주 가능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08-4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터미널옆
- 가게 2칸 합쳐 만듬
- 법당완비, 방3칸, 주방, 화장실 몸만오시면 됩니다
- 금달마 수십장 포함
-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7711-7926

토지 암자 안내

- 위치 : 강화읍(토골까지 5분거리)
- 총평수 : 150평 중 1층-요사채, 2층-법당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2500만원 중 반을가격 700만원
- 저렴하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양도합니다 • 주차시설완비

032)932-0350
010-9413-90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봉천동
- 평수 : 50여평(3층 전체)
- 시설 : 삼존불,신중,산신탱화 등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2)887-2138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
- 대지 230평, 법당25평
- 공양간 25평(방1, 욕실)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 가액 : 상담 후 절충

054)334-66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8681-157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성북구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10-3306-06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
- 삼존불,후불,신중,지장,산신,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 법당 15평, 스님방 5평, 주방, 시설완비
- 수원역에서 5분거리
- 경기도청 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무료제공

031)243-4872
010-9017-4872

토지 안내

-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 계획 관리지역 전 : 426평 포장도접, 전기, 계곡
- 주변환경 깨끗하고 혐오시설 없음
- 가액: 2500만원

010-6460-1316

포교원(급)월세,전세

- 수원시외버스터미널 1KM 주택가
- 지하 약 50평
- 법당1, 스님방1, 스님 샤워실1
- 공양실1, 샤워실1, 창고1
- 칸막이 모두 되어 있음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5중앙하이츠빌라 B01호 상가

011-279-3538
010-3391-353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일안면
- 대지 48평, 전답 100평
- 도로접, 뒷에는 산
- 양명한 남향
- 가액 2천만원
- 절충안됨

053)615-06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시내 근교 야산)
- 법당 10평, 산신각
- 전답 약 1000평
- 요사채 2동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5317-773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앞)
- 2층 약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인연되시는분 시설비: 상담 후 형편에 맞게 절충가능

02)955-2266
011-375-484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해도동
- 최고위치시설, 바로 뒤 시장
- 25평 방1개, 화장실, 주방(2층)
- 불보살님 및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72-543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시 세 : 11억 5천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건평 : 500평 신축
- 전각 : 4채
- 가액 : 33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도심속에 사찰안내

- 위치: 청주 상당구
- 대지 62평, 요사채 30평, 기와건물법당 27평
- 마당 작은 연못, 옥상휴게소, 방5, 거실음향실
- 주지접견실, 최고시설 3억, 직접실사방문
- (불교대)2층 50평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최고시설, 모든집기포함,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5883-2255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 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내부관리상태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좌2동 1328번지 영남아파트 상가
- 약 9평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6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 비구니스님 최적

010-9243-83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현대식건물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불심의 고장!
-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몸만 오시면, 경제가 살고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1,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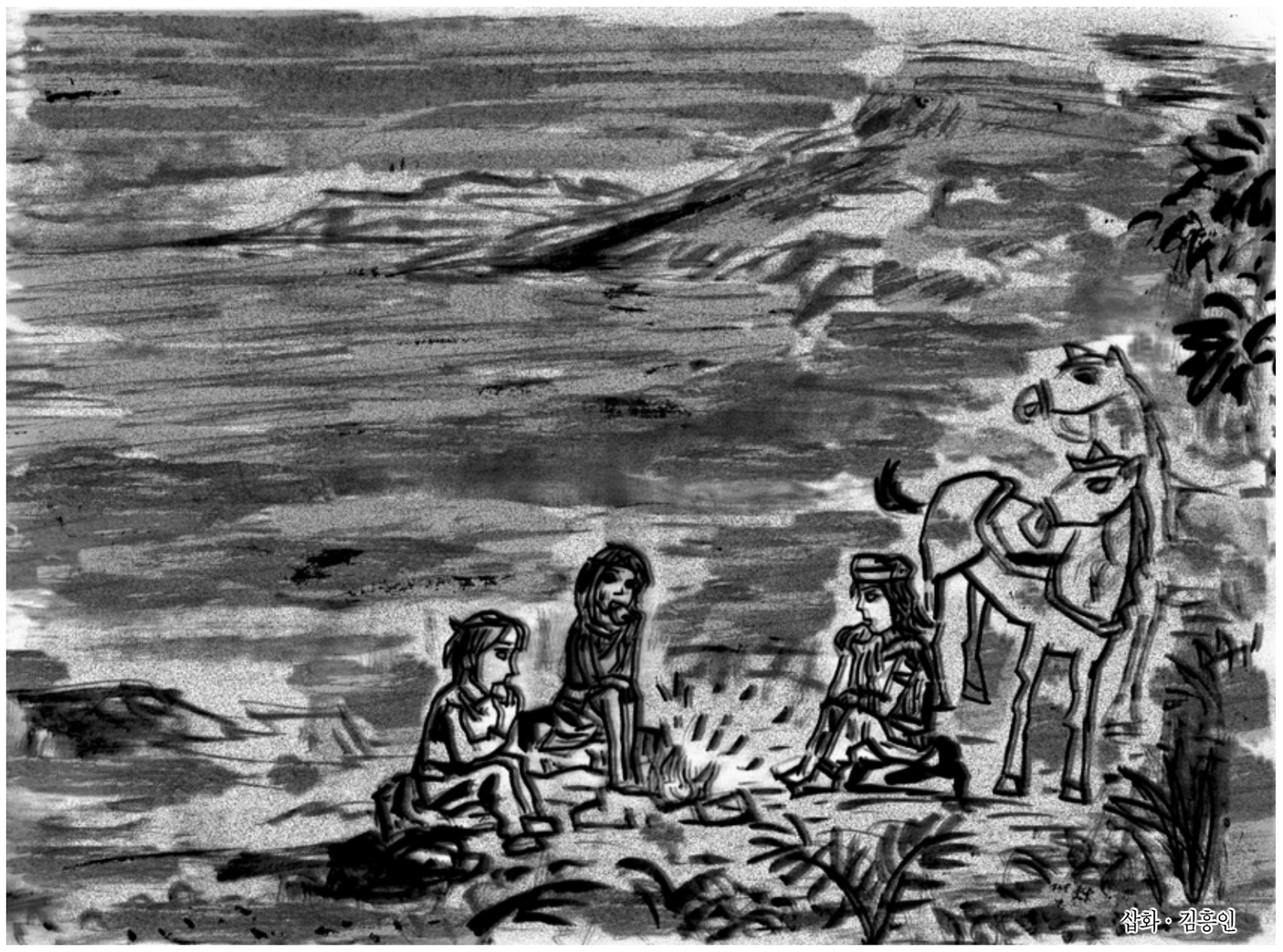
010-6892-3999

불 꺼지겠다. 왜 또 한숨이야?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



삽화 · 김홍인

공중에 우뚝 솟아있는 카일라사산 정상, 테드모는 루드라가 명상하곤 하는 자리 앞에 서있었다. 그곳엔 여전히 아그니 나무가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다만 신이 없을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신의 거처가 있는 공중정원 쪽을 다시 한 번 올려다봤다. 루드라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라지는 일은 간혹 있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떠나 있거나 명상을 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테드모는 루드라가 부르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이 어디에 있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테드모는 보고할 사항이 생길 때마다 난감해 하며 이곳으로 올라와보곤 했다. 지금도 그랬다. 신이 언제 돌아와 있을 지 모를 일이었다. 결국 테드모는 돌아섰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구름 위로 뛰어내리듯 몸을 날렸다.

한편 카일라사산 산의 북쪽, 우윳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흔돈의 대양에는 아난타라는 뱀이 커다란 똬리를 튼 채 마치 섬처럼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평소보다 긴 수면기를 보내는 중인 크리슈나가 누워있었다. 아난타의 생김새는 거대한 코브라와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머리를 천 개나 달고 있어서 매우 기이하게 보였다. 아난타는 자신의 그 수많은 머리들을 지붕처럼 만들어 수면기를 보내는 크리슈나를 보호했다. 흔들림 없는 천 쌍의 눈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눈이 드물게 흔들릴 때는 거대한 독수리 모양의 새 가루다가 출현할 때였다. 역시 크리슈나의 새인 그는 아난타를 제외한 모든 뱀의 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천 쌍의 눈이 동시에 흔들린 이유는 가루다 때문이 아니었다. 주인의 머리맡에서 멈춰있던 금색의 수레바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미소를 짓는 듯 살포시 올라가 있던 크리슈나의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난다의 허리춤에 들어가 있는 사르나트의 바퀴에도 그와 같은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니 일행이 모래 바람을 뚫고 잠부의 동쪽 끝 바다에 도착한 참이었다.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시간이었다.

"벌써 해가 지잖아. 데비, 이 자식! 너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알아! 왜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게 해?"

그러나 데비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말들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찬 무니가 난다에게 푸념하듯 말했다.

"아무튼 저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 저번에는 열흘이나 사라졌었잖아! 쟤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완전 애물단지라니까."

"왜 그래! 이름까지 자기가 예쁘게 지어줘 놓곤. 불쌍한 아이잖아. 게다가 기억까지 잃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도 볼 수 없다구."

친구의 말에 다시 데비를 쳐다보던 무니가 말했다.

"그리고 보면 신기해. 다른 건 몰라도, 꼭 자기가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나타나잖아."

난다 역시 "응"하면서 데비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말이야. 데비 처음에 봤을 때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거 같지 않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달라졌어. 처음에 봤을 때는 한 여섯 살 쯤으로 보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한 두어 살은 훌쩍 큰 거 같다구."

"원래 애들은 빨리 자라잖아."

무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말에 난다가 웃으며 대꾸했다.

"너도 애잖아. 왜 넌 그대로냐?"

무니보다 목 하나는 더 큰 난다가 괜히 그를 내려다보는 시늉을 하며 놀리듯 말했다. 무니는 "이 자식이!" 하며 주먹을 날리는 시늉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숨이 막힌다는 듯 바다를 쳐다봤다. 아주 멀리,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잠겨가던 태양이 이제 막 완전히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깔깔거리는 데비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난다가 조그만 주머니에서 종이버터를 꺼내 불을 붙이자, 무니가 가방에서 조그만 빵 세 개와 물병을 꺼냈다. 낮에 실컷 풀을 뜯은 칸타카와 남카라고 이름 붙인 또 한 마리의 말, 그리고 팔짝팔짝 뛰며 돌아다니던 데비도 불 옆에 와 앉았다. 무니가 난다에게 물었다.

"종이버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응, 아직 걱정 없어. 다만 이 근처에선 재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껴야겠지. 오늘은 이것만 쓰고 그냥 자자."

그들은 종이버터가 타닥타닥 타면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며 식사를 시작했다. 주위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무니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소리였다. 언젠가 방향을 잘 못 잡아 남쪽 끝 바다에 다다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지금 같은 밤이었다. 주위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같은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러고 보니 얼음의 성에 갇혀 있을 때는 연못을 바다라고 착각했었지.' 언제까지고 생생할 거 같은 그 밤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 전 일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일 같기도 했다. 그때 그의 몸 쪽으로 무거운 뭔가가 툭하고 쓰러져 왔다. 어느 새 잠이 든 데비였다. 그 모습을 본 난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그래도 늘 네 옆에 가서 자잖아. 살아나서 처음 눈을 마주친 사람이 너이기 때문일까."

"그냥 내가 만만한 거야. 아무튼 귀찮은 녀석이라니까."

"그래도 데비 때문에 검 조각은 물론 아루나검까지 찾았잖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데. 얘가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찾았을 거야."

무니는 옆에 놓아둔 짐 꾸러미에서 검을 꺼내들었다. 일곱 마리의 말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칼날이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무니는 그 말들의 머리 부분을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어 갔다. 그 하나하나마다에는 각각 다른 모양의 홈이 패여 있었고 마지막으로 태양을 새긴 검의 자루 부분에는 다른 것들보다 좀 더 큰 홈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 홈에서부터 칼자루 끝까지는 마치 빛을 이끌어나가는 듯한 느낌의 여신이 새겨져 있었다. 이 아름다운 검은 수리아의 검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물론 나머지 검 조각들을 모두 모은 후의 일이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세상에 단 한 명 뿐인 진정한 연금술사도 찾는 일도 남아있었다. 그 주정뱅이에 도둑질까지 한 나쁜 사기꾼은 분명 아닐 것이다. 칼을 도로 집어넣고 있는 무니에는 언제나처럼 뭔가를 읽고 있던 난다에게 말을 걸었다.

"그나저나 이제 남쪽 끝인데, 비데하는 어디 있는 거야?"

"저번에 말했잖아. 바다 건너라고."

"뭐? 바다 건너? 네가 언제 이야기했어?"

"우리가 쿠샹의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난다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무니를 쳐다봤다.

"넌 도대체 내 이야길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랬던가. 무니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긴 그 때 자신은 얼음의 성 후유증을 심하게 앓던 중이였으니까.

"그럼? 그럼 비데하는 어떻게 가? 배라도 타고 가나…."

무니는 뭔가 떠오르는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 도둑놈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구나."

무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이냐는 듯 난다가 그를 쳐다봤다.

"아니. 그 가짜 연금술사가 그랬거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아냐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리고는?"

"아니 뜬금없이 너하고 내 나이랑 생일을 물어보잖아."

그 말에 난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서 알려줬어?"

"아니! 그런 이상한 놈한테 그런 걸 왜 알려줘? 하여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무튼 잡히기만 해봐, 내가만 두나."

무니는 생각만 해도 또 화가 나는 지 씩씩댔다. 그러나 난다는 연금술사가 그들의 생일을 물어봤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아무튼 그때 네가 가방을 바꿔놓았기에 망정이지. 유리 영감의 공책도 분명 그 녀석이 가지고 있을 거야."

무니가 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하지만 난다는 다시금 스스로를 연금술사라고 부르던 그 자의 정체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사기꾼이긴 했지만, 리시의 예언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걸 훔쳐가려 했다는 것은 그가 예사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매우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는 정말 연금술사일 지도 몰랐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불 꺼지겠다. 왜 또 한숨이야? 혹시 바다를 건너는 일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그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0-3406-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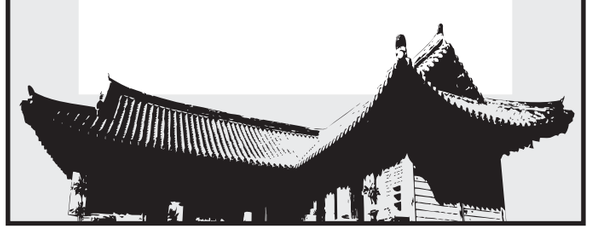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⑰

누실명(陋室銘)



남농 허건(南農 許建)의 상춘도(賞春圖). 근현대 서화의 대가들은 산골 깊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초간모옥(草間茅屋)을 그리고 좁은 마루에 앉아 매화를 관상하거나 햇볕을 쬐고 앉은 문사(文士)를 그렸다.

강릉 사천 바닷가 근처, 가파르지 않은 대로옆 호젓한 길을 조금 올라가 야산 중턱에 가면,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외가이자 생가인 애일당(愛日堂)터에 세워진 초라한 석비가 하나 있다. 누실명이라 쓰여진 석비에는 교산이 나이 마흔살 때 쓴 시가 적혀있다.

중국 당대(唐代) 의 문학가인 유우석(劉禹錫)은 그가 안휘성자사(安徽省刺史)로 있을 때 그가 거처하던 방의 '비좁고 초라한 방' 이란 뜻의 누실(陋室)이라 짓고 그 이유를 적는다. 이 말은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인 안회(顔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칭찬해서 말한 "덕(德)있는 군자가 그 나라에 있으면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누(陋)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누실명을 본 따 교산은 아래처럼 같은 제목의 시를 쓴다.

"방 너비는 열 홀(세평 남짓)쯤인데/ 남쪽으로 문 두 짝을 내니 /한낮 햇볕 들어와 밝고 또 따스하다./ 집은 비록 벽만 섰을지라도/ 책은 고루 갖추었으니,/ 남은 것은 잠방이 입은 이 몸,/ 탁문군(卓文君, 문장가 사마상여의 아내)을 짝할 뿐일세./ 반 사발 차를 마시고/ 한 자루 향 사르며/한가로이 숨어 살면서/ 천지고금을 마음에 품었노라. /남들은 누추한 집이라 하면서/ 힘들어 어찌 살까 걱정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신선들이 사는 궁궐일세./마음은 평안하고/몸은 편안하니 /누가 감히 누추함을 말하는가./내가 누추하다 여기는 것은 /몸과 이름이 함께 썩어 가는 것일세. /원헌(原憲,또는 자사子思, 공자의 제자)은 쑥대로 엮은 집에서 살았고,/ 도잠(陶潛, 도연명)도 아주 작은 집에 거했다네./군자가 산다면,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이 시는 또한 뛰어난 다시(茶詩)이기도 하다. 이 시를 통해 교산이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인(茶人)으로서 차를 음미하며, 불경같은 경서를 가까이 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조선조에 몇 안되는 선비다인이기도 하다.

불경을 외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라 하니, 스님들과 가까이 하면서 차를 배웠음이 틀림없다. 그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서(惺所覆瓿藁序)에 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두보시집을 지니고 낙산사에 올라가 삼년을 살다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불교는 그의 삶의 지침이었다.

동양 삼국을 전부 보지 않더라도 근현대의 서화의 대가들은 심심산골 깊은 곳에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초간모옥(草間茅屋)을 그리고 좁은 마루에 앉아 매화를 관상하거나 햇볕을 쬐고 앉은 문사(文士)를 그리고 있다.

허균의 생가에 있는 석비 '누실명'
누실명은 안빈낙도를 칭찬해 나온말
근현대 서화의 대가들도 초가집 그리며
그 곳에 앉아 자연을 벗 삼아

기억나는 우리의 대가들 만해도 의제 허백련이라든지, 심산 노수현같은 육대가를 비롯해서, 근래에는 소산 박대성 선생이 누옥(陋屋)을 그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상당수 남아있는 대가들의 화첩에 보면 거의 초가집을 그리고 그 곳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는 선비나 스님을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산다면 명산이요, 절이 누추하다고 해도 세속을 초월한 수좌나 덕망있는 학승이 산다면, 명찰이라는 점이다. 수백억을 들여 불사를 벌여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지어 많은 신도들을 불러 모은다 해도 명리(名利)를 지운 선승이나 맑은 스님이 없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토굴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매화향기 그윽한 산사에서 맑고 향기로운 차 한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욕(物慾)을 벗어난 말없는 스님들은 언제나 그리운 도반들이고 선지식들이다. 사판(事判)으로 십여 년 이상을 쉴 새 없이 살다보니, 언제나 그리운 것은 하늘과 숲이 보이고, 멀리 물가에 기러기 나는 마음의 고향뿐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욕망의 덫

욕심 부리면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다.
어두운 눈과 마음으로 허상을 쫓다보면 파멸이다.
한 생각 접을 때 더 큰 세상이 보인다.
세상의 중심에서 소풍을 즐겨보자.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㉑ 조선 운곡충휘 선사의 '중봉사에서 월성대윤 동악 이선생에게 부침(中峯寺寄上月城大尹東岳李先生)'

울림에 조차 고요함을 보태다

中峯寺在啼猿外 (중봉사재제원외)
香閣寥寥出定遲 (향각요요출정지)
帶月小梅寒有影 (대월소매한유영)
侵雲喬木老無枝 (침운교목로무지)
門開絶頂瞻天近 (문개절정첨천근)
戶瞰平川覺地卑 (호감평천각지비)
林徑有誰來問疾 (림경유수래문질)
獨敲金磬夕陽時 (독고금경석양시)

원숭이 울음 밖에 있는 중봉사
누각은 고요하여 선정에서 나옴이 더디다.
달을 띤 어린 매화 차가워 그림자 있고
구름을 능멸한 키 큰 나무 늙어 가지 없네.
문을 산꼭대기에 여니 하늘 가까움을 보고
집에서 평천을 굽어보니 땅 낮음을 깨닫네.
숲길에 어떤 이가 와서 문병하나니
홀로 석양에 경쇠 두드릴 때라네.

운곡충휘(雲谷沖徽;?~?) 스님의 171수의 시만 수록된 〈운곡집〉은 당시 문인으로 알려진 유자들과 수창한 시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발문을 쓴 신익성(申翊聖)은 이수광이나 이안눌과 같은 이들이 서로 수창한 뛰어난 시인임을 인정하면서 당인(唐人)의 풍치가 있는, 선을 시로써, 시를 선으로써 한 스님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선시일여(禪詩一如)의 시관(詩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는 당대 시문에 뛰어나 이태백에 비유되기도 하는 동악 이안눌(東岳李安訥;1571~1637)에게 부친 중봉사의 누각에서 보는 자연의 풍경과 그 안에 깃든 자신의 삶을 읊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짐승소리 조차 끊어진 중봉사의 고요한 누각은 그 고요함이 깨어지기 쉽지 않음을 보였다. 함련에서는 찬 그림자 띤 어린 매화와 늙어 가지 없는 높이 솟은 나무로 누각 주변의 고요함을 더했다. 경련에서는 다시 하늘과 땅의 대치된 소재로 시선을 수직과 수평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미련에서는 해질녘 경쇠 칠 때 누각의 고요함을 흔들어 깨우는 인적소리로 중심점을 전개시켰다. 그 울림조차 고요함을 보태는 스님의 시적 구상이 바로 진정 선시일여의 경지가 아닌가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신국판 변형, 304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유동영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江湖 12 선찰禪刹 순례기

행복한 禪여행 글 · 정찬주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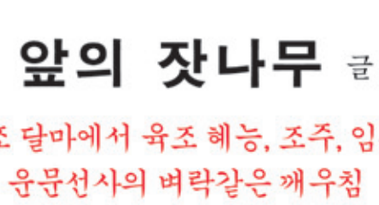
불교적 사유로 웅숭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원장 스님과 그 재가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빼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안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신국판 변형, 336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글 · 정찬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제, 운문선사의 벼락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례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한 禪 입문서

미들하우스

tel. 02. 333. 6250 미들하우스



대행 스님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조상의 길을 닦아 드리는 의미

문) 사람이 죽으면 7·7, 49일 동안 그 길을 닦는다고 그러고 해년마다 촛불재나 백중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마음의 불을 밝혀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닦지 않는 거와 그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답) 차이가 많죠.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이 몸속의 업보, 그 자기가 산 것대로, 지은 것대로 업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임신이 되려고 하면 그 업보와 더불어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 있는 집에 또 업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도리를 모르면 어떤 의식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 있는 줄만 압니다. 살아 있는 줄 알고 자식들한테, 이 집 저 집 다니던 의식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아, 부모가 왔는데도 대적도 없고 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들은 척 만 척하고, 봐도 본체만체하고 아, 이러니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래 가지고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냥 화를 내고 발칵 뒤집으니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연성, 그것이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됩니다, 그건 또.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식구, 친척, 이런 데로만 다니면서 백 년이 가도 그대로고, 그렇게 그 집안 내에서만 뱅뱅 돌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개를 기른다든가 소를 기른다든가, 짐승을 기른다든가 고양이를 기른다든가 하면 또 다시 인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잠자리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잠자리를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자기 차원이니까.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천도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자기 업식들이 마치 그냥 뱀으로 보인다든가, 독사로 보인다든가, 짐승으로 보인다든가, 귀신으로 보인다든가 그냥 모든 게 그렇게 늘비하게 쫓아다니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 건너 보려고 애를 써도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즉, 강을 건너야 모든 업식에서 벗어날 텐데 강을 아무리 건너려 해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 죽을까 봐. 뱅뱅 돌아서 숨어 다니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제.

요즘은 비행기도 하도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 뭐 비행기도 그 마음의 의식이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뭘 하고 안 타면 뭘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지마는 사람의 생명 근본 자체가, 소용돌이가 돌아가는 것을 불바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합니다. 타 죽을까 봐, 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간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모 조상들 제사를 지낼 때도 자손이 음식 같은 걸 이런 걸 다 차려 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손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찹쌀로다가 떡 하나 둥그렇게 해 놓든지, 요즘 말로 케이크 둥그렇게 하나 해 놓든지 해 놓고 향 켜 놓고 초 켜 놓고 그리고 물 한 그릇만 떠다 놓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조상 자체가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하는 분들은 앞으로 조상 제사 지내는 것도, 인제 찹쌀로다가 이렇게 부치지 않습니까? 부쳐서 한 접시 해 놓고 지내도 됩니다, 이 공부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것이요, 자손도 이 도리를 모르고 부모도 그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고, 그 의식만 남아 있다면 백중 때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다 허깨비 장난이라고 아주 험담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실되게만 하신다면 그게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안에서 딱 감응이 옵니다. '야! 참 기쁘구나!' 하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여북하면 아니, 산 사람처럼 구질구질하게 먹고 똥 싸고 이러는 거 하겠습니까? 그 뜻으로 우주 전체 삼천대천 세계를 한꺼번에 떡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실천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오히려 그냥 집안이 깨끗해지는 도리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상 차려 놓고 그것만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는 마음과 더불어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니게 거기다 맡겨 놓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안에 전체 들어 있는 게 자기 게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넉넉지 못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겠습니까? 조상들을 그렇게 승천하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는 부모 은공을 갚기 위해서고 아래로는 베풀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아무리 좋은 데로 보내 주시오 해도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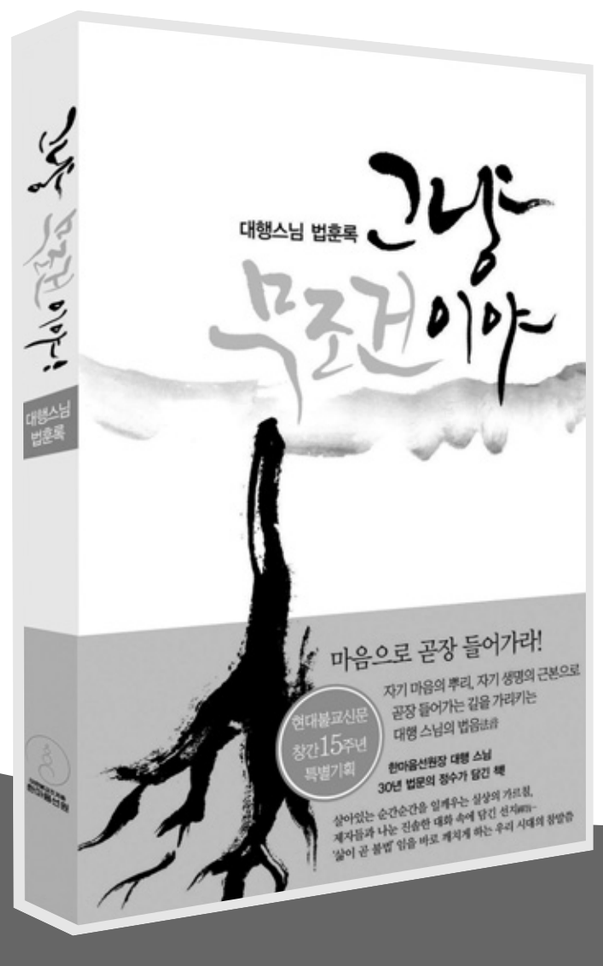
무명천이 실재하는 건지요

문) 스님께서는 법문 중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명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실재하는 겁니까?

답)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가둬 두는, 영혼을 가둬 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無)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탕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거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워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들어 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 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숴 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해서 그런데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럴지언정 속은 하얄 겁니다. 백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즉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 줬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고(苦)를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나?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해서 백 마디를 잘못하게 되고, 천 마디, 만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자기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독사라고 그러지 누가 사람이라고 대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까치 소굴에 들어가서 까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요.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졸려서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 그것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야, 무명천(無明天)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不死天)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는 빠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는 빠져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 **모두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겁니다, 다.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무명천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잘못하고도 남한테 뒤집어씌우는데

문) 요즘은 돈이 뭔지 정치계나 교육계나 어느 분야에서든 비양심적인 일을 저지르고서도 잘못도 인정하지 않거나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답) 요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글쎄,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물을 요만한 상자에다가 딱 봉해서 놓고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며느리를 볼 때 대대손손이 이거를 내려라. 9대까지 내려라. 그러면 9대 손자에서 죽게 됐을 때 이거를 펴 보면 알 수 있느니라. 9대 손자까지 물려서 만약에 죽을 때가 되면 그 보물상자를 원님에게 갖다 드리면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9대조 손자가 그 할아버지예요. 그 9대조 손자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9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뭘 잘못했느냐 하면, 옛날에 노인네들이 계시면 이렇게 발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하려고 발을 쳤는데 아, 이놈의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과실을 따 먹고 있거든요,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쳐들고 "이거 누가 올라가서 그러느냐?" 그러고선 이렇게 쳐드는데 놀래 가지고 그 애가 떨어져서 죽었거든. 그것이 업이 된 겁니다, 죄업이. 그래 그 할아버지가 9대조에 가서 태어날 때에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목숨이 달아나가게 생길 그런 위협이 닥칠 때를 생각하고선 자기가 써 놓은 겁니다, 그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알고.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서 죽인 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죽게 됐어요.

9대 손자가 그 상자를 받았는데 그만 죽게 되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원님한테 갔단 말입니다. 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누가 왔느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9대조의 손자라고 그러니까 "아, 그 할아버지!" 하고 그냥 맨발로 뛰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맨발로 뛰어 내려오자 대들보가 내려앉아서 원님 앉은 자리를 그냥 덮친 겁니다. 그러니 이 손자가 원님을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원님이 턱 보니까 "자네를 살렸으니 나도 살려 주게." 이런 거예요. 우리 9대 손자를 살려 달라 이거죠. 인제 얼른 쉽게 말해서 살려 줘라 이거예요. 지금 그게 9대 손자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너를 살려 줬으니까 나도 살려라 이거죠. 그것도 똑같은 누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명을 쓴 거지만 그 할아버지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그걸 받은 거고, 이 사람도 그렇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누명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님이 죄목을 다 생생히 밝혀서 바로 무죄로 석방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한테다 뒤집어씌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을 그냥 못살게 만들어서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저 모든 것에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가 말입니다, 언덕이 있으니까 가다가 언덕에 비비지, 언덕이 없었더라면 뭣 때문에 소가 가다가 비비겠소?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아,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부딪쳐요? 그러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거죠. 그러면 복이 오고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활고가 닥쳤을 때의 마음자세는

문)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등 나름대로 붙잡고 기도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스님께 의지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스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한 건지요?

답)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거나 가난이 있다거나 우환이 있다거나 유전성이 있다거나 명이 짧다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그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고가 얼마나 많이 들쑤성거리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생각 없는 것도 그저 봤다 하면 그걸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일일이 그냥 꼬나드는 거 있죠. 들으면 듣는 대로 일일이 꼬나드는 거. 이 습관성은 좀더 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모든 게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몸속에 병고가 있다면 주인공에다 놓고 '아, 내 한마음의 주인공 속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속에서만이 고칠 수 있어.' 하고 믿을 때 바로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가난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로부터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어.' 그러고 거기 놨을 때 바로 관세음, 관세음 행을 하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을 하는 데, 실천을 하는 데 실상으로서의 우리가 그 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지, 부처님께서 입으로 이름만 부르고 외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명이 짧을 때에는 '아, 명이 짧다는데 그 명을 좀 길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지.' 할 때 바로 그것은 칠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못 낳아서 애쓸 때는 바로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가 좋은 데로 가고 나도 아프지 않고 잘 옷을 벗고 그냥 가야지 할 때 바로 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래서 천백억화신이 부처님의 이름이죠. 동방에는 아촉이, 부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죠. 마음으로 지어 놓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연적으로.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돌아서 오는, 돌아서 동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미륵이요. 바로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지어 놨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놨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름이 된 것이니 이름 아닌 진짜 지장이 되고 약사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난이 있는 것을 내게 와서 하소하기도 하는데 그걸 재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똥 누고 밥 먹고 아프고 죽고 자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 앞으로 다시 어떤 큰 일이, 자갈밭이, 가시밭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여러분이 약사가 되고 그래야지, 어디다가 기대고 노예가 될 것입니까? 어디다가 믿고 그렇게 기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모르시면 죽어서도 그 차원대로에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모습이나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한다면 그 고를 어떻게 면하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의 뜻을 잘 알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불자 세상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최근 1주일 정도 일본 도쿄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체류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그때마다 언뜻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승객이 많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전철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얘기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전철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직원숫자보다는 훨씬 많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새롭게 이용하게 되는 전철역 개찰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처음의 의문은 이랬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전철과 역 운영상의 자동화가 덜 진전된 것일까? 답은 '아니다'였다. 자동화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훨씬 더 많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좀더 많은 곳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사실 하나, 일본은 생각보다 잉여(?)인력을 여러 곳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시작되고 '희망버스'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다 출국했던 터였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진중공업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계약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던 때라, 잉여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새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0여 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자동화는 그 잉여(?)를 말 그대로 잉여로 몰아붙이게 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고?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입장을 너무나 손쉽게 내세우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래서 그런 일본사회가 의문이고 낯설게만 보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무의식중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던 자신에게 부끄러웠고,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가 부러웠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은, '아, 저게 고통의 분담이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 부분만은 매우 부럽고 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그 약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진다. 사실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약자가 되는 데는 그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지만, 유독 우리 사회만은 그것을 외면하고 약자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듯 비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외면한다. 핑계는 하나다. 살기 바빠서. 자신이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왜? 살기 바빠서. 희망버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아직 사회적으로 강자에 속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강자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회 구조적인 약자가 양산되는 사회는 그 사회 자체의 붕괴를 당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접할 우리 불자님들께도 말하고 싶다.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실천 덕목은 보시바라밀이다. 필자는 가끔 보시를 이렇게 설명한다. 보시는 관심이고, 나눔이며, 더불어 살기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나누지 않는 자가 어찌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 주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지 않는 방편이 된다. 무관심이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무관심이 사회 구조적인 갈등을 조장한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자가 어찌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주변으로 돌려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압력으로 승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양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보력해야 할 때이다. 관심과 나눔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사부대중 칼럼

그 해 여름에 시작된 인연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

폭우가 내린다. 지축을 울릴 듯 쏟아지는 장대 빗소리, 아스라이 들려오던 천둥소리마저 한입에 삼켜 버렸다. 올 여름 쏟아지는 장맛비는 정말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기억조차 아련한 30여 년 전 어느 해 여름날, 응송 스님(1896~1990)을 찾아 가던 그 해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서울에서 그곳까지는 장장 예닐곱 시간이 족히 걸리는 먼 곳, 땅 끝 마을이었다. 가는 길 어디서부터인지 비가 그치고, 힘겹게 달리던 시외버스 꽁무니로 구름처럼 흙먼지가 일었다. 응송 스님이 계신 해남 백화사는 멀고 먼 땅 끝 마을 구림리에 있었다. 해질 무렵 도착한 백화사는 노스님만큼이나 오래된 듯 퇴락할 대로 퇴락된 작은 암자였다. 집의 모퉁이를 받친 버팀목 사이로 무심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암자이면서 사저 같은 곳, 이곳이 바로 노스님의 수행처였다. 당시 스님의 세수는 88세, 수수한 시골 노인 같은 분이었다. 이미 기별이 닿았는지 금세 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신 노스님의 눈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필자와 노스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곳을 오기 전 노스님의 얘기를 처음 들은 건 한 해 전의 일이다. 어떤 노스님이 한문을 할 줄 아는 젊은이를 찾는다고 하는데 필자가 적임자 같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필자의 관심 밖의 일이어서 곧바로 잊어 버렸다. 그러나 참으로 숙연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얼마 후 필자는 백화사로 노스님을 찾았다. 도착한 다음 날엔 늦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무더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낯설은 시공간의 이질감은 분별력을 잃게 하기에 족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암자의 어린 아이가 "공양 드세요"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들렸다. 공양 때가 되었나 보다. 허둥지둥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노스님께서는 이미 점심공양을 다 드셨는지 작은 툇마루에 앉아 계셨다. 이미 필자의 처지를 이해라도 하는 듯, 잠잠히 웃고 계셨다.

백화사의 첫날은 이렇게 머쓱하게 시작된 셈이다. 어렴풋이 백화사의 공간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근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이다. 새벽에 일어나 샘물을 떠오는 일이나 그의 원고를 윤문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노스님의 손때 묻은 크고 작은 분재들. 글 읽는 선비의 집에 꼭 심는다는 만리향을 본 것도 이때 즈음이라 기억된다. 점점 주변의 사물들이 친근해지던 어느 날, 노스님께서 전지가위를 들고 한 뼘 크기로 차나무 가지를 자른 후 황토를 묻힌 가지를 모래판에 가지런히 꼽고 계신 것이 아닌가. 뜻도 모르고 노스님을 따라 한 첫 공부가 '차나무 묘목 기르기'였다.

그가 초의 스님의 다풍을 이어 차를 만들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차를 마시는 노스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생경했다. 차를 알지 못했던 필자로서는 그 깊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를 마신 후 입 안 가득 느껴지는 시원한 청량감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이듬 해 오월, 노스님을 모시고 차 잎을 따러 간 강진에서 난생 처음으로 참새 혀 같은 새순을 보았다. 당시 차 밭이 없었던 노스님께서는 강진, 담양, 진도 등지에서 차 잎을 채취했다. 현지에서 인부를 사서 차 잎을 따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늦은 저녁 차 잎을 덖어 밤새도록 차를 만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막 덖어낸 햇차의 향기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목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것은 차가 아니라 향 덩어리였다. 숨을 쉴 적마다 피어나는 맑고 그윽한 향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였다.

지금도 필자는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후일 응송 스님과 필자를 이어준 노스님의 원고는 1985년 〈동다정통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 되었다. 노스님이 떠나신 후에도 봄이 오면 필자는 차를 만든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마신다.

무덤덤 그 해 여름에 시작된 필자와 차의 인연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한없는 가피이자 평생 갚아야할 빚인지도 모른다. 이 인연으로 차를 만들어 손길이 닿는 대로 차를 보시하고, 연구하는 학인이 되었다. 늘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 응송 스님의 따듯한 눈빛은 언제나 필자를 채근하는 버팀목이다.

社說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대화'

"대단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도법 스님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108배를 올렸다. 이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몸부림이었다.

고용노동부 방문에 앞선 2일 도법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한진중공업 사태도 국민들이 마음 내고 지혜 모아 길을 찾으면 될 일"이라며 "영혼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대화. 일단 만나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이라는 호소였다.

스님이 호소문에 담은 구구절절한 내용은 차치하고, 이날 화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불교계가 왜 노동문제까지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화쟁은 절충·타협을 넘어 불교라는 진리의 정신을 갖고 현실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을 보고 실상대로 하자는 게 화쟁이라는 뜻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실상은 노동문제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분별도 이번 사건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 35m 크레인 위에 우리 이웃이 목숨 걸고 올라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첫째요, 그곳의 세상과 아래 세상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노사가 고집불통으로 서로 꽉 막혀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무관심과 불통이 실상이다.

무관심도 결국 동체대비 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이다. 누구나 크레인 위에 오르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세상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을 태울 수 있다. 타들어가는 속을 해소해 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정병에 담긴 감로수가 아니라 이웃과의 대화이다.

봉은사 수행환경 반드시 지켜져야

천년고찰 봉은사 앞에 49층 규모의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강남구청은 최근 봉은사 맞은편의 4층짜리 코엑스 컨벤션센터를 39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안을 수립해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코엑스 컨벤션센터가 증축되면 봉은사는 일주문 앞이 고층빌딩에 가로막히게 된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답답한 일은 코엑스 증축 계획을 두고도 천년고찰 봉은사는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심사찰 봉은사가 인근 지역의 건축으로 홍역을 앓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45층 규모의 삼성동 아이파크가 건설 될 당시에도 봉은사는 수행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건물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대웅전 등 전각의 단청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결국 건물은 들어섰다.

주지 진화 스님은 8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42개월 동안 매월 한 차례씩 〈천수경〉 108독 정진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거창한 구호보다 사찰 본연의 수행기능에 초점을 맞춘 법회로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봉은사의 고충은 천년고찰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다보니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얼핏 보기에 악재 같은 일들이 기도를 하면 호재로 변한다. 봉은사 사부대중이 이를 증명해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휴대폰 010-9217-2237

(사)일붕법왕문도회
정식 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가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서는 앞으로 큰스님으로 부터 정식으로 건당을 받은 제자들로 구성하여 문도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문도회에서는 앞으로 큰스님에 대한 업적 사업은 물론 문도록을 제작하여 문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도회에서는 일붕문도신문을 발행하여 배포 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도들 간에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과 함께 호국불교효예종, 사단법인 한국불교 명예의 전당, 대한불교종단연합회, 일붕선교종, 대한국불교조계종,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일류평화불교연맹 등 기타 종단과 함께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도회 공동의장에는 영주 관음사 도기 대종사와, 팔봉사 월호대종사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문도들이 정식으로 동참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문도회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후원금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식 후원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장으로만 접수 합니다.

후원금은 문도록 및 신문제작 그리고 비석, 흉상, 동상 보수 및 큰스님의 자료수집에 소중히 쓰여 질 예정입니다.

◇ 후 원 금 ◇

· 은행명 : 하나은행, 후원금계좌
· 예금주 : (사)일붕법왕문도회
· 계좌번호 : 011-3417-1010-604 입니다.

저희 문도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면
은행 계좌번호는 쉽게 기억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일붕법왕문도회 ☎ 02)3417-1010
삼사일체-일붕일붕 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원진 명단 ◇

공동의장 : **김도기 대종사, 박월호 대종사**
명예총재 : **장봉암**
사무총장 : **석무각**
이 사 : **신법진, 김혜운, 주도화, 박지광, 정철, 윤붕안**
감 사 : **박도천, 김청산** 이사장 : **이담화**

법인 설립목적

본 법인은 불타의 진리와 대자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일생동안 남북평화 통일을 염원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758개의 평화통일 기원시비를 건립하시고 6,000여명이 넘는 제자들을 배출하여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일붕 서경보큰스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로 불교홍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통합과 호국불교를 통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일붕 큰스님들의 업적과 자료를 기리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한국불교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불교문화 창달과 중생제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사업 ◇

1. 일붕법왕스님의 업적사업을 조명함.
2. 일붕법왕스님의 유물(사리)보존 및 박물관 건립
3. 일붕법왕스님의 수행과정에 대한 자료 발굴 조사
4. 일붕법왕장학회 설립
5. 일붕법왕스님 추모제 봉행
6. 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 및 동상 흉상 관리 및 보존사업
7. 일붕국제문화상 및 국제평화상 시상
8. 세계불교도 우호증진과 국제 교류사업
9. 일붕법왕스님 건립사찰관리 및 유지보존사업
10. 일붕문도 회보지 발행
11. 호국불교를 통한 문도들의 단합 및 지원 사업
12. 본 법인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